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9

사무엘상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사무엘상

1 Samuel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니라(12: 14)

אִם-תִּירְאוּ אֶת-יְהוָה וְעַבַדְתֶּם אֹתוֹ וְשָׁמַעְתֶּם בְּקוֹלוֹ
וְלֹא תִמְרוּ אֶת-פִּי יְהוָה וְהִיתֶם גַּם-אִתָּם וְגַם-הַמֶּלֶךְ
אֲשֶׁר מֶלֶךְ עֲלֵיכֶם אַחַר יְהוָה אֱלֹהֵיכֶם :



사무엘상 차례

사무엘상 서론	〈17제〉 ...	315
제 1 장 사무엘의 출생과 헌신	〈24제〉 ...	321
제 2 장 한나의 노래와 엘리의 두 아들	〈25제〉 ...	328
제 3 장 여호와께서 이상(異像) 중에 사무엘을 부르시다	〈14제〉 ...	335
제 4 장 언약궤(言約櫃)를 빼앗기다	〈15제〉 ...	339
제 5 장 법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 8 제〉 ...	344
제 6 장 법궤가 반환되다	〈19제〉 ...	347
제 7 장 이스라엘 부흥의 역사	〈21제〉 ...	353
제 8 장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다	〈11제〉 ...	359
제 9 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23제〉 ...	363
제 10 장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24제〉 ...	370
제 11 장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하다	〈14제〉 ...	377
제 12 장 백성을 각성(覺醒)시킨 사무엘	〈16제〉 ...	381
제 13 장 사울의 실패와 하나님의 책망	〈15제〉 ...	386
제 14 장 신앙과 승리	〈26제〉 ...	391
제 15 장 제거되는 사울	〈28제〉 ...	399
제 16 장 다윗에게 기름 붓다	〈20제〉 ...	407
제 17 장 다윗이 골리앗을 쳐죽이다	〈22제〉 ...	413

제 18 장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14제〉	420
제 19 장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다	〈14제〉	424
제 20 장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다	〈19제〉	428
제 21 장	다윗이 놉과 가드로 도망하다	〈14제〉	434
제 22 장	다윗의 방랑 생활과 사울에 의한 제사장의 대량 학살	〈12제〉	438
제 23 장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다	〈15제〉	442
제 24 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 주다	〈13제〉	446
제 25 장	사무엘의 죽음 및 다윗과 나발의 관계	〈21제〉	450
제 26 장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두번째 살려 주다	〈16제〉	457
제 27 장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다	〈11제〉	462
제 28 장	블레셋의 침략에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다	〈19제〉	465
제 29 장	블레셋 진에서 다윗이 철수하다	〈11제〉	470
제 30 장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다	〈19제〉	473
제 31 장	길보아 싸움에서 패한 사울이 자결하다	〈12제〉	479

사무엘상 특별 자료 차례

사무엘상 서론 〈연구 자료〉	본서의 연대표	320
제 1 장 〈화보 자료〉	사무엘을 바치는 한나	327
제 2 장 〈화보 자료〉	엘리 제사장의 악한 두 아들	334

제 4 장	〈본장의 요절〉	343
제 5 장	〈본장의 요절〉	346
제 6 장	〈본장의 요절〉	352
제 7 장	〈지도 자료〉	기랏여아림 (Kiriath-Jearim)	358
제 8 장	〈연구 자료〉	이스라엘과 왕(王)	362
제 10 장	〈화보 자료〉	사울 왕	376
제 12 장	〈본장의 요절〉	385
제 13 장	〈본장의 요절〉	390
제 14 장	〈화보 자료〉	고대의 전쟁 모습	398
제 15 장	〈화보 자료〉	아각을 죽이는 사무엘	406
제 16 장	〈연구 자료〉	여호와와 신과 여호와와 부리신 악신(惡神)	412
제 17 장	〈화보 자료〉	청동으로 만든 창	419
제 20 장	〈본장의 요절〉	433
제 21 장	〈본장의 요절〉	437
제 22 장	〈연구 자료〉	다윗에 대한 사울의 핍박	441
제 24 장	〈본장의 요절〉	449
제 25 장	〈본장의 요절〉	456
제 26 장	〈화보 자료〉	물병	461
제 27 장	〈본장의 요절〉	464
제 29 장	〈본장의 요절〉	472
제 30 장	〈화보 자료〉	왕정 시대의 전쟁 모습	478
제 31 장	〈화보 자료〉	에셀나무 (tamarisk tree)	482

사무엘상 서론

1. ㉠ '사무엘'이라는 본서의 명칭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 ㉠ (1) 사무엘상·하의 열왕기상·하와 마찬가지로 히브리 성경에서 본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
- (2) 그 후 70인역(LXX)에 처음으로 '사무엘서'가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 '왕국기' 1과 2 (Books of the Kingdom)라고 불리어졌다.
- (3)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무엘서에서 시작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왕기서'는 각각 '왕국기' 3, 4로 불리어졌다.
- (4) 그 후 제롬(Jerome)에 의해 왕국기 1-4가 열왕기 1-4로 개칭(改稱)되었다.
- (5) 그리고 나서 벌게이트(Vulgate) 성경에서는 열왕기 1, 2를 사무엘서로 환원하고 열왕기서로 부르기 시작했다.
- (6) 또한 히브리 성경에서 사무엘서가 상·하 두권으로 확정된 것은 1517년 다니엘 봄버그(Daniel Bomberg)가 히브리 성경을 개정, 인쇄하면서부터였다.
- (7) 그 후 히브리 성도도 본래의 히브리어 제목을 계속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각각 두 권씩 네 권의 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 (8) 한편 본서의 제목을 '사무엘'이라고 한 이유는 그가 본문에서 전개되는 역사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2. ㉠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 ㉠ (1) 흑자는 사무엘이란 이름을 히브리어 <셈 엘>,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2) 그러나 이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를 뜻하는 두 히브리어 <쉐무아 엘>을 결합한 말로 해석함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 (3) 왜냐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이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아들을 간구하였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1:20).
- (4)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해준다.

3. ㉠ 본서(本書)의 저자(著者)는 누구인가?

- ㉠ (1) 본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본서 자체가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2) 그러나 본서의 단일성과 문장 배열의 계획성 등은 본서의 단일 저자가 독특한 목적과 문학적인 역량으로서 편집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3) 어떤 학자는 아비아달이 사무엘상·하의 상당한 부분, 특히 다윗의 궁중 생활을 기록했다고 한다.
- (4) 그 이유로서 아비아달은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함께 생활했으며 또한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으므로 문자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22:20).
- (5) 또 다른 학자는 사무엘이 세운 선지 학교의 생도 중 한 명의 스승 사무엘이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을 이어서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 (6) 그러나 저자가 누구든지간에 본서의 저자는 이전에 있던 기존 문서를 이용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선견자 사무엘의 역사와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 및 선견자 갓의 역대기'(대상 29:29) 등이었을 것이다.

- (7) 그러나 이들 문서(文書)들의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8)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영감(靈感)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어느 선지자가 기존 재료들을 편집하여 재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학자들 중에서는 27:6의 '시글락은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란 말을 근거로 하여 본서가 이스라엘 남북조 분열 이후의 기록이라고 주장한다.
- (2)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용어는 다윗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다. 삼하2:10, 11과 24:1에 의하면 다윗은 처음에 유다 족속만 다스리는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고 했다.
- (3) 그리고 27:6;30:25에 언급된 '오늘까지'란 말은 반드시 다윗 통치가 끝난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사무엘서가 다윗 왕의 죽음 전에 끝난 것으로 보아 본서의 저작 연대를 다윗의 생전(生前, B. C. 11세기경)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5. **㉠** 본서에 있어서 사무엘의 위치를 논하라.

- ㉠** (1)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士師)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가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
- (2)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통치에서 왕정(王政)으로 급변하던 시기(8:4-9)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와 종교적 일치를 새로이 해야 하는 큰 사명을 받았다.
- (3) 출애굽 역사에 버금가는 중대한 민족의 위기를 당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봉사했다.
- (4) 그는 선지자의 직무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제사장직이나 왕직의 차원과는 결합시켰다(7:15-17).
- (5) 사무엘 시대 이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을 육성하고 강화하였으며,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언(代言)하여 선포했다.
- (6) 또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10:1).
- (7) 그리고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사실상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므로 그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 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까지도 수행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8)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까지 이 세 가지 직분이 한 인간에게 동시에 주어진 것은 사무엘 이후 한 번도 없었다.

6.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왕국의 성립과 이에 대한 사무엘의 역할에 관한 기사를 서술한 것이다.
- (2) 사무엘은 사사이며(7:6, 15-17), 또한 선지자(3:20)였다. 그러므로 그는 사사 시대와 초기 왕국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3) 그리고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건립하는 데 이중의 준비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사사 시대를 통하여 혼란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중앙 정부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8:6).
- (4) 그 다음으로 왕은 독재자가 아닌 선한 왕이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하고 공정하게 통치함으로써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을 미리 보여 줄 만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 (5) 예를 들면 완고한 독재자 사울이 백성을 다스린 사실을 통하여 왕은 의(義)로 통치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던 것이다.
- (6) 본서는 왕국의 수립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위대한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터 유래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는 역할도 한다.

7. **㉠** 본서와 열왕기서와의 관계를 논하라.

- ㉠** (1) 본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통일 1국 시대와 유다와 이스라엘의 혼란한 분열 시대의 역사를 총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2) 히브리어 성경에는 본서와 열왕기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3) 심지어는 현대판 성경에서 사무엘상·하에 열왕기 1, 2 그리고 열왕기상·하에 열왕기 3, 4라는 부제(副題)가 붙여지기도 한다.

8. **㉠** 사무엘상·하의 관계를 요약하라.

- ㉠** (1) 사울의 전사(戰死)를 중심으로 나누어진 사무엘상·하는 계속 이어지는 역사적 일관성에 모순점을 드러내 다소 문제점이 있다(31:1-6; 삼하1:4-10).
 (2) 히브리어 원본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사무엘하의 대부분은 독자들이 이미 사무엘상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하고 있다.

9. **㉠** 사무엘서의 기본 사상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삶 뿐만 아니라 민족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면서 당신의 예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역사하신다.
 (3)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4) 이 기본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몇 가지 부수적인 주제가 사용되었다.
 (5) 예를 들어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범죄한 백성 위에 임박한 진노를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과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
 (6) 본서 전반에 걸쳐 개인과 민족의 이야기가 얽혀 있지만 이 모두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7) 오직 한 분이시며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범죄로부터 흉악하고 불순종하는 민족의 큰 죄악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자비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8) 이와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 **㉠** 본서에서 신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 ㉠** (1) 먼저 계시이다.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이 섬긴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에게 무슨 표(10:2-9; 12:16-19; 14:9, 10)나, 꿈이나, 신탁(14:18, 37-42; 22:10; 23:6; 30:7)이나, 예언(26:6) 등으로 나타나셨다.
 (2) 두번째로 이스라엘의 선택 문제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1:3)으로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였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힘이셨다(4:21; 15:29).
 (3)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4) 세번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하나님은 성공의 유일한 원인이시며(30:23)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12:7)이었다.
 (5) 병고(삼하21:1-14; 24:1-25)도 죽음(6:19; 삼하6:7)도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으므로,

이 세상의 역사 뿐 아니라 생명과 사망까지도 당신께서 주장하신다(1:5;2:6).

- (6)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한 가지 제한은 사람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15:11).
- (7) 끝으로 개개인의 인격보다는 집합적 인격을 강조한 점이다. 이스라엘의 도덕, 종교 문제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가족적, 사회적, 민족적 문제였다(참조, 12:13, 14; 삼하 21:1-4).

11. **㉠** 본서의 역사성을 논하라.

- ㉠** (1) 본서의 명확한 역사성과 그 신빙성(信憑性)은 다른 성경에서도 여기에 관하여 확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인정할 수 있다.
- (2) 즉 다른 성경 가운데 본서에 나타난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는 곳은 왕상 2:27; 대상; 예레미야; 시편 등이며 특히 마 12:3 이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은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참조, 21:6; 막 2:25; 눅 6:3).
- (3) 바울 또한 행 13:20-22에서 본서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12. **㉠** 본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최후의 사사이며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과, 당시 사사겸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기사(記事)로 부터 시작된다.
- (2) 계속해서 사사 통치의 종말과 왕정(王政)의 유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선택과 그의 치적(治績)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 (3) 다음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 받은 사실과 그를 대신하여 다윗이 왕의 소명을 받은 후 사울에게 당한 박해를 기록하고 있다.
- (4) 마지막으로 사울의 죽음으로 이 책이 끝난다.
- (5) 그러므로 본서는 사무엘로부터 사울까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13. **㉠** 본서의 내용 중 서로 상충(相衝)되는 부분을 지적하라.

- ㉠** (1) 사무엘의 말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말을 들은 일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4:1;9:6).
- (2) 사울은 블레셋 사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7:13;13장;삼하5장).
- (3) 사울은 두 번이나 왕위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스렸다(13:14;15:26).
- (4) 다윗은 사울의 궁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투구를 나르는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는 사울이 그를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다(16:14-23;17:55).
- (5)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기도 하고 엘하난이기도 하다(17:51;삼하21:19).
- (6) 사울은 자살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또 아말렉 사람이 죽인 것으로도 되어 있다(31:4;삼하1:10).
- (7) 압살롬은 아들 셋을 낳았다. 그런데 아들이 없음을 한탄한다고 했다(삼하14:27;18:18).

14. **㉠** 본서의 내용 중 두 번 이상 중복된 기록을 나열하라.

- ㉠** (1) 8-14장까지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의 기사(記事)가 있다(10:1, 17-27;11:14, 15).
- (2)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격언의 출처에 대해서도 두 개의 설명이 있다(10:10-13;삼하19:18-24).
- (3) 사울은 왕위(王位)에서 두 번이나 사무엘에게 추방당한다(13:14;15:26).
- (4)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의 왕궁에 소개된다(16:14-23;17:55-18:5).
- (5) 사울에게는 두 딸이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다윗의 결혼 상대자로 제공된다(18:17-19, 20-29).

(6)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피한 기사는 세 번이나 나온다(19:11-17, 18-24; 20:1-42).

15. **㉠** 본서가 오류가 없는 정경(正經)이라는 점에서 내용 중 서로 상충되는 것이나 중복된 기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 ㉠** (1) 문장 구성의 급변과 다양성은 히브리 문학의 한 특징이다. 반복 기사 문제도 성경 본문을 건전한 해석학적 견지에서 살펴 볼 때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
- (2) 본서에서 취급하는 사건들이 연대적(年代的)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배열의 순서가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모든 사건들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살펴 볼 때 질서있게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소위 반복 기사설(記事說)도 자세히 관찰하면 같은 사건의 이중(二重) 기사라기보다는 각각 다른 근원을 가지는 사건들이며, 가령 동일 사건의 반복 기사라 할지라도 한 사건에 대한 기사를 무의미하게 반복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견해에서 독특한 교훈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 (4) 본서의 주역자(主役者)인 사무엘의 생애는 하나이었으나 그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과 신뢰심은 다양하였다.
- (5) 사무엘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의 연령이 달라짐에 따라 사고(思考)의 변화가 있었겠고, 사무엘 자신의 객관적 변화는 그의 성역(聖役)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6)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정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나타내신 성격도 달라졌을 것이다.
- (7) 결론적으로 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문체에 있어서나 내용 배열에 있어서 단일성을 드러내므로 이런 면에서 본서가 단일 저자의 작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6.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사무엘의 사사직(士師職) / 1-7 장
- ① 사무엘의 어머니와 그의 노래 / 1:1-2:10
 - ② 사무엘의 성소 봉사 / 2:11-3:21
 - ③ 실로 성도의 불행과 엘리 제사장의 죽음 / 4:1-22
 - ④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다 / 5:1-6:21
 - ⑤ 미스바의 회개와 법궤의 귀환 / 7:1-17
- (2)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 8-15 장
- 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구하다 / 8:1-22
 - ② 사울을 왕으로 세우다 / 9:1-10:27
 - ③ 암몬 자손을 이기다 / 11:1-15
 - ④ 사무엘의 마지막 교훈 / 12:1-25
 - 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기다 / 13:1-14:52
 - ⑥ 사울의 불완전한 순종 / 15:1-35
- (3) 사울과 다윗 / 16-31 장
- 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궁에 소개하다 / 16:1-23
 - ②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다 / 17:1-58
 - ③ 사울의 시기와 다윗의 도피 생활 / 18:1-20:42
 - ④ 다윗의 방랑 생활 / 21:1-30:31
 - 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다 / 31:1-13

17. **㉠**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 (12:14).

연구자료

본서의 연대표

엘리의 사사 활동 (B.C 1126, 1:9)		B. C. 1120		
사무엘의 종생 (B.C. 1100, 1:20)	엘리	1100		
아벳 전투 및 엘리의 사망 (B. C. 1080, 4:1-18)	사			
미스바 대성회 (B. C. 1060, 7:5, 6)	무			
사무엘의 죽음 (B. C. 1017?, 25:1)	엘	1050	사울	사울의 등극 (B. C. 1050, 참조, 10:17-24) 다윗의 종생 (B. C. 1040, 참조, 삼하 5:4)
		1000	다윗	아말렉 전쟁 및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 (B. C. 1025, 15, 16장) 사울의 죽음 및 다윗의 등극 (B. C. 1010, 31:1-6; 삼하 2:4) 다윗의 통일 왕국 (B.C.1002, 삼하5:3)
		970		임살롬의 반역 (B. C. 979, 삼하 15:7-12) 다윗의 죽음 (B. C. 970, 왕상 2:10, 11)

제 1 장 사무엘의 출생과 헌신

단락구분 1-2 엘가나의 족보와 가정 / 3-8 한나의 고통과 엘가나의 위로 / 9-18 한나의 기도와 서약 / 19-20 사무엘의 출생 / 21-28 사무엘의 헌신

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3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와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5 한나에게는 감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6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므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7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 보다 낫지 아니하노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15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17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 하시기를 원하노라

18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19 그들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 한나가 임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1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2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 영영히 있게 하리이다

23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떼기까지 기다리다가

24 젖을 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 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룩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5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니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로
 27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 **㉠** 본장에 언급된 사무엘의 출생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 ㉠** (1)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특별한 뜻을 갖고 제실 때에 그 사람의 탄생에 있어서 특별한 일이 결부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2) 이러한 예는 구약의 한나와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신약의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어 오랜 고통을 겪으며 수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사무엘, 이삭, 야곱, 세헤 요한과 같은 아들을 얻는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가 것처럼 바라던 아들을 주실 때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으로만 주시지 않았다.
 (4) 즉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 중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사사요, 왕국 건설을 위한 선지자 중 첫 선지자(모세 이후)로 주셨다.

2. **㉡** 라마다임소빔은 어디에 위치한 곳인가? (1절)

- ㉡** (1) 라마다임소빔은 문자적으로 '숨(Zuphite) 땅에 있는 고지(高地)'라는 뜻이며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 중 한 도시로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2) 이것은 라마(1:19)의 원지명이다.
 (3) 그리고 소빔은 숨의 자손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대상 6:26, 35).
 (4) 사무엘은 레위인이었으며(대상 6:1, 28) 율법에 따라(민 35:1-8) 그들에게 주어진 베냐민 지파 구역에 있는 라마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성장했으며 또한 최후를 맞았다(1:19, 20; 7:17; 15:34, 35; 16:13; 19:18, 19; 25:1; 28:3).

3. **㉢** '엘가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1절)

- ㉢** (1) 엘가나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얻으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다.
 (2)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3)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본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기 위하여 브닌나라는 첩(妾)을 두었다.
 (4)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둔 것은 창조의 원형을 파괴한 처사(창 2:24)였으며 가정의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4. **㉣**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一夫多妻制)를 허용하셨는가? (2절)

- ㉣** (1) 아브라함, 야곱, 기드온, 다윗, 솔로몬 등이 모두 중혼(重婚)하였으며, 모세의 율법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아(신 21:15-17)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부 다처(一夫多妻)의 풍습을 허용하신 듯하다.
 (2) 그러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原) 뜻은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이며(창 2:24; 말 2:15) 신약 성경에서도 이 점에 관해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딤후 3:2, 12).
 (3) 중혼을 묵인한 것과 적극적으로 그것이 옳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즉 일부 일처제는 창조의 원리인 반면에 중혼은 명백한 죄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결코 정당한 일은 아니다.
 (4) 일부 일처제의 규례를 최초로 파괴한 인물은 가인 계통의 라멕이었다(창 4:19).
 (5)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첫 결혼의 경우(신 21:15-17)와 계대(繼代) 결혼(신 25:5-10)일 때에 허락하셨다.
 (6) 그런데 이 중혼이 실행될 때에는 자주 큰 불행이 초래되었다(1:6, 7). 또한 이것은 한

개인의 인격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해치는 행위이다.

(7)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잘못 실행될 때는 항상 부조화와 고통이 뒤따른다.

5. **㉠** 엘가나가 매년(每年) 실로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드리기 위해서였다.

(2)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매해 세 번씩 성전으로 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출 34:23).

(3) 여기서 엘가나가 1년에 몇 번 실로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엘가나가 매년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해석한다.

(4)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는 규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야 비로서 보편화된 것 같다(참조, 눅 2:41).

6. **㉠** 이스라엘에 있어서 실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3절)

㉠ (1)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였다.

(2)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장막이 그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참조, 수 18:1).

(3) 이곳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에서 법례를 빼앗기기까지(4:1-11) 종교적 중심지로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요충지였다.

(4) 또한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5) 즉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성전 시대의 중간 과정에 놓여 있던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안식하는 처소로 이 실로를 택하셨다.

7. **㉠** ‘만군의 여호와’ 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1) 이것은 초기 히브리인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뜻하였다(17:45).

(2) 그 후에 이것은 하늘의 천군을 다스리는 하나님(왕상 22:19; 눅 2:13; 계 19:14)을 가리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늘과 지상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뜻하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이 말은 여호와가 단순히 한 나라만을 지키는 수호신(守護神)인 것처럼 오해하는 망상(妄想)을 막아 준다.

8. **㉠** 엘리의 직책은 무엇인가? (3절)

㉠ (1) 그가 당시에 유력했던 비느하스의 후손에 속하지 않고 이다말의 후손에 속한 대제사장이었다.

(2) 또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유능한 사사(士師)였다(4:18).

(3) 그리고 그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의 지도하에 나라는 블레셋으로부터의 침공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또한 번영할 수 있었다.

(4) 그의 이름의 뜻은 ‘고상함’, ‘높음’이다.

(5) 그런데 엘리가 너무 늙어서 대제사장으로서는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의 두 아들이 대신하여 성소의 일을 맡게 되었다.

9. **㉠**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4,5절)

㉠ (1) 한나에게는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의 자녀보다 갑절이나 주었다고 표현하였다.

(2) 또한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라고 위로하였다(8절).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라도 위로하시며 사랑하신다.

(4) 단지 인간들이 믿음의 눈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와 사랑을 보지 못할 뿐이다.

10. **㉠** 한나의 불임(不妊)은 단지 그녀의 육체적인 결함 때문이었는가? (5절)

㉠ (1) 한나가 일시적으로 임신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심 때문이었다.

- (2) 일시적인 제한이 한나에게는 몹시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 남편 엘가나의 친절과 사랑은 즉각적인 보상이었으며 더 나아가 사무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졌다(20절).
- (3)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수년 동안 고통 중에 연단된 믿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었다.
- (4)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도 한나의 인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후에 그 약속하심을 얻기 위해서이다(참조, 히10:36).

11. ㉠ 한나가 번민한 이유는 무엇인가? (6-8절)

- ㉠ (1) 엘가나에게 사랑받는 한나를 질투한 브닌나가 한나에게 대적하였고 더우기 그녀가 아기 낳지 못함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 (2) 이스라엘적 사고(思考)로는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였으며(참조, 신7:13, 14), 반면에 성태(成胎)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했다(참조, 창20:17, 18; 30:2; 삼하6:23).
- (3) 그러므로 한나는 여호와께 감사드리는데 감사제의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더욱 번민하며 울고 먹지 않았다(7절).
- (4) 요즈음도 이처럼 이스라엘적인 사고를 가지고 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
- (5)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외적인 형태에만 국한(局限)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내적인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기쁨을 통하여 현저하게 나타난다.

12. ㉠ 여호와의 전(殿)은 계시의 점진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9절)

- ㉠ (1)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경배를 받으셨다. 즉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었다(참조, 시19:1; 사66:1; 행7:49; 계7:15).
- (2) 그 후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중에 두셨고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생활하게 하셨다.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당신의 집, 즉 성전(聖殿)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 전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예표한 것이다.
- (4) 그러나 가시적(可視的) 성전의 불완전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완전한 성전이라고 역설하셨다(요1:14; 2:21; 골2:17).
- (5)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靈)이 거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참조, 고전3:16; 6:19; 고후6:16; 엡2:20-22; 벧전2:5).
- (6)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의 최고 성숙한 모습은 하나님과 영이 거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교회라 말할 수 있다.

13. ㉠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한 내용은 무엇인가? (10, 11절)

- ㉠ (1)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였다.
- (2) 또한 삭도(削刀)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했다. 즉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참조, 민6:2; 삿13:5).
- (3) 이러한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로 하여금 어린 시절부터 주께 마음을 바쳐 살도록 했다.
- (4) 이와 같이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운 자식은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14. ㉠ 제사장 엘리의 실수는 무엇이었던가? (12-14절)

- ㉠ (1) 엘리는 한나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술에 취한 줄로만 알고 책망하였다.

- (2) 즉 엘리는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을 보기보다는 겉으로 나타난 표정만을 보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 (3) 이 사실은 거룩한 제사장직을 행하는 그가 형식적이고 육신적인 신앙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 (4)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형제를 비난하기에 앞서 그 형제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깊이 이해할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하며 엘리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15. **㉠** 엘리의 책망에 대한 한나의 답변은 무엇인가? (15, 16절)

- ㉠** (1) 한나는 삼중적 표현으로 자기의 행위를 변호했다.
- (2) 그 첫째는 단순하고 날카롭게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잘라 말했다.
 - (3) 두번째로 슬취했다는 비난에 대하여 자기는 영혼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여자이므로 단지 여호와께 기도한 것뿐이라고 했다.
 - (4)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의뢰하며 그 해결을 부탁하는 기도는 온전한 신앙의 한 표현이다(참조, 벧전5:7).
 - (5) 마지막으로 '나를 악한 여자로 간주하지 말라' 고 강하게 변호했다. 여기서 '악한 여자'란 말은 '가치 없음'을 뜻하는 히브리 관용어로서 자기를 무가치한 여자로 보지 말라는 것이다.
 - (6) 한나는 이러한 반론(反論) 가운데서도 예의를 잊지 않았다. 즉 대제사장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답변에는 여전히 지극한 겸손을 찾아 볼 수 있다.
 - (7)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다.

16. **㉠** 기도를 마친 한나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18절)

- ㉠** (1)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일상 생활을 하며 다시는 슬픈 기색(氣色)을 띠지 않았다.
- (2) 이것은 자신의 소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행동이었다.
 - (3)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참조, 시116:1).
 - (4) 즉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인내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적절한 응답을 분명히 허락하신다(참조, 약1:4).

17. **㉠**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말이다(현대인의 성경). 즉 하나님이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다.
- (2) 이같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은 항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 (3)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되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기억하신다.
 - (4) 또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들어 있는 자들은 일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참조, 마28:20; 요14:16).

18. **㉠**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0절)

- ㉠** (1)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다.(참조, 서론 ㉠2).
- (2) 한나는 이 이름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아들을 간구해서 얻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3)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기억하게 해준다.
 - (4) 사무엘과 같이 기도로 얻은 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다.

19. **㉠** 매년제(每年祭)와 그 서원제(誓願祭)란 무엇을 말하는가? (21절)

- (A) (1) 매년제란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의무가 있다. 서원제에 대해서는 민 15장 문답 강해를 참조하라.
- (2) 매년제와 서원제는 율법에 상세히 기록된 여러 규례를 요약하여 표현한 것이다(참조, 신 12:17, 18).
- (3) 여기서 엘가나가 서원제(誓願祭)를 드린 것은 한나의 서원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된다.
20. (C)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에게 젓 때는 시기는 보통 언제인가? (22-24절)
- (A) (1) 이스라엘인의 아이들은 2년 내지 3년만에 젓을 떼었다(참조, 외경 마카비하 7:27).
- (2) 여기서 '젓 떼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충분히 다루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영적 교육의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 (3)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말을 알아 듣든지 못 알아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 주었다고 한다.
- (4)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 주고 주의 교양으로 날마다 자라게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교육 방법이다.
21. (C) 하나님 앞에 영영히 있게 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2절)
- (A) (1) 이것은 사무엘이 젓을 떼는 그때부터 성소에서 성별된 봉사자로 일생을 바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28절).
- (2)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역시 사무엘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 각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생활해야 할 것이다.
22. (C)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맹세하였는가? (26절)
- (A) (1) 한나는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였다.
- (2) 이것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수한 맹세의 말이다.
- (3) 이렇게 하나님의 사심을 근거로 맹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듣고 능히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었다.
- (4)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 기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
23. (C) 한나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했는가? (26절)
- (A) (1) 한나는 선 자세로 기도했다.
- (2) 선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적인 기도 자세였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참조, 창 18:22; 19:27; 단 9:20).
- (3)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 그러나 마음의 표현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적절한 기도 자세를 취했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참조, 왕상 8:24; 대하 6:13; 스 9:5).
24. (C) 한나는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맹세했다. 이 맹세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8절)
- (A) (1)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빌려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양도한다는 것이다.
- (2) 일시 위탁하는 것과 아주 바쳐버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하나님께 위탁하지만 자신의 평생을 통하여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 (3) 대체적으로 우리는 필요에 따라 자신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빌려 드리지만 곧바로 자기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야 만다.

- (4) 장성한 자식도 아닌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와 성소에 두고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 표현이다.
- (5) 우리의 삶은 이 한나의 신앙 태도와 같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보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갈 2:20).

화보자료

사무엘을 바치는 한나. 아래의 사진은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자신이 서원한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치는 한나의 모습으로 서 16세기의 그림인데 상티이 콩테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비록 여인이기는 하지만 한나의 신앙은 매우 깊고 강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을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것과(11절) 것처럼 어렵게 낳은 아들 사무엘을 첫 떼자마자 여호와께 서원대로 드린 일은 그녀의 신앙심 깊은 모습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24, 28절).

제 2 장 한나의 노래와 엘리의 두 아들

단락구분 1-11 한나의 감사 노래 / 12-17 엘리의 두 아들이 저지른 죄 / 18-21 어린 사무엘의 사역 / 22-26 엘리의 두 아들이 성소를 더럽히다 / 27-36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

1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뺨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니라

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떠를 떠도다

5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 여호와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7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9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10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도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배부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뺨을 높이시리도다 하니라

11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3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

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 그것으로 남비이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찢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15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떼앗으리라 하였으니

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9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걸음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0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21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희박문에서 수증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 내 아들이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으로 범과케 하는도다

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

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26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려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2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물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모든 제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30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31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32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36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온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1. ㉠ 본장에는 누구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가?

- ㉠ (1) 본장에는 엘가나 가족들의 좋은 성품과 태도, 그리고 엘리 가족들의 잘못된 성품과 태도가 언급되어 있다.
- (2) 그 두 가지, 기사(記事)가 본서에 서로 엇갈려 나오고 있는데 아마 본서의 저자는 두 가정을 분명히 대조적으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 (3) 엘가나 가족들의 신앙적이며 질서있는 태도는 엘리 가족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더욱 잘못된 것으로 드러내 보인다.
- (4) 또한 엘리 아들들의 악행은 어린 사무엘의 경건한 신앙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2. ㉠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한 내용은 무엇인가? (1-10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 한나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셨음을 찬양했다(1절).
- (2) 두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을 강조했다(2절).
- (3) 세번째로 하나님의 지식을 찬양했다(3절).
- (4) 네번째로 하나님은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노래했다(4-8절).
- (5)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노래했다(9; 10절).
- (6) 이렇게 노래 형식을 빌은 이 기도는 훗날 예배 모임 전에 낭독되었다고 한다(시 75:10; 92:10; 113:7-9).
- (7) 이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다.

3. ㉠ 한나가 이러한 노래를 지어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1-10절)

- ㉠ (1) 한나의 찬양은 그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한 것이었다.
- (2) 한나의 감사 찬송은 신약의 마리아에 의해서 되풀이 되었다(눅 1:46-55).
- (3) 자기 체험의 작은 거울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을 들여다 보았던 것이다.
- (4) 하나님은 한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셨을 뿐 아니라(1절) 브닌나의 격동을 침묵 속에 잠

기게 만들었다(3-5절).

(5) 그녀에게 공허와 비참한 수치는 다 지나가고 생명과 기쁨, 그리고 존귀가 찾아왔다.

4. **㉠** 한나의 노래 중 '내 뿔이 높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1) 여기서 '뿔'이란 '강력한 능력'을 상징한다(참조, 단7:21).

(2)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것이 자기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나는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다.

5. **㉠**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1) '입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는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2) 왜냐하면 불임으로 인해 멸시받았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얻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3)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한 그녀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찬양이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입에서는 담대한 찬양이 넘쳐난다.

6. **㉠**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었는가? (2절)

㉠ (1)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2) 즉 그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며 또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3)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알고 그 안전한 처소에 거하기를 소원하였다.

(4) 이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7. **㉠** 한나의 노래 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은 무엇인가? (2, 10절)

㉠ (1) 먼저 '반석'이다(2절). 이것은 만세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고전 10:4).

(2)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10절). 이것은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뜻한다(참조, 행 4:27).

(3)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아녀자의 입을 통해서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펼치신다.

8. **㉠** 하나님의 지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3절)

㉠ (1) 하나님은 제한된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모든 부분을 통달하고 계시며 또한 지식의 세계를 통괄하고 계신다.

(2) 즉 하나님은 전지 전능(全知全能)하신 분이시다(참조, 대상 28:9).

(3) 더우기 그분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까지 아시는 분이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운 부분까지 알고 계신다.

(4)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과 같이 날날이 드러날 것이다(참조, 마 10:30).

9. **㉠**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떠돌 떠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1) 이것은 제아무리 훌륭한 육체와 병기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멸망하고 만다는 뜻이다.

(2) 또한 아무리 역경에 처한 자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뜻이다.

(3)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참조, 잠 16:5).

그러므로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다(잠16:18).

10. ㉠ 하나의 노래 중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노래한 귀절은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유족(裕足) 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않는다' 라고 표현한 귀절이다.
 (2) 이 귀절은 하나님께서 인간 생활의 경제적인 측면에서까지도 당신의 손길을 뻗쳐서 공의가 실현되게 하신다는 말이다.
 (3)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교만해지기 쉽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올바른 경제관을 가진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11. ㉠ 한나가 자기 자신의 체험한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내용은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라는 말이다. 이 말은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어 기뻐하되 자신에게 그 아들이 일곱 아들을 얻은 것만큼 흡족히 여겼다는 표현이다.
 (2) 한편 여기서 일곱이란 수자를 성수(聖數) 또는 완전수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더우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참조, 룻 4:15; 램 15:9).

12. ㉠ 하나님이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6절)

- ㉠ (1)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라고 표현했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전영역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임을 강조한 말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위에 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당신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신다(참조, 신 32:29; 왕상 17:20; 행 17:28).

13. ㉠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여기서 '기둥들'은 문자적으로 '붙잡아 주는 힘' 또는 '지탱케 하는 힘'을 말한다.
 (2)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신다.
 (3) 결국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과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 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힘으로 붙들고 계신다(참조, 시 33:18-20; 121:2).

14. ㉠ 한나가 내다본 종말론적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가? (10절)

- ㉠ (1)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꺾으시고 결국에는 당신이 인정하신 자의 권위를 높이 세우실 것을 예언하였다.
 (2)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 전부터 종말론적 심판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좋은 증거이다.
 (3) 그와 동시에 가까운 장래에 다윗 같은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와 이방의 세력을 꺾을 것을 예견한 말이기도 하다.
 (4)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항상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성실한 자세로 생활해야 한다.

15. ㉠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不良者)라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12절)

- ㉠ (1) 이것은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아들들' (sons of Belial)이라는 뜻이다.
 (2) 이것은 비류(非類)의 자식들, 즉 배도자(背道者), 무가치한 존재, 불량배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3)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 봉사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악행을 저질렀다(참조, 렘 4:22; 호 5:4).

(4)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면서도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이 있다(참조, 요 16:9).

16. **㉠**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죄악은 무엇인가? (13-17절)

㉠ (1)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분량 이상의 제물을 취하였다(레 7:34).

(2)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를 취하였다(레 3:3-5).

(3)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멸시하는 죄악을 범하였다.

(4) 엘리의 아들들이 이같이 율법과 성소의 규례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한 이유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5) 이처럼 허물과 죄로 영의 눈이 감기워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에게 경배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

17. **㉠** ‘이 소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7절)

㉠ (1) 여기서 ‘소년들’이란 제사장의 사환들이 아니고 제사장들, 곧 엘리의 아들들을 말한다.

(2) 그들의 무모하고 교만한 범죄 행위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이었다.

(3) 그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경멸하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에서 제물에 대한 신중성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4)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는 크다.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제사장들의 죄는 더욱 크다.

(5)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 호색, 그리고 거만함이 가져다 주는 것만큼 성도들의 신앙에 손상을 끼치는 것은 없을 것이다.

18. **㉠** ‘세마포 에봇’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8절)

㉠ (1) 에봇은 몸에 붙고 소매가 없으며 앞치마같이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옷으로 대제사장만 입었고 또 제단 앞에서 제사를 집행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28절; 출 28:5-14).

(2)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마포 에봇은 앞에서 언급한 대제사장의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3) 즉 한나가 어린 사무엘에게 입혔던 세마포 옷은 대제사장의 성의(聖衣)가 아닌 성전 봉사 때 입는 옷이었다(19절).

(4)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참조, 벧후 1:1).

19. **㉠**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얼마나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하였는가? (20, 21절)

㉠ (1)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

(2) 이것은 한나의 열정적인 기도(1:10, 11, 15), 순종(1:28), 예배(1-10절)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18, 19; 1:24절)의 모범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결과였다.

(3) 물론 구원이란 문제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의(義)로 여겨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시고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

20. **㉠** 여호와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할 만큼 그들의 죄는 심각한 것이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한 죄악은 무엇인가? (22-26절)

㉠ (1) 율법에 허락된 식물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도리어 제물 가운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취하여 먹었다(참조, 12-17절).

(2) 또한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3) 더우기 양심이 마비된 두 아들은 부친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였다(25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일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인 일에 있어서도 물의를 일으키며 끝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 (5)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죄악은 마땅히 율법에 의하면 징계당할 만한 것이었다(참조, 신 21:18-21).

21. **㉠**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6절)

- ㉠** (1)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의 행동한 삶을 가리킨다.
 (2) 여기서 자란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났다는 뜻이다.
 (3) 더우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무엘이 그의 종교 의식적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때에 그의 영적인 인격도 자랐다는 것이다.
 (4) 그리고 이 말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 것처럼 이 은혜가 앞으로 계속될 것을 나타내며, 또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근거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눅 2:52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다.

22. **㉠**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엘리에게 책망하셨는가? (27-30절)

- ㉠** (1)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다(27, 28절).
 (2) 그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28절).
 (3) 그런데 아론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집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29절).
 (4) 즉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하여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대제사장인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9절).
 (5) 율법을 엄정하게 지켜야 할 대제사장인 그가 자기 아들들의 죄에 대하여 묵인하고 침묵하였으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
 (6) 이와 같이 진리가 파괴될 때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약4:17).

23. **㉠**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 엘리에게 예언한 말은 무엇인가? (31-35절)

- ㉠** (1)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의 제사장 가계(家系)가 몰락할 것을 예언하였다.
 (2) 이 예언은 늙어서의 제사장들 대량 학살(22:11-19)과 솔로몬 때에 제사장직이 사독의 집에 옮겨짐으로 성취되었다(왕상2:26, 27, 35).
 (3)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은 것은 그 예언을 암시하는 표가 되었다(34절).
 (4)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때가 차면 모두 성취되고야 만다.

24. **㉠**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어떠한 형벌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31-35절)

- ㉠** (1) 엘리의 집의 팔을 끊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하셨다(31절). 여기서 팔은 힘 또는 능력을 상징한다.
 (2) 또한 엘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의 환란을 보게 될 것이다(32절).
 (3) 하나님의 단에서 하나님이 끊어 버리지 않을 엘리 집안의 사람이 엘리의 눈(즉 그 자손들의 눈)을 쇠잔(衰殘)케 할 것이다(33절).
 (4) 엘리의 마음이 슬프게 될 것이다(33절).
 (5) 엘리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33절).
 (6)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34절).
 (7)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해치는 자들에게 철저한 보응을 행하신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레 11:45).

25. ㉠ 이른바 충실한 제사장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35절)

㉠ (1) 혹자는 충실한 제사장이 사무엘이라 한다(7:9;10:8;16:5).

(2)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사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왕상 2:27,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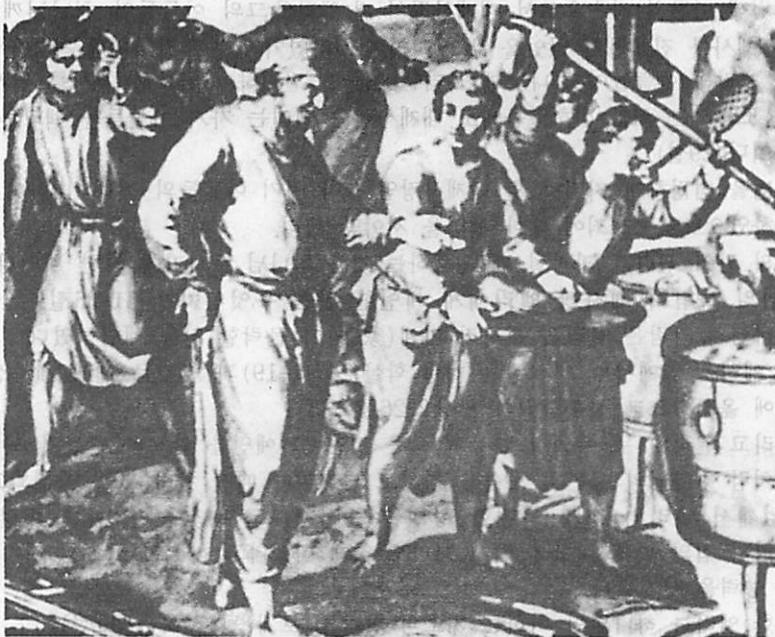
(3) 그러나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이든간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악하다 해도 성역(聖役) 그 자체는 세상 끝날까지 존속된다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5) 또한 이 충실한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실현되었다(히 7, 8장).

화보자료

엘리 제사장의 악한 두 아들. 아래의 사진은 훔니와 비느하스가 사환을 시켜 부당하게 제물을 취하는 모습으로 1728년 P. 드옹이 제작한 「성경의 인물」의 삽화인데 지금은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여(17절) 제물용 고기를 부당하게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13-16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등 악행을 일삼았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30절)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4:11).

제 3 장 여호와께서 이상(異像) 중에 사무엘을 부르시다

단락구분 1-9 사무엘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다 / 10-14 엘리 가문의 멸망에 관한 계시 / 15-18 엘리에게 전해 준 하나님의 계시와 이에 대한 엘리의 순복 / 19-21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 받은 사무엘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 하나님은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 전 안에 누웠더니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 엘리에게로 달려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 여호와께서 세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십시오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와 접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 하더니

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18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9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1. ㉠ 본장에 언급된 특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 ㉠ (1) 성경을 통해 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왔다.
- (2) 즉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극적인 환상을 통해 부름 받았다(사6:1-8).
- (3) 반면에 예레미야는 도덕적 의무의 한 형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처음부터 비극적인 사명을 위해 소명을 받았다고 느꼈다(렘 1:1-10).

- (4)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 생활하는 자기 동족의 영적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겔 1:4-28).
- (5) 본장에서 어린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음성)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 기능을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2. **㉠** '여호와와의 말씀이 희귀(稀貴)하여 이상(異像)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계시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이 당시에 풍미했던 배교와 예언적 무능력 상태를 나타낸다(참조 시 74:9).
- (2) 이 비극은 암 8:11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상태와 유사하다.
- (3) 여기서 또한 이상이란 '비전' (vision), 즉 하나님의 묵시(默視)를 말한다.
- (4) 여기서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는 뜻이다.
- (5) 또한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수용자가 없을 때에 일어난다.
- (6) 이와 같은 현상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부패하였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 (7) 오늘날도 강단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많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찾아보기가 매우 드문 때라 할 수 있다.

3. **㉠**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3절)

- ㉠** (1)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상징하는 성물(聖物)이다(민 10:36).
- (2)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현존에 초점을 모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 표현되기도 했다(대하 6:41).
- (3)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가까이 누웠는데 아침 이른 때에 주께서 예언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다.
- (4)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궤 이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백성들 각자의 삶에 임재해 계신다. 즉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마 1:23).
- (5)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며 또한 동행하신다.

4. **㉠** 사무엘에게 들려온 음성은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가? (4-8절)

- ㉠** (1) 사무엘이 접했던 음성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 (2) 즉 사무엘은 실제로 들려온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3번씩이나 엘리에게 달려갔다.
- (3)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그 음성은 은혜를 주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 (4)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은 영원하며 당신의 사랑 또한 영원한 것이다.

5. **㉠**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이 엘리가 부르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무엘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4-9절)

- ㉠** (1)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전혀 갖지 못했던 것 같다(7절).
- (2) 즉 사무엘은 쓰여진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있었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과 선지자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4) 충실한 신앙인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도 때로는 이처럼 실패될 수도 있다.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없이 둔하여 졌을 때가 바로 이런 때이다.

- (5) 또한 죄인들의 심령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노력도 잘못 이해되어 그들 자신을 회개시킬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다(요33:14).
- (6) 즉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가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요33:14).
- (7)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근신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한다.

6. **㉠** 하나님의 음성이 늙은 엘리에게는 임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4-14절)

- ㉠** (1) 하나님은 인간의 직위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16:7).
- (2) 또한 육체의 나이에 따라 사람을 취급하시지 않고 영혼의 나이를 따라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신다.
- (3)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교회 내의 높은 직위와 비례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자로 오해해서 진리를 거스릴 때가 종종 있다.
- (4)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7. **㉠**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한 말씀은 무엇인가? (10-14절)

- ㉠** (1)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2:27-36)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셨다(12절).
- (2) 즉 엘리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13절).
- (3) 그런데 이 심판은 제물이나 예물로는 결코 변경될 수 없는 확실한 심판이었다(14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나 심판을 내리시는 일에 있어서 특히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에 있어서 한 번 맹세하신 일은 결코 돌이키지 않으신다(참조, 민 23:19; 마 12:32; 히 6:4-6; 요일 5:17).

8.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몇 번이나 호명(呼名)하셨는가? (4-10절)

- ㉠** (1) 하나님께서는 네 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셨다(4, 6, 8, 10절).
- (2) 음성으로 부르시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무엘 앞에 나타나 서시었다. 즉 하나님은 직접 사무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써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뵈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10절).
- (3) 이렇게 한 인격의 이름을 세 번씩이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상함과 더불어 한 개인 개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한 것인가를 보여 준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참조, 사 43:1).
- (5) 여기서 사무엘이 본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변형하신 사람의 형상이었을 것이다(참조, 창 18:1, 2).

9.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1절)

- ㉠** (1) 이 말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2) 즉 죄로 양심이 무디어져 있던 백성들이 각성하게 될 것임을 밝힌 말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그 일로 인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

10. **㉠** 엘리의 집안에 영영한 심판을 불러 온 엘리의 죄악은 무엇인가? (13절)

- ㉠** (1)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처주를 자청(自淸)하는 행동을 하였으나 금하지 않았다. 이것이 엘리의 죄악이었다.
- (2) 즉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멸절하시겠다고 경고한 것(2:27-36)은 그가 자식들이 하

나눔을 모독한 죄를 알면서도 묵인한 죄 때문이다.

- (3) 비록 충고를 했다고는 하나(2:23)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지 아니하고 그대로 허용했으므로 결국 아들들의 범죄를 용납한 것이 되었다.
- (4) 엘리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감당치 못하였으며(신21:18) 또한 제사장과 재판장으로서의 의무(신17:12)도 감당치 못하였다.
- (5) 이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불행한 가정의 생활을 보여 주는 것으로 오늘날 진리를 위한 일에 있어서조차 때를 아끼는 가정에 대해 좋은 경고가 된다.
- (6) 잠언 기자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충고하였다(잠20:30).

11. ㉠ 사무엘이 말한 하나님의 저주 선언을 들은 엘리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15-18절)

- ㉠ (1) 엘리는 이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18절). 즉 그는 그 정죄를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순순히 이에 응할 태세를 갖추었다.
- (2) 엘리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생애를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심을 인정한 것과 특히 어린 사무엘이 자기에게 전해 준 예언적 메시지를 받아들인 데 있다.
- (3) 엘리는 약한 인간이었을지 모르나, 양한 인간은 아니었다. 그는 불평하거나 억울하게 취급당한다고 느끼지 아니하였다.
- (4) 이와 같이 누구나 하나님의 의(義)에 호소하는 사람이면 또한 그 결과를 서슴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 (5)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자기 비위에 맞도록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가지려고 한다.

12. ㉠ 사무엘이 선포한 모든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사무엘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두 성취되었다.
- (2) 사무엘의 성장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게 하셨다.
- (4) 즉 사무엘의 말은 모두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에 넣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참조, 시33:6, 9; 렘1:12).
- (5)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많다.

13. ㉠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란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20절)

- ㉠ (1) 단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국경의 한 지점을 말하며 브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곳으로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영토를 표시한 말이다(참조, 20:1).
- (2) 한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약 240km이다.
- (3) 사무엘이 가진 선지자로서의 지위는 급진적으로 인정받아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성숙과 더불어 책임이 따르고, 능력과 더불어 인정을 받게 된다.

14. ㉠ 사무엘의 명예는 어떻게 하여 높아지게 되었는가? (20, 21절)

- ㉠ (1)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당신 자신의 말씀들을 그대로 실현되게 하심으로써 사무엘의 명예를 높이셨다(19절).
- (2) 하나님은 그의 종의 말을 용하게 하시며 그의 사자의 모략을 성취시키신다(사44:26).
- (3) 결국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며, 당신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제 4 장 언약궤(言約櫃)를 빼앗기다

단락구분 1-2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패하다 / 3-4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장에 나가다 / 5-11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다 / 12-18 실로에서의 소란과 엘리의 비참한 죽음 / 19-22 엘리 며느리의 난산(難産)과 죽음

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 쳤더니

2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 명 가량이라

3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 사이에 제신 만군의 여호와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5 여호와와 언약궤가 진에 들어 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6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이뇨 하다가 여호와와 궤가 진에 들어 온 줄을 깨달은지라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9 너희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10 블레셋 사람이 쳤으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었드러진 자가 삼만이었으며

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2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13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걸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와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매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14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흰화하는 소리는 어찌이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15 때에 엘리의 나이 구십 팔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 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 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17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18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던라

19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태하여 산기가 가까왔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꾸려 해산하고

20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21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22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1. **㉠** 본장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 ㉠** (1) 전장(前章)에서 예언된 엘리 집안의 멸망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예언이 있는 후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일어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다지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2)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인정을 받게 되었을 무렵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다.
- (3)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지도자들은 그 원인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없었던 까닭이라고 하였다.
- (4)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찾았다. 여기서 언약궤는 우상의 한 형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2. **㉠**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기 위하여 각각 어디서 진(陣) 쳤으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1, 2 절)

- ㉠** (1) 이스라엘은 에베에셀에 진을 설치했다. 에베에셀이란 여호와께서 도우셨음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로 그 뜻은 '도움의 들'이다(7:12).
- (2)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 아벡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새'이다.
- (3)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전사자(戰死者)를 내고 대패하였다.
- (4)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패하게 된 원인은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범 죄하였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이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범 죄하면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3. **㉠**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었는가?(1, 2 절)

- ㉠** (1) 그들은 먼저 외부의 적(블레셋)보다 내부의 적(자신들의 범 죄)을 물리쳐야만 했다.
- (2) 더우기 그들의 종교계는 혼탁해져 있었기 때문에(3:1)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입어 승리를 얻어보겠다는 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
- (3)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이다.
- (4) 구원과 멸망 사이에는 언제나 죄가 중심 문제로 대두되며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시고 간섭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

4. **㉠**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는가?(3, 4 절)

- ㉠** (1)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전한 원인을 자신들의 죄악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전장에 나갈 때 언약궤를 동반(同判)하지 않은 사실에 두었다.
- (2) 즉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다시피 해서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판 가름하지 못하게 되었다.
- (3) 이스라엘은 영(靈)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자의(自意)에 의해서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靈眼)이 어두워진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 곧 법궤를 이동시키면 하나님도 함께 운반되리라고 착각하였다.
- (4) 이처럼 하나님마저 제한시키려는 그들의 의도는 또 다른 패배를 불러들이기에 적합하다.
- (5) 이와 같이 자신을 바로 파악할 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 패망하고야 만다.

5. **㉠** 흡니와 비느하스의 소행은 어떠했는가? (4 절)

- ㉠** (1) 흡니와 비느하스는 비록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타락한 죄인이었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궤 주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하는 수호자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인 양 자처하였다.
- (3)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항상 그 중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살피신다(16:7; 행 10:34).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와 제물을 미워하신다(창조, 잠 15:8; 사 1:10-17).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15:22)이며 공의(公義)를 행하고 선행을 잊지 않는 것이다(사 1:17).

6. **㉠**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하나님의 궤가 진(陣)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큰 기쁨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도 치르기 전에 승전가를 불렀다.
- (2) 실제로 그 고함은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홀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민 10:35) 라고 외쳤던 관례적인 함성이었을 것이다.
- (3) 그들은 이처럼 함성을 지름으로써 자신들에게는 생기를 북돋아 주고 대적들을 위협할 수 있었을 것이다.
- (4)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과 은혜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신앙 생활을 한다.
- (5)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장래에 얻을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즐겨 받는 것이다(빌 1:29; 살전 1:5).

7. **㉠**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5-9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 (2)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블레셋에게, 법궤는 커다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 (3) 즉 블레셋은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으로 알고 있었다.
- (4)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는 오래 가지 않았다.
- (5)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하였다. 아무리 귀한 특권일 지라도 그 특권을 부여하시는 분의 인정이 없을 때는 그 특권은 헛것이 된다. 또한 그 특권을 남용할 때도 하나님은 보호하시지 않는다.
- (6)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생활하는 자들이 교회에서의 권리와 혜택을 강요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8. **㉠** '히브리 사람' 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6절)

- ㉠** (1) 타국인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칭호(稱號)로서 '창 건너서 왔다'는 뜻이다.
- (2) 이것은 아브람의 조상 '에벨'(11:10-14)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며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들어온 아브람과 그 후예들을 가리킨다.
- (3) 한편 '히브리 사람' 이라는 명칭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즉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이 백성이었던 것이다.

9. **㉠**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3-11절)

- ㉠** (1) 자기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법궤만 의존하는 피상적인 불신앙 때문이었다.
- (2)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전사자를 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다(10, 11절).

(3) 즉 그들은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회하기 위해서는 무생물체인 법궤만을 붙들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죄문제를 해결했어야 옳았다.

(4) 이와 같이 사람이 범죄한 후 회개하지 않으면 범죄한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웃과 하나님에게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10. ㉠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9-11절)

㉠ (1)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인들의 공포는 앞으로 닥쳐올 실제적인 큰 위협보다 패전하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용기를 더욱 돋우어 준 동기가 되었다(9절).

(2) 즉 블레셋 사람들이 싸운 것은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용감히 싸운 것이다.

(3) 이처럼 사람들은 원대하고 이상적(理想的)이며 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다는 즉 시·일어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다.

11. ㉠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는 행동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12절)

㉠ (1) 이 행위는 죽은 사람이나 국가적 재난을 애도하는 행위였다(수 7:6).

(2) 즉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는 것은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픈 소식을 알리며 그 자신도 매우 가슴이 아프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이런 표시를 하였다.

(3)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했었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되 항상 주시는 것은 아니다. 회개의 기회를 상실할 때 인간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위 공의로운 심판뿐이다(고후 6:2).

(5)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딤후 4:2). 예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권면하셨다(요 9:4).

12. ㉠ 엘리의 집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10-18절)

㉠ (1)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으며 3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10절).

(2) 또한 이스라엘 죄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다(11절).

(3)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17절).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아주 큰 죄악이었다.

(4) 그리고 엘리 자신마저 대제사장과 아버지로서의 임무를 다 행하지 못하여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18절).

(5) 하나님의 말씀은(2:27-36) 이와 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었다.

13. ㉠ 엘리는 몇 세에 죽었는가? (18절)

㉠ (1)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士師)로서 공생애를 마치고 98세에 죽었다(15절).

(2) 이처럼 40년 동안 사사의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의 영광의 면류관이 그의 목과 함께 부러져 무참히 사라지게 되었다.

(3) 그 이유는 그의 악한 아들들을 바로 잡지 못한 까닭이었으며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은 바르게 처신하지 못한 위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불만을 격렬하게 표시하신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고로 삼고자 하신 것이다.

14. ㉠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떠한 인물이었는가?(19-22절)

㉠ (1) 그녀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였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전사했을 뿐

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고통 중에 해산하고 죽었다.

- (2) 곁에 선 여인들이 비느하스의 아내를 위로하여 '네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지만 산모(産母)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다.
- (3)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슬픔에 압도되어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다. 그것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슬픔보다 더한 것이었다.
- (4) 이와 같은 사실은 그녀에게 남편 비느하스와는 달리 경건한 신앙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5) 여하튼 비느하스 아내의 엄청난 슬픔을 통하여 인간의 범죄에 뒤따르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과 법궤가 뜻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다.

15. ㉠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1, 22 절)

- ㉠ (1) 히브리어 <가봇>은 '영광'이란 뜻이다. 그리고 접두어 <이>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2) 여기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심판의 시기가 왔음을 인식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없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음'이라 부르게 되었다.
 (3) 언약궤의 상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짐을 의미하였다.
 (4)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을 나타내기도 한다.
 (5) 이스라엘의 영광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민족적인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보다 탁월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6) 그리고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은 것(마 5:13)과 같이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광은 존재할 수 없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5절).

제 5 장 법궤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단락구분 1-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당(堂)에 두다 / 3-5 다곤 우상이 쓰러지다 / 6-7 아스돗에 대한 재앙 / 8-9 가드에 대한 심판 / 10-12 법궤를 이스라엘에 반환하기 위한 회의

1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펠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3 아스돗 사람이 이른날 일찌기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 그 이른날 아침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5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6 여호와와 그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7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8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 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9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와 그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시니라

10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12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1. ㉠ 본장의 법궤 이동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블레셋 족속들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그들의 신 다곤이라고 생각했다.
 (2) 그러므로 그들은 법궤를 하나의 진리품으로 다곤 신의 발 밑에 가져다 두었다.
 (3) 하지만 다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비할 신이 못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은 마치 블레셋 족속이 사로잡은 왕에게 행하듯이 다곤을 처치하셨다(삿1:6,7).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능을 더욱 보여 주시기 위하여 독종의 재앙을 내리셨다.
 (5) 즉 법궤를 옮겨가는 곳마다 질병만 전염될 뿐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큰 은혜인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곧 심판을 의미한다.

2. ㉠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제일 먼저 어디에 두었는가? (1절)

- ㉠ (1) 다곤의 당(堂)이 있는 아스돗에 그 궤를 두었다.
 (2) 아스돗은 예루살렘 서쪽 약 53km 지점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였는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의 하나였다(6:17). 이곳은 가사와 읍바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3)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의 승리의 노획물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 즉 다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일종의 희생 제물로 생각했던 것이다.

- (4) 하나님은 자기를 모독하는 자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며, 그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삼고자 이 같은 일을 허락하셨다.
- (5) 즉 하나님은 법계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줌으로 하나님의 궤를 우습게 여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으며 또한 이것을 노획한 블레셋을 징벌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 (6)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신다(참조, 시 76:10).

3. **㉠** '다곤'은 어떠한 신(神)인가? (2-5절)

- ㉠** (1) 다곤은 블레셋의 초목신이었다. 고대 문헌에서 바알(Baal)은 때때로 다곤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다.
- (2) 이 다곤은 '고기'라는 뜻과 연관되어 있으며 생산의 신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곡식과 목축의 소출을 위해서 이 신을 섬겼다. 이 우상의 윗부분은 사람의 형체이고 그 아래 부분은 물고기의 형체로 되어 있다.
- (3) 이 우상은 앗수르, 베니게 등지의 민족들에게서 성행한 것이다.

4. **㉠** 블레셋 사람들이 법계를 가져다가 다곤의 곁에 둔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2-5절)

- ㉠** (1)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3절).
- (2) 다음날은 다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이만 그 자리에 있었다(4절).
- (3) 이와 같이 블레셋 신(神)인 다곤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우상은 파괴되었다.
- (4) 비록 사람의 전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신의 전쟁에서는 승리함으로써 다곤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 (5)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신이다(참조, 출 18: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과 함께 예배받기를 원치 않으시며 모든 신들 위에서 홀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5. **㉠** 다곤 우상이 하나님의 궤 옆에서 파괴되었던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계가 이방인의 손에 탈취되는 것을 방관하셨다.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셨다. 즉 다른 우상의 목을 꺾으심으로 그 우상의 무능함과, 동시에 당신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셨다.
- (3) 이와 같이 사단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 앞에 분명히 넘어질 것이며 허위는 진리 앞에, 타락한 무리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들 앞에서 넘어질 것이다.
- (4)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일들을 보이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셨다(참조, 요 16:33).

6. **㉠**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다곤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 그쳤는가? (6-12절)

- ㉠** (1) '여호와와 그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시라 독종(毒腫)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地境)을 쳐서 망하게'(6절) 하였다.
- (2)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곳마다, 즉 가드와 에그론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독종의 징벌을 내리셨다(8-12절).
- (3) 한편 6:4,5에서 근거해서 볼 때 이때에 그 독종(毒腫)은 전염병 페스트의 증세였을 것이며, 죽지 않은 자들은 고통과 비탄에 빠져있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의 어리석음만을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을 징벌하시기도 했다.
- (5)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홀로 계시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생

사·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심을 드러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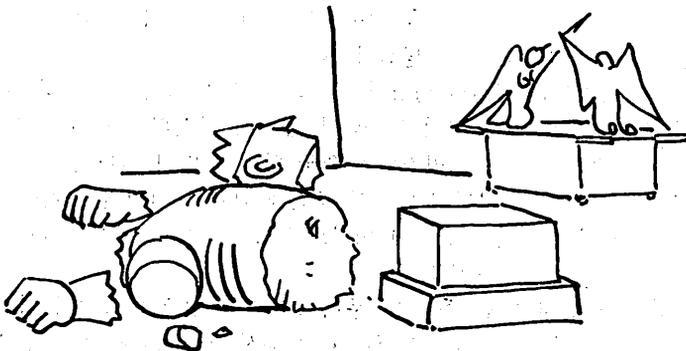
7. **㉠**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8,9절)

- ㉠** (1)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의 하나로서(6:17) 거기는 다곤의 신당이 없었다.
 (2)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으로 말미암아 노한 것으로 보고 다곤의 신당이 없는 가드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
 (3)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그곳에 사는 자들을 모조리 쳐서 독종이 나게 하셨다.
 (4) 만약 다곤이 쓰러진 것을 보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의 얼굴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었을런지도 모른다.
 (5)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계의 신호가 울려졌을 때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이다(참조, 시 49:20).

8. **㉠**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그 법궤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였는가? (11절)

- ㉠** (1) 하나님의 궤를 본래 있던 자리로 옮겨 블레셋 중에 임한 징벌을 면케 하자고 결정했다.
 (2) 이처럼 하나님의 궤를 노획한 그들의 승리가 곧바로 비탄으로 변했으며,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애썼던 그들이 이제는 그것을 떨쳐 버리기 위해 애쓰게 되었다.
 (3)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국한(局限)되어 활동하시지 않고 당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신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엄청난 죄악임을 알 수 있다.

본장의 요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꿇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둥이만 남았더라’ (4절).

제 6 장 법제가 반환되다

단락구분 1-9 법제 반환을 의논하는 블레셋 사람들 / 10-16 새 수레로 벤세메스에 도착한 법제 / 17-18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 제물 / 19-21 여호와와의 계약을 들여다 본 벤세메스 사람들의 환난.

1 여호와와의 계약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 지 일곱 달이라

2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의 계약을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3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계약을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4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6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박케 한 것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7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것 나는 소 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매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8 여호와와의 계약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계약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 보아서 계약이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벤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10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젓 나는 소 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매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 여호와와의 계약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13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계약을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14 수레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들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5 레위인은 여호와와의 계약 그 계약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16 블레셋 다섯 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17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18 드린 바 금쥐는 여호와와의 계약을 놓은 큰 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다섯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효대로였더라 그 들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 오를까진 있더라

19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와의 계약을 들여다 본 고로 그들을 치사(오만) 칠십 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20 벤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21 사자들을 기랴야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와의 계약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1. **㉠** 본장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 (1)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약을 치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 계약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다.

- (2) 그들은 그 궤를 치워버릴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해 적당히 보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했다.
- (3) 여기서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드러내었다. 즉 그들의 사고(思考)는 수자적인 것에 얽매어 하나님을 향한 보상의 문제마저 수량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 (4)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다섯 번 올리는 기도가 한 번 올리는 기도의 다섯 배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옳지 않은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많다.

2. **㉠ 여호와와 궤는 블레셋 땅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는가? (1절)**

- ㉠** (1) 여호와와 궤가 일곱 달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렀다.
- (2) 이 기간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동시에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였다.
- (3) 왜냐하면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의 궤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였고 그들의 신과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4) 반면에 이스라엘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를 잃어 버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야 할 곳에 계시지 않을 때 많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된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고전 3:16; 6:19).

3. **㉠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와 궤로 인하여 고민하다가 그 궤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2절)**

- ㉠** (1) 여호와와 궤를 본처(本處), 즉 이스라엘 지경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 (2) 이때에 그 궤를 돌려보내기 위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그 절차를 논의하였다.
- (3) 이 제사장들은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며, 또한 복술자(卜術者)들 역시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 (4) 그들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 보려고 애썼다.
- (5)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가 가진 좁은 소견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할 뿐이다.

4. **㉠ 속진제(贖愆祭)란 무엇을 말하는가? (3절)**

- ㉠** (1) 타인의 권리나 재물을 침해하였을 때에 그 보상 또는 배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였다(참조, 레 5:14-26).
- (2) 여기서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김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값에 대한 보상적인 의미의 희생 제사를 말한다.
- (3) 물론 이것은 그들의 미신적인 제사 형태를 가미한 제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4) 그러나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손상된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시교야 한다.

5. **㉠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께 드릴 속진 제물을 무엇으로 정하였는가? (3-5절)**

- ㉠** (1)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금독종 다섯과 금귀 다섯의 형상을 속진 제물로 드리기로 했다.
- (2)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신이 기뻐할 것이며, 그 엄중한 심판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3) 여기서 금독종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고 간 독한 부스럼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 (4) 그리고 금귀는 금으로 만든 인형 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금귀 제작은 블레셋 사람들이

받은 재앙에 쥐가 관련되었던 것을 시사해 준다.

- (5) 이와 같이 금취와 금독종을 속건 제1로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로부터 임한 것임을 시인한 것이다(참조, 민 21:4-9).
- (6)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범죄한 인간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의 품에 귀의(歸依) 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눅 15:11-24).

6. **Q** 금독종과 금취를 5개씩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A** (1) 다섯 방백으로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고 한 것은 그 민족 전체에게 재앙이 내리었다는 말이다.
- (2) 그러므로 여호와와 재앙이 내렸을 때 민중과 방백이 다 함께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다섯 방백 5인의 수효를 따라 금독종과 금취를 만들게 한 것이다.
- (3) 여기서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 주고 있다.
- (4)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지도자 된 자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보다 높으신 분을 항상 의식하며 막중한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Q** '이스라엘 신계 영화를 돌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5절)

- A** (1) 이 말은 블레셋 사람 자신들이 독종으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를 모독한 점에 대한 형벌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 (2)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입술을 통하여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
- (4)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기 때문이다(롬 11:36).

8. **Q**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부분은 어디인가? (6절)

- A** (1) 먼저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剛愎)케 한 것'을 예로 들었다.
- (2)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3) 또한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떠나지 아니 하였느냐'고 말하였다.
- (4)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전 10가지 재앙을 애굽 위에 내리시므로 애굽이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했던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출 7-12장).
- (5) 이와 같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의 계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다.
- (6)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역사적 신빙성이 없는 경전을 가진 종교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시며 옛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신다.
- (7) 또한 출애굽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9. **Q**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운반하도록 했는가? (7-9절)

- A** (1) 새 수레를 만들고 멩에를 매어 보지 아니한 젃 나는 소들로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위에 법계를 얹어 운반하도록 했다(7절).
- (2) 이러한 그들의 조치는 그들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율례를 따르려는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참조, 민 7:7, 8).

(3) 하지만 이 같은 조처는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법궤 운반의 잘못된 방법을 용인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5)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할 목적보다는 당신의 주권을 그들도 인정하게 만드시려는데 있었다.

10. **㉠**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께서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기 위해 어떠한 판단 기준을 설정했는가? (9-12절)

㉠ (1) 법궤 실은 수레를 끄는 암소들이 가던 길을 지체하지 않고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향하여 간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2) 즉 그것은 암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이끌린다는 명백한 표시이며 블레셋에게 내린 그 독종과 죽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라 생각했다.

(3)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으며 시험을 당하셨다.

(4) 오늘날에도 죄인들은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정죄의 손길을 피해 보려고 애쓰며 또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우연한 사건으로 돌리려고 애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거스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응징하신다(참조, 유1:15).

11. **㉠** 법궤 실은 수레를 끄는 암소들이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갔던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10-16절)

㉠ (1) 이것은 영혼이 없는 짐승까지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는 산 증거이다.

(2) 즉 한 번도 멩에를 떼어보지 못한 소들이 질서 정연하게 곧장 앞으로 갔고, 더구나 수레를 끈 소들은 젖 나는 소로서 집에 송아지를 떼어 놓고 가는 것이므로 어미의 본능이 새끼를 찾게 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기적 이상의 것이다.

(3)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의 본성과 강한 충동을 이기기에 충분하였다.

(4)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위대한 임자를 알았던 것이다(참조, 사1:3).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미친한 짐승의 행동까지라도 철저히 이끄시며 그것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신다.

12. **㉠** 블레셋 사람들은 두 암소의 행방을 통하여 우연이나 섭리나 하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16절)

㉠ (1)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같은 위험한 처지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일지라도 그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 생각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단지 우연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자도 있다.

(2) 인류의 역사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굶주림과 파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공의와 윤리는 찾아 볼 길이 없는 오늘날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나아가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3) 사실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나 또는 우연이나 하는 것은 어쩌면 영원한 종교적 수수께끼일런지 모른다.

(4)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삶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의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이다(엡1:22, 23).

13. **㉠** 벤세메스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12-16절)

㉠ (1) 이곳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살던 도시로서(수21:16), 예그론 동쪽 12.8km, 예루살렘 서쪽 24km지점에 있다.

(2) 벤세메스의 뜻은 '태양'이라는 의미이다.

- (3) 이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수레에 실려 오자 기뻐하며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 (4) 하나님의 궤가 이곳으로 운반되어 것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궤를 여기에 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다.
- (5) 왜냐하면 이곳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4. **㉠** 벤세메스 사람들은 수레가 도착하자 기뻐하며 그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여호와게 번제로 드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3-16절)
- ㉠** (1)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을 운반했던 수레는 두 번 다시는 절대로 다른 세속적인 물건을 운반할 수 없었다.
- (2) 소들 역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은 적이 있는 하나님의 도구였으므로 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 (3) 따라서 모든 번제물은 수컷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조, 레 1:3-13) 암컷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다.
- (4) 우리들은 이 수레와 소들을 보고 충성을 배울 수 있다. 즉 그 소들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여호와의 인도대로 따랐고, 목적지에 이르러서 그 고기까지 여호와께 드렸던 것이다.
- (5)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수레와 소같이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과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 친히 순종과 충성을 보여 주셨다.
15. **㉠** 블레셋 다섯 방백들이 벤세메스 사람들의 기뻐하며 번제 드리는 광경을 본 후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영예로우시며,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에그론의 신 다곤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곳으로 돌아가고야 말았다.
- (2)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나 비록 그것이 참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바꾸어 섬긴 일이 거의 없었다 (참조, 렘 2:11).
- (3) 요즘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롬 1:21).
- (4)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엡 2:8).
16. **㉠** 벤세메스 사람 중에 언약궤를 들여다 보고 죽은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19-21절)
- ㉠** (1) (5만) 칠십 인이었다 (19절).
- (2) 여기서 (5만) 칠십 인이라는 수자는 보수적인 학자들도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아마도 필사자(筆寫者)의 실수인 것 같다.
- (3) 히브리 원문에 의해서 이것을 천 명당 오 명씩 선택한 칠십 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 (4) 한편 70인역(LXX) 과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에는 칠십 인으로 나와 있다.
- (5) 그러나 실체가 어떻든간에 이것은 인간의 허영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해 올 때 하나님께서 분개하신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준 사건이다.
17. **㉠** 벤세메스 사람들이 죽음의 형벌을 당했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19-21절)
- ㉠** (1) 그들이 주께 법궤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악이었다 (참조, 민 4:5, 6, 15-20; 4:20).
- (2) 즉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야만 욕심의 노예들이었다.

- (3) 이것은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는 교만이었다. 이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오며 인간의 삶이 하나님에게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
게 한다.
- (4) 중세기의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죄 역시 이러한 교만이었고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
던 내용도 교만을 버리라는 것이었다.
- (5) 참으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참조, 잠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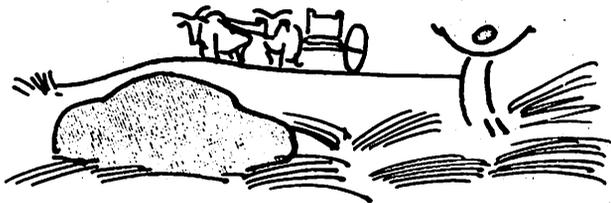
18. **㉠** 벤세메스 사람들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9-21절)

- ㉠** (1) 벤세메스 사람들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교만과 경건 사이의 밀접한 관계이다.
- (2) 사람이 경건해질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 친밀감은
종종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들로 하여금 불경죄(不敬罪)를 저지르게 할 때도 있다.
- (3) 즉 하나님과의 친근함 속에서 그의 존엄성을 망각해 버리는 것이다. 이때 인간은 오만
해지고 신앙은 타락해 버리고 만다.
- (4) 반면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에 놀려서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느끼는 사
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 줄 사람을 요구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 생활을 통
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동시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참조; 답전4:7).

19. **㉠** 많은 사람들이 법체를 들여다 본 사건으로 죽은 후 벤세메스 사람들은 그 법체를 어
떻게 하기로 했는가? (19-21절)

- ㉠** (1) 하나님의 궤를 기랴여아림으로 보내버리려고 하였다(21절).
- (2)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소망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의무
가 부과될 때에는 오히려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의무와 책임을 타인에게 넘
겨 버리려고 한다.
- (3) 그러나 성경은 항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용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참조
롬8:17).

본장의 요절



‘수레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때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4절).

제 7 장 이스라엘 부흥의 역사

단락구분 1-2 범제가 기랏여아림에 머무르다 / 3-4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다 / 5-9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의 대 회개 / 10-11 블레셋 사람의 내습과 하나님의 구원 / 12-14 에벤에셀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다더 확실하다 / 15-17 사무엘의 정치와 승리

1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제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와 제를 지키게 하였더니

2 제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을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5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 사무엘이 젓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와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16 해마다 벤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 ㉠ 본장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무엇인가?

- ㉠ (1) 언약제가 기랏여아림으로 옮겨진 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다.
- (2) 이 기간 동안에 사무엘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안정된 한 때를 맞이했다.
- (3) 그러나 이 안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현저한 세력을 간과 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직 참된 의미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4) 이런 면에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룩 우상을 제거 하게 했으며 또한 금식으로 여호와께 자기들의 범죄를 회개하도록 하였다(3절).

(5) 교회를 통해 보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의식이 강했던 시기에는 항상 사회 전체에 개혁이 단행되었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 여호와와 케를 블레셋에서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가? (1, 2절)**

㉠ (1) 기랏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다.

(2) 기랏여아림은 큰 성읍으로서 옛날 법궤가 있었던 실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3) 하나님의 궤가 개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결코 놀라운 사건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아직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적인 장소를 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집에서 집으로 옮겨다니며 강론하고 교제하였다.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개인의 집에 머물렀듯이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의 심령 속에 오늘도 머물러 계시며 역사하신다.

3. **㉡ 법궤는 기랏여아림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는가? (2절)**

㉠ (1)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으나 사실상 다윗이 옮겨가기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궤는 기랏여아림에 있었다(삼하 6:1-19).

(2)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는 약 40년 동안 기랏여아림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법궤를 성막으로 옮기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갈망이 미흡했다는 증거이며 아울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에게 역사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궤가 한적한 곳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3, 4절).

(5)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아니면 대신해서 그 무엇을 두기 원한다.

4. **㉢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1)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 '간절하게 찾는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취소한 그가 승낙할 때까지 간절히 탄원하고 불평쉬인 호소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동기에서 부르짖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한 이유는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 사모한 것이었다.

(3) 즉 그것은 블레셋의 위협에서 구원해 달라는 부르짖음이었다(참조, 3절).

(4) 참다운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을 찾아 탄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며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우리는 과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5. **㉣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1) '향하다'는 말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확고히 정한다'는 뜻이다.

(2) 이러한 태도야말로 신앙 생활의 제일 첫걸음이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다.

6. **㉤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겨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3, 4절)**

㉠ (1)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참 신이 될 수 없으며 만약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면 그것은 곧 죄악이요 저주당할 수밖에 없는 불충(不忠)이다(참조, 출 20:3-5).

(2)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지만 그의 삶을 둘러보면 그가 세상에 속한 자임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

의 주인만을 가지게 된다(마 6:24).

7. **㉠**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5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3절)

- ㉠** (1) 첫번째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2) 두번째로 이방 신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3) 세번째로 아스다롯을 제하여야 했다.
 (4) 네번째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야 했다.
 (5)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했다.
 (6)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8. **㉠** 아스다롯은 무엇을 말하는가? (3절)

- ㉠** (1) 아스다롯이란 아스다렛(Ashtareth)의 복수형으로 가나안의 농경 여신이며, 바알의 여성 신이다(호 2:13).
 (2) 그 당시 이 아스다롯 신은 가나안 경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우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혹되어 있었다.
 (3) 성도의 참된 신앙 생활은 진실한 뉘우침과 더불어 매혹적인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9. **㉠**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어디로 모일 것을 명령하였는가? (5절)

- ㉠** (1)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
 (2) 이곳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와 가까운 곳이다.
 (3) 사무엘이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 미스바로 백성들을 소집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힘을 모으려는 데 있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4) 즉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통하여 영적 각성을 이루고 끝내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10. **㉠**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던 행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6절)

- ㉠** (1) 이것은 물을 부음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회개를 상징했다.
 (2) 또한 이것은 그들이 그릇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같이 그들의 모든 죄와 결별하여 다시는 그러한 죄에 연연하여 매어달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경건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이기도 하다.
 (3) 즉 그들은 철저한 회개를 하였으며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였다.
 (4)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철저한 회개가 요구된다. 우리의 피난처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를 거절하시지 않으신다(시 62:8).

11. **㉠**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5, 6절)

- ㉠** (1) 행위의 죄와 마음의 죄를 모두 청산하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까지도 불사(不辭)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기도했다.
 (3) 즉 그들은 음식을 멀리함으로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괴롭히며 회개하였던 것이다.
 (4) 그들의 회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것이 전부였다.
 (5)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스스로는 부끄러운 위치에 처했다.
 (6) 이처럼 우리도 철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요일 1:9)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요 10:10).

12. **㉠** 블레셋이 침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7, 8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위기를 당하여 사무엘에게 그의 쉬지 않는 기도를 요청하였다(8절).
 (2) 여기서 '쉬지 않는 기도'란 온 인격을 쏟아 붓는 기도를 말한다.

(3)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다.

(4) 흔히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은 의지를 동원해서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하지 못하며, 잠념과 피상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이러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13. **㉠** 온전(穩全)한 번제(燔祭)로 사용된 것 먹는 어린 양은 신약 시대의 누구를 예표하는가? (9절)

- ㉠** (1) 번제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레 22:27)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참조, 요 1:29).
- (2) 또한 온전한 번제란 영원한 사랑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의 예시이다(참조, 히 10:12-14).
- (3)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14. **㉠**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가? (3-11절)

- ㉠** (1) 그들은 먼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였다(4절).
- (2) 또한 여호와만 섬겼다(4절).
- (3)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5, 6절).
- (4)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으로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부었다(6절; 1:15; 시 22:14; 62:8; 애 2:19; 요 7:37).
- (5)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였다(6절).
- (6)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고백하였다(6절).
- (7)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다. 즉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회개한 죄에 대해 다시는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리자(治理者)로서 활동했다.
- (8)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곡한 기도를 부탁하였다(8절).
- (9)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표시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9절).
- (10)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9절).
- (11)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다.

15. **㉠** 사무엘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9-11절)

- ㉠** (1)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주(敗走)하게 하셨다.
- (2) 이처럼 블레셋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뢰(雨雷)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볼 수 있다(참조, 시 29:3, 4).
- (3)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와 번제를 열납하셨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 (4)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입술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적인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
- (5) 오늘날에는 주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며 응답하신다(참조, 약 5:16).

16. **㉠**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쎌 사이에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념비(돌)를 세웠다.
- (2)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 지칭하였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 (3) 그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는 20여 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 크게 살륙당한 바로 그 장소였다(4:1).

- (4) 지난 번에 패전을 초래했던 죄는 그들의 회개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는 패전 하였던 바로 그 장소에서 크게 승리함으로 확증되었다(참조, 호 1:10).
- (5)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신다(참조, 요일 1:9).

17. **㉠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13, 15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요구하기 전까지(8:4-6), 즉 사무엘이 사사(士師)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약 4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 (2)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무엘이 살아 있던 모든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3) 블레셋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동안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었다.
- (4) 이러한 사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방어할 만한 초능력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 (5) 사무엘이 이러한 위치에 서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안녕을 위한 기도와 백성들을 갱신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 (6) 이와 같이 신앙적인 기도와 경건은 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18. **㉠ 에그론과 가드까지란 어느 지점을 말하는가? (14절)**

- ㉠** (1)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에그론과 가드 사이의 모든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이 지역은 주로 블레셋의 세력이 미치던 곳이었으나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곳을 점령하였다.
- (3)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미래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끝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19. **㉠ 아모리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4절)**

- ㉠** (1) 가나안 족속들 중 한 족속을 말한다(참조, 창 14:5-7).
- (2) 이스라엘과 아모리인들은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이 평화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동맹을 맺은 결과에서가 아니라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야욕을 멈추었기 때문에 성취된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가 당신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며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신다(잠 16:7).

20. **㉠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5절)**

- ㉠** (1) 사무엘은 사사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르쳤으며 그들의 죄를 꾸짖었다. 이것을 일컬어 '다스렸다' (judged)고 하였다(참조, 22:4; 겔 20:4).
- (2) 그는 민사적(16절), 종교적(6, 17절) 그리고 군사적(12:11)인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순회(巡回)하며 다스린 사사였다.
- (3)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신다(참조, 참조, 요 14:26).
- (4)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참조, 눅 17:20, 21).

21. **㉠ 사무엘이 라마에서 단(壇)을 쌓은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빼앗긴 후 실로에서 드렸던 예배가 폐지되었다.
- (2)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실로는 황폐해졌고 그들의 제물을 드릴 장소가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신 12:11).
- (3) 그러므로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의 고향인 라마에서 제단을 재건하였다.
- (4)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까지 시행된 임시 조치였다.

(5) 이렇게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안식처마저 빼앗아가는 파괴적인 악(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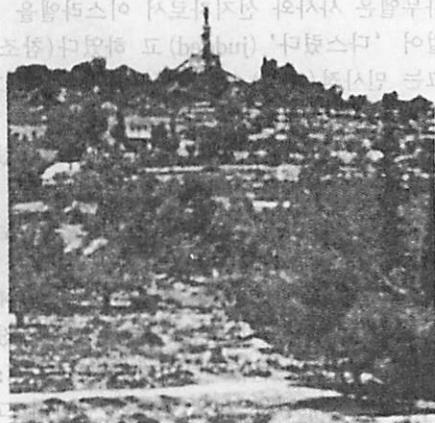
지도자료

기랏여아림 (Kiriath-Jearim): 이 성읍은 히브리어로 <키랏 예아림>으로 불렸는데 그 뜻은 '수풀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현재 아브 고쉬 (Abu Ghosh)로 여겨지는 기랏여아림의 위치는 왼쪽의 지도와 같다. 아래의 사진은 현재의 모습으로서 언덕 위에는 1924년에 건립된 '언약계수도원'의 모습이 보인다.

여호와와의 계가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기랏여아림은 (2절) 원래 기브온의 성읍 가운데 하나였었다 (수 9:17). 또 이 성읍은 '기랏 바알'로도 불렸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그곳을 점령하기 이전에 가나안 원주민이 바알을 섬기던 산당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제 8 장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다

단락구분 1-3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정(惡政) / 4-6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울 행하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다 / 7-9 하나님의 응답 / 10-18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의 조건을 말하다 / 19-22 백성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

1 사무엘이 늙으매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9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10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울 일러

11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

울 어거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13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14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 너희 양떼의 십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18 그 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왕이 있어야 하리니

20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21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22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1. ㉠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에 대하여 논하라.

㉠ (1)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수 세기 동안 왕이 활약하고 평화 시대가 존속되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국가 형태는 신정 국가(神政國家)였다. 그들은 결코 어느 귀족 계급도 용납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민들이었다.

(2) 성전이 생기고 일정한 제사장 계급이 있었으나 이것 역시 존속된 것은 아니었다.

(3)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왕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대해 책임을 졌다.

(4)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에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인간이 세운 지배자에게 충성을 바칠 때에 반드시 삶에 부조화가 생긴다는 것을 경고했다.

(5) 그러므로 사무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회상시켰으나 결국 이러한 충고는 허사로 돌아가 이스라엘에 왕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2. **㉠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1-3절)**

- ㉠** (1)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며 차자(次子)의 이름은 아비아였다.
 (2) 이들은 사무엘의 대(代)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했다.
 (3) 여기서 사사(士帥)란 이스라엘 왕국이 건립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왕국의 건립과 더불어 사사 시대는 끝이 났다.
 (4) 이들의 악정(惡政)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대역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5) 이와 같이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에 대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3. **㉠ 사무엘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4 가지 죄악을 말하라(3절).**

- ㉠** (1)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2) 이익만을 추구하여 공의(公義)를 무너뜨렸다.
 (3) 뇌물을 취하였다. 뇌물은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만 특히 재판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참조, 딤편 6:10).
 (4) 판결을 굽게 하였다. 그들의 눈은 법을 바라보기 보다는 뇌물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4. **㉠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부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1-3절)**

- ㉠** (1) 이것은 사무엘의 불경건한 생활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였다(7:5).
 (2) 결국 사무엘 아들들은 경건한 신앙의 토양 위에 자라난 독버섯이나 마찬가지였다. 즉 그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가르침이 있어도 자신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악한 인간들이 되고 말았다.
 (3)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단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데 힘써야 한다(겔 18:2-4).

5. **㉠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이유 3가지는 무엇인가? (4-6절)**

- ㉠** (1) 첫째, 이스라엘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3, 5절).
 (2) 둘째, 열방(列那)의 국가 형태를 따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5절).
 (3) 셋째, 이스라엘에 있어서 군사적 지휘자의 필요성 때문이었다(8:20).
 (4)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기 위한 법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신 17:14, 15).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그들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상실한 데 있었다(8:7; 12:12).
 (5)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항상 그 마음에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를 요구하게 된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 지도자는 사단과 그 무리로 볼 수 있다(참조, 뵤전 5:8).

6. **㉠ 장로들의 호소가 이스라엘 정치사(政治史)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4-6절)**

- ㉠** (1)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흑암의 세력에서 구출해 내신 구원자였다.
 (2)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지위와 책임을 지닌 민족이었다. 즉 신정국가(神政國家)의 백성이었다.
 (3) 따라서 그들의 생활 기준은 다른 민족들의 상대적인 가치 표준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것이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새로운 지도 체제를 요구하여 반역을 저질렀다.
 (5) 즉 장로들이 호소한 왕국의 건설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초래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이

때부터 종교사에서 독립된 정치사를 갖게 되었다.

7. **Q**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7-9절)

- A** (1)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다(7절).
 (2)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하셨다(9-18절).
 (3)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8절).
 (5) 사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인격체이든 무인격체이든)을 의지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8. **Q**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세우는 일로 인하여 야기될 문제들을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10-18절)

- A** (1) 이스라엘의 젊은 남녀를 왕의 필요에 의하여 징집(徵集)할 것이다(11-13절).
 (2) 곡물과 가축에 대한 세금을 요구할 것이다(14, 15, 17절).
 (3) 백성들의 종과 나귀를 왕의 필요에 따라 각출(各出)할 것이다(16절).
 (4) 그리고 개인이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전락할 것이다(17절).
 (5) 마지막으로 그 왕의 악정(惡政)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도 응답하시지 않을 것이다(18절).
 (6) 이와 같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각오해야만 했다.
 (7)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 삶에 있어서 엄청난 짐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9. **Q**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왕의 제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가? (10-18절)

- A** (1) 왕이 백성에게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한 사무엘의 예언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2) 즉 한 국가가 고도로 조직화될 때에 그 국가 자체의 절대 권력이 국민들을 괴롭히게 된다.
 (3) 이러한 체제가 형성이 되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게 된다.
 (4)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것은 왕이 군대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유물(私有物)에도 그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5)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사상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다.

10. **Q**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은 어떠한 형태의 왕이었는가? (4-20절)

- A** (1)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의 형태는 열방(列邦)과 같은 형태의 권력형 왕이었다(5, 20절).
 (2) 이 열방과 같은 형태의 왕은 인류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3) 참된 왕은 자기 백성을 돕는 자로서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자이다(참조, 신17:18-20). 그러나 열방 왕은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앞세워 백성들을 압제한다.

11. ㉠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4-22절)

- ㉠ (1) 모세 오경을 통하여 볼 때 이스라엘 중에 왕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창 49:10; 민 17장; 신 17:14-20).
- (2) 그러나 본장에서처럼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과 같은 방식(잘못된 시기요 옳지 못한 동기)으로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없다.
- (3) 죄와 악에 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되 그것을 초래하도록 의도하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사 45:7).
- (4) 단지 하나님은 당신의 높으신 뜻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람의 악한 행위까지도 허용하시며(참조, 창 50:20; 행 2:23), 또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어느 정도 허용하신다.

연구자료

이스라엘과 왕(王).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필요 없는 국가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神政國家, theocracy)였기 때문이다(출 19:5,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는데(5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통치자를 세움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이다(7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게 되므로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고 경고했지만(10-18절) 백성들은 충고를 듣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락하시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나 사울은 모범적인 왕이 아니었으며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 바로 그러한 점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었다. 즉 인간인 왕이 얼마나 나쁜 존재이며 그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 주신 것이다. 사울 다음으로 왕위(王位)에 오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썼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다(삼하 7:12-16).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써(눅 1:31-33) 그는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입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으나(왕상 10:14-29)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갈라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각각 여러 왕들을 거친 다음에 결국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이 같은 역사(歷史)를 가진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고 그 발단은 인간을 왕으로 섬기게 해 달라고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택한 백성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왕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보여 준다.

제 9 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단락구분 1-2 사울의 가문과 인품 / 3-5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 나서다 / 6-10 사환의 조언에 따라 사울은 사무엘을 찾기로 결심하다 / 11-14 소녀들의 가리킴을 따라 사무엘이 있는 곳을 찾아 가다 / 15-21 여호와께서 사울의 방문과 그의 왕위(王位) 지명을 사무엘에게 알려시다 / 22-27 사무엘이 사울과 요담(要談)하다

1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2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

3 사울의 아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4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5 그들이 습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6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7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8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러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9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11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12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13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 가소서 금시로 만나리라 하는지라

14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5 사울이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16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당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17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18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20 사울 전에 잃은 네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나 너와 네 아버의 온 집이 아니나

21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22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 가량이었더라

23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세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 오라

24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

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5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26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27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 때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리리라

1. ㉠ 본장에 언급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에게 왕을 택하여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신 17:35) 전장(前章)에서도 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8:22).
- (2) 본장에는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선택받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 (3) 이러한 일들은 다음 장에서 전개될 선거와 공식적인 추천을 위한 준비를 마련하는 근거가 되었다.
- (4) 대개의 정권은 소수의 정치적인 지배육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왕국은 백성들이 지배받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5)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후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원했다면, 그러한 동기의 밑바닥에 인간적인 정권욕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2. ㉠ 사울의 신분과 인품(人品)은 어떠하였는가? (1, 2 절)

- ㉠ (1)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이었다(1, 2 절).
- (2) 또한 사울은 체격이 매우 준수(俊秀)한 젊은이였다(2 절). 그러나 그의 지혜나 덕성(德性), 그의 학업이나 경건성, 또는 그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 (3) 하지만 그의 행동으로 보아서 부모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으며(3, 5 절) 사명(使命)에 충실하였던(4 절) 것 같다.
- (4) 그리고 예의가 분명했으며(7 절) 겸손한 자였음을 알 수 있다(10 절).
- (5)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본장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3. ㉠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4 절)

- ㉠ (1) '유력하다'는 말은 재산이 많으며, 정신력이 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다.
- (2) 가나안 영토 분할 때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을 600명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 대단히 많았을 것이다(수 18:11-28).
- (3) 그리고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은 그의 아들 사울이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 만큼 더 큰 훌륭한 체격을 가진 자임을 보아서 알 수 있다(2 절).
- (4) 이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그의 아들 사울이었지만 겁이 많았고 성격이나 사람 됨됨이가 대범하지 못하였다.
- (5) 더구나 사울은 비정상적으로 질투심이 강하였으며(삼상 18:8, 9)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훗날 자기의 생명을 파멸시켰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었다.

(6) 이처럼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적인 생활이 올바르게 못할 때 사람은 항상 부조화를 일으키고 끝내는 파멸하게 된다.

4. **㉠**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를 아비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대상 8:33에는 '넬이 기스를 낳았고'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1절)

㉡ (1)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여러 대 후손인 경우에도 단지 아들이라는 명칭만 붙이는 것이 통례이다(참조, 창 11:10-26).

(2) 즉 기스가 아비엘의 여러 대 후손이라도 아비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식 표현 방법에 의해서였다.

(3) 그러므로 기스를 아비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아비엘의 후손에 대한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대상 8:33과 모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결국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는 아비엘의 후손이었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

5. **㉠**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령을 받고 암나귀를 찾으러 두루 다녔다. 그의 이러한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 4절)

㉡ (1)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 나선 것은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특별히 칭찬할 만한 일이다.

(2)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 이처럼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3)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로 인도하셨다.

(4)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마 25:21) 하나님은 크고 자랑스러운 일만을 추구하는 자들보다는 이같이 자신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6. **㉠**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장소는 어디인가? (4, 5절)

㉡ (1) 사울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 기브야의 자기 집(10:26)에서부터 북쪽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와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녔고 다시 돌아와 베나민 땅을 지나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7:17; 9:18)로 갔다.

(2) 이렇게 암나귀 한 마리 때문에 기나긴 여행을 했으나 끝내 그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3)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잃어버린 것조차도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7. **㉠** 사울의 사환(使喚)이 사무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는가? (6절)

㉡ (1)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다(참조, 2:27).

(2) 또한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다.

(3) 마지막으로 사무엘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성취된다고 했다.

(4) 이와 같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3:19)는 말을 들었다.

(5)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존귀함을 가져다 주며 그와 같은 지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드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8. **㉠** 암나귀 한 마리로 인하여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제의했던 사환의 태도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6-10절)

㉡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의 사환처럼 궁극적인 인생 문제보다는 당면(當面)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기를 좋아한다.

(2) 즉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며 건강히 살 것인지에 대해 알아 보기를 원한다.

- (3) 물론 이러한 당면한 인생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다(참조, 마 6:33).

9. **㉠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예물로 가져 갔는가? (7-10절)**

- ㉠** (1) 은(銀) 1/4 세겔(약 2.8g)을 가지고 갔다(8절).
 (2) 그 당시 선지자들이 봉사한 일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거나, 예언하여 주고 돈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여 주고 선물을 요구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3) 단지 그때에 윗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돈이나 선물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보인다(참조, 왕상 14:3; 왕하 5:15; 8:8, 9).
 (4)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와 같은 관례를 악용하여 신령한 것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무리들이 있어 하나님의 참 뜻을 흐리게 하고 있다(행 8:9-24).

10. **㉠ 선견자(先見者)와 선지자(先知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9절)**

- ㉠** (1) 선견자(先見者)란 말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초기에 나타난 직책이다.
 (2) 반면에 선지자(先知者)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전파할 뿐 아니라 친히 이스라엘의 허물을 파헤치는 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3) 본절에서는 후기 독자(讀者)들을 위하여 선견자가 나중에 선지자로 알려지게 되었음을 밝혔다.
 (4) 그런데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견자가 우선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하는 자는 먼저 그것들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5) 한때 구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기록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11절).

11. **㉠ 백성들이 모여 제사를 드린 산당(山堂)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11-14절)**

- ㉠** (1) 7:17에 의하면 그곳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있던 제단을 가리킨다.
 (2)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곳이었다.
 (3) 이스라엘은 유목민 생활 때부터 이러한 개인적인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
 (4) 이것은 예배의 장소와 그 여건이 어려워 예배가 중단되었을 경우에 허용된 것이었다(참조, 왕상 3:2, 4; 18:30-38; 대하 1:3).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항상 교제의 장소를 마련해 주셨다.
 (6)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시공간(時空間)을 초월하여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참조, 마 28:30).

12. **㉠ 사람들은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사무엘이 제물을 축사(祝謝)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제물을 축사한 것은 요즈음의 감사 기도 내지는 식사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참조, 마 26:26).
 (3) 사무엘의 이러한 축사를 통하여 우리는 일상적인 식사 때에도 그 음식을 먹기전에 반드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4) 즉 식사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과 그에게 우리의 의무를 다하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 드려야 한다.

13. **㉠ 사울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셨는가? (15-17절)**

- A** (1)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귀에 대고 속삭이듯 그의 마음에 대고 은근히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15절).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1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암3:7). 여기서 '알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열어 주셨다'는 의미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의 한 방법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기도 하신다.
- (4) 우리는 덮여진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욘 33:14).
- (5)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 그 귀를 열어 주시며(막 7:34) 심령의 수건을 벗겨 주신다(참조, 고후 3:16).
- 14. C** 사울에 관하여 사무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시 내용은 무엇인가? (15-17절)
- A** (1) 먼저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16절)는 것이었다.
- (2) 두번째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는 것이다(16절; 14:1-52; 17:1-53).
- (3) 마지막으로 그가 내 백성을 통할(統轄)하리라(1, 7절)는 것이다.
- (4)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15, 16절)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17절)을 볼 수 있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이다.
- 15. C**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향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다.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6절)
- A** (1)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는 의미이다.
- (2) 이것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밝히는 작용을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해가시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이다.
- (3) 이러한 예식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성령의 덧입힘으로 완성되었다.
- (4) 그리고 기름 부음은 봉사를 위한 성화(聖化)와 구별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하나님과 백성의 대표자이며 통치자인 왕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확립하는 종교적 행위였다.
- (5) 예수께서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셨다(참조, 눅 4:18; 행 4:27).
- 16. C**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는데 그 왕을 허락하신 근본 이유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16절)
- A** (1)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上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 (2)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간구를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으나 들으시고 지도자를 지명해 주셨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라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해 주는 것이다(참조, 합 3:2).
- (4)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해 받을 고난 때문에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나(8:18) 이스라엘 이웃 민족의 강포한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할 도구로 쓰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셨다.
- (5)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의 안전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에 기인(起因)한다.

17.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 앞에 특별한 명칭을 달아 이스라엘을 지칭(指稱)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내 백성'이었다.
- (2) 이스라엘이 아무리 말씀 많고 성가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백성이었다(참조, 레 11:45).
- (3)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
- (4) 이 '내 백성'이라는 호칭은 세상의 어떠한 영광스러운 이름보다 복된 이름이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가진 자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생사(生死)를 주관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이다.

18. ㉠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인 줄을 몰랐다. 이와 같은 사실이 보여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8절)

- ㉠ (1) 사무엘은 그처럼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와 치장(治粧)은 두드러지지 못했던 것 같다.
- (2) 사무엘은 위세를 부리거나 수행원을 거느리지 않았으며 어떤 표시를 하고 다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보통 사람과 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 (3) 여기에서 경건한 선지자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즉 외적인 단장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단장을 더욱 중요시 했던 것이다.
- (4) 중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내적인 청결보다는 외적인 경건미를 더욱 귀하게 여겨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타락해 왔다.
- (5) 오늘날 교회들이 더 높은 건물과 더 화려한 치장, 그리고 더 많은 교인 수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은 보이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일종의 타락상이라 할 수 있다.
-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外貌)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 했다(삼상 16:7).

19. ㉠ 사울을 본 사무엘은 그를 산당(山當)으로 먼저 올라가게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사무엘은 무엇보다 먼저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산당에 올라가도록 했다.
- (2) 이곳은 사울이 암나귀 찾을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먼저 경건의 연습을 쌓기 위한 것이다.
- (3)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참조, 눅 21:34).
- (4)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마 6:33).
- (5) 이것은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성실히 그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20. ㉠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20절)

- ㉠ (1) 이 말은 사울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 즉 이스라엘의 백성의 존경을 받게 될 왕이 된다는 의미이다.
- (2)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 '기쁨', '보배로운',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소원하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 (3) 이처럼 사울은 그의 등극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었다.

21. ㉠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1절)

- A** (1) 자신의 위치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미천한 자라고 말했다.
 (2) 이러한 그가 자신의 정적(政敵)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즉 지극히 겸손했던 자가 지독히 교만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3) 이처럼 인간은 수시로 변하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참조, 렘17:9).
 (4)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참조, 잠3:34).

22. C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환대했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22-24절)

- A** (1) 먼저 사울을 잔치의 수석(首席)에 앉혔다(22절).
 (2) 이것은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약했던 사무엘 자신이 그 지도권을 사울에게 이양(移讓)한다는 암시적인 행동이었다.
 (3) 또한 사울에게 고기의 넓적다리 부분을 주어 먹게 했다(24절).
 (4) 넓적다리를 주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손님보다 사울을 더 높인다는 표현이다(참조, 레 7:32, 33).
 (5) 이와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의 자존심마저 꺾어버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6)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동하는 선지자로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귀감(龜鑑)이 된다.

23. C 사무엘이 사울과 밀담(密談)한 목적은 무엇인가? (25-27절)

- A** (1)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기 위해서였다.
 (2)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한 사실에 대해 은밀히 알려 주기 위함이었다.
 (3) 이와 같은 대화는 실제적인 성취가 아니라 본장 전체를 통하여 진행되어 왔던 사실, 즉 사울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을 준비를 하게 했던 것이다.
 (4) 또한 이 대화 속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어떻게 화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시했을 것이다.
 (5)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 지시한 내용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결정될 것이다.
 (6) 예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마 7:26, 27)고 하였다.
 (7)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즉 순종이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제 10 장 사울에게 기름을 붓다

단락구분 1-8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하다 / 9-13 새 마음을 받은 사울이 예언하다 / 14-16 돌아오는 길에 숙부(叔父)를 만나다 / 17-27 사울이 미스바에서 제비뽑혀 왕이 되다

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려 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블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벨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5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 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을 기다리라

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인뇨 사울도 선지

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12 그 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13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4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15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16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17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19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20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22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가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23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24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와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5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26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 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27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나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1. Q 본장에 언급된 의식 행위가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 A (1) 본장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과 그의 임명을 확신키 위해서 주어진 징표들이 기록되어 있다.
- (2) 특히 본장에 기록된 기름 부음의 의식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울에게 왕의 자격과 아울러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부여하는 것이다.
- (3) 이 같은 의식 행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위와 권위를 인정하는 예식이며, 또한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것이다.
- (4) 한편 당시에는 주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함과 신성함을 더하였는데 이런 행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의 메시아와 연관된다.
- (5) 오늘날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벧전 2:9) 이 축복에 합당한 삶과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

2. Q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직분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1절)

- A (1)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다.
- (2)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위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의 인정이 없으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외적인 승인인 동시에 내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다.
- (4) 오늘날 기름 부음 받은(성령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외적인 승인과 함께 자신의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3. Q 사무엘이 사울의 입을 맞춘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행동인가? (1절)

- A (1) 이것은 사울을 자기보다 높은 자로 인정하는 표시이다(참조, 시 2:12).
- (2) 즉 이러한 입맞춤은 신하로서의 충성을 다짐하는 행동이었다(참조, 눅 22:48).
- (3)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뜨거운 입맞춤을 되풀이 한다. 그러나 그중에는 가룟 유다처럼(눅 22:48) 자신의 이권(利權)을 위하여 거짓된 입맞춤을 하는 자들도 있다.
- (4)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맞춤은 비록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스스로 낮추는 삶의 입맞춤이다.

4. Q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공개적인 의식에 따라 진행한 것이었는가? (1절)

- A (1) 이것은 공개적 행사가 아닌 사무엘과 사울 단 둘이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참조, 9:27).
- (2) 그러나 이 모든 절차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베풀어졌다.
- (3) 이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그 절차와 외모가 비록 보잘것없고 비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제도 자체는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 (4)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식은 하나님의 원목적(原目的)과는 동떨어진 채 형식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5. Q '그 기업의 지도자'란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A (1)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전 영토를 책임지고 관리할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한다.
- (2)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충실한 청지기에게 맡겨서 잘 관리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기업을 그에게 맡겨 충실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3) 그러므로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나 그 기업(이스라엘)을 경영해 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야 했다.

(4)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의 일부분씩을 맡은 우리들 역시 그 추구해 가는 목적을 자신의 이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참조, 고전 10:31).

6. **㉠**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3가지 징조를 예언하였다. 그 예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2-7절)

㉠ (1) 그것은 사울이 사무엘의 예언을 직접 체험하여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2)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신 분이시다. 이런 자상함을 경험한 자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3)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명예를 먼저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계시와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겸손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7. **㉠** 사무엘이 예언한 3가지 징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2-7절)

㉠ (1) 첫째로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가르쳐 준다는 내용이다(2절).

(2) 그리고 뽕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떡 두 덩이를 준다는 내용이다(3절).

(3) 세번째로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와 신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다(5, 6절).

(4) 위의 3가지 징조에 대한 사무엘의 예언은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9절).

(5) 사울은 이 사실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8. **㉠** 사무엘이 예언한 3가지 징조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7절)

㉠ (1) 첫번째의 징조(2절)는 인간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사실이다(참조, 잠 16:9).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임을 보여 준다.

(2) 두번째 징조(3, 4절)는 인간 사이의 일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사실 하나님과 불화하면 다른 모든 활동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3) 세째 징조(5, 6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왕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참조, 스펀 4:6).

(4) 사울에게 임한 성령은 그를 사사(士師)의 참된 계승자로 지정하였다(참조, 삿 3:10). 이처럼 성령은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행 1:8).

9. **㉠**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예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6절)

㉠ (1) 이 예언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되었다(참조, 고 후 5:17).

(2) 여기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인격이 되리라는 의미이다(참조, 요 3:3-8).

(3)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사실이 거듭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것을

좀처럼 믿지 않는다.

- (4)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과거의 산물(죄의 노예)이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믿기 때문이다.
 (5) 만약 그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만 한다면 일상 생활의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고후 5:17).

10. **Q**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던 여호와와 신(神)은 사울이 살아 있는 동안 항상 함께 하였는가? (6절)

- A** (1) 하나님의 신(성령)은 사울이 하나님 편에 있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다.
 (2) 그러나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13:8-14; 15:16-30)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셨고 그를 돌보지 않으셨다(16:14; 18:12).
 (3)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버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인하며 저버리고 쫓아 내신다고 말씀하셨다(참조, 마 10:33).
 (4) 이것은 구약 시대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참조, 신 31:17; 수 24:20; 왕하 21:14; 대상 28:9; 대하 15:12)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참조, 딤후 2:12).

11. **Q**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 A** (1)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회를 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행세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의지적 행동을 그대로 허락하시겠다는 뜻도 포함한다.
 (2) 그러나 나중에 길갈에서 그에게 닥쳐왔던 비상 시기(13:8-15) 그리고 가장 위험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는 하나님의 사람(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8절).
 (3) 후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은 그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으며(13:11), 이것은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4) 진실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자신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

12. **Q** 사울이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도록 지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A** (1) 사무엘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방법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2)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이다.
 (3)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뜻을 먼저 앞세워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이다.
 (4)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며 빛으로서(시 119:105), 말씀 앞에 자신을 두는 것은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13. **Q**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A** (1)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여(6절) 사울로 하여금 새로운 인격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다.
 (2) 즉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가 되기에 필요한 자질을 주셨다.
 (3)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위해 한 인간을 부르실 때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4)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 호소했다(시 51:10).

14. **Q** 선지자의 무리 앞에서 사울이 예언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10절)

- A** (1) 하나님의 신(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2) 이때에 예언한 사울은 단지 무의식에서나 황홀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다. 사울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예언했다.
 (3) 사울의 예언은 인간의 전인격을 사용해서서 당신의 뜻을 추구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되어진 것으로 이런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안위를 준다(고전 14:3).

(4) 이와 같은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15. **㉠**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하는 사울을 보고 놀란 이유는 무엇인가? (10-12절)

- ㉠** (1) 사울과 그의 가문이 선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일이 없었는데도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2)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래도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더욱 놀랐던 것 같다.
(3) 하나님은 오늘날도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
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참조, 고전 1:27).

16. **㉠**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가 누구냐' 라고 한 질문은 무엇을 알아보
기 위한 질문인가? (12절)

- ㉠** (1) 이것은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누가 지도자였느냐에 관한 것으로서 예언
한 사울의 지도자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다.
(2) 여기서 '아버'는 선지 학교의 지도자 및 선지자들 중의 지도자를 말한다(참조, 12절;
왕하 2:12; 6:21; 13:14).
(3) 이 경우에 있어서 '아버'는 사무엘이다.

17. **㉠** 사울은 자신의 숙부(叔父)에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 여기
서 찾아볼 수 있는 사울의 인품은 어떠한가? (14-16절)

- ㉠** (1) 먼저 그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면 이웃에
게 드러내어 자랑하기를 원한다. 반면에 사울은 침묵으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했다.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
지고(요일 3:1)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3) 두번째로 그의 사려 깊은 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의 직위를 확보했
지만 아직 공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밝혀지게 될 때에 나타날 여
러 가지 주변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
(4)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발설(發說)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즉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그 결
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5) 이처럼 사울은 순수한 인격의 소유자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정치적인 야욕에 휩싸여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게 되었다(18:7-9).
(6) 이와 같이 사람이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1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 주셨던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
인가? (17-24절)

- ㉠** (1)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때때로 인간의 뜻을 허용
하실 때도 있다.
(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왕을 세우신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18, 19절).
(3)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을 때 당신의 주권으로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은
(1절) 사울이 지명되도록 하셨다.
(4) 이것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을 작성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진리를 보여 준 사건
이다(참조, 잠 16:33).

19. **㉠** 이스라엘이 당했던 모든 재난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19절)

- ㉠** (1) 이스라엘의 환난은 그들의 타락과 계속된 배반으로 인한 것이었다(참조, 신 4:30; 사 10

:14).

- (2)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셨으나 그들이 불순종하므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으며(민 16:31-35; 21:4-9), 또 여러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징벌하셨다.
- (3)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5절), 압몬(11:1-15), 아말렉(15:1-35), 모압, 수리아와 그 외에 여러 민족에게 압제를 받았다(14:47, 48).
- (4)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는 물론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참조, 롬 5:4; 빌 2:22; 히 5:14)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당하는 것이다(참조, 약 1:14, 15).

20. **Q** '행구(行具)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2절)

- A** (1) '행구'란 '쌓아 놓은 물건'을 말한다(참조, 17:22; 25:13).
- (2)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이 행구 사이에 숨었다는 사실은 그의 천성이 유순하고 겸손했음을 대변해 준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인격을 주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후(9절)에 있었던 태도이다.
- (4) 이와 같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인격은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의 겸손을 본받는 자들이다(참조, 빌 2:5-8).

21. **Q**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자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24절)

- A** (1) 모든 백성이 기뻐하여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 (2)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외침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소원이 성취된 것에 대한 기쁨의 탄성이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은(19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참조, 롬 1:21).

22. **Q** 사무엘이 기록했던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25절)

- A** (1) 사무엘이 기록했던 책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이 숙지해야 할 행정 제도였다(참조, 8:11-18; 신 17:14-17).
- (2) 또한 이 책을 여호와 앞에 두어 영구히 보존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왕들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지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다.
- (3)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인간 왕은 단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준하여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했으며,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에 임해야만 했다(참조, 신 17:18-20).
- (4) 오늘날 국가와 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행정 기구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23. **Q**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누가 동행했는가? (26절)

- A** (1)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
- (2) 이들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최초로 장관과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무리였다.
- (3)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계획하실 때 항상 이처럼 완전한 준비를 해두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다(참조, 빌 4:6).

24. **Q** 왕으로 뽑힌 사울을 멸시했던 비류(匪類)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7절)

- A** (1) '비류'란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자녀', 즉 '무가치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하는 미친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 (2) 아마 그들은 사울의 집안이 미천하다는 것과 학식과 덕망이 없다는 것을 들어서 멸시

했을 것이다.

- (3) 그러나 사울은 증성한 인격이 항상 그러하듯이 다시 한번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었다.
- (4) 즉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멸시와 반대를 개의치 않을 정도로 성숙하였다.
- (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당할 때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 잠잠하셨다(마 27:27-31; 눅 23:34-38).
- (6)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실현해 나갈 때 받는 세상의 비난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히 12:2)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지켜 보신다.

화보자료

사울 왕. 아래의 사진은 발작과 고뇌의 상태에서 부하에게 기대어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17세기 화가 베르나르도 카발리노가 그린 그림으로서 지금은 비인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서 기쁨 부음을 받았을 때(1절) 그는 매우 겸손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를 공식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그는 짐들 사이에 숨었던 것이다(22절). 하지만 그렇게 겸손했던 그도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 대한 시기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멸의 길을 걷고 말았다.

제 11 장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하다

단락구분 1-3 암몬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 길르앗 야베스 지방이 큰 곤경에 빠지다 / 4-10 사울이 그들을 구출하기로 결심하다 / 11 사울이 승리를 거두다 / 12-13 사울이 비난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다 / 14-15 사울의 왕권이 확립되다

1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2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3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4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5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7 한 겨리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와 그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이더라

9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0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삼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들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12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 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3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14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1. ㉠ 본장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사울에 대한 반대가 어떻게 진압되었으며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 (2) 즉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함으로써 인해 그의 왕위(王位)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3)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 없이도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 (4) 결론적으로 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으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다(참조, 합3:2).

2. **㉠** 암몬 사람의 영토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1절)

- ㉠** (1) 암몬 사람들은 요단 강 동쪽에 거주하고 있었다.
 (2)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과의 불륜(不倫)의 관계에서 태어난 벤암미의 후손들이다(창19:38).
 (3) 또한 이들은 사나운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혀 왔다(참조, 사3:13; 10, 11장).

3. **㉠** 야베스란 지명(地名)의 뜻은 무엇인가? (1절)

- ㉠** (1) 야베스는 ‘말랐다’는 뜻이다. 아마도 이곳은 물이 귀한 지역이었던 것 같다.
 (2) 이 지방 사람들은 그 옛날 범죈 베냐민 지파를 징책하려는 이스라엘 전체의 의견에 등을 돌렸었다(사21:8).
 (3) 그 후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격으로 멸절될 위기에까지 처한 적이 있었다.
 (4) 이처럼 정의로운 일을 실현하려는 공동의 목적에 협력하지 않는 비협조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은 끝내 멸망하고 만다.
 (5) 이렇게 약해져 있는 곳을 이용하여 암몬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6)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해치려는 악한 세력은 우리의 약한 부위를 골라서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든다.

4. **㉠** 침략자들이 포로들의 눈을 뽑는 목적은 무엇인가? (2절)

- ㉠** (1) 포로된 자들의 전투력을 빼앗아 더 이상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2) 특히 왼쪽 눈은 보통 방패 뒤에 숨으므로 오른눈의 상실은 군인을 무력화(無力化) 시키는 것이었다.
 (3) 그러나 ‘너희 오른눈을 다 떼어야’ 언약을 맺겠다고 한 나하스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구자로 만들고자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여 큰 수치를 주기 위함이었다.
 (4) 이처럼 오늘날 악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근본 목적은 단지 성도들을 파멸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不認)하게 하려는 데 있다(참조, 딤후5:15).

5. **㉠**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7일 동안의 유예(猶豫) 기간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7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원할 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2)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참된 구원자를 찾기 보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자를 찾기 위해 사자(使者)를 보내었다.
 (3)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위험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다급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4)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진지한 모습을 잃지 않는다(참조, 행27:20-25).

6. **㉠** 야베스의 사자(使者)들이 황급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3-5절)

- ㉠** (1) 자기 집 농사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5절).
 (2) 사울은 그 당시에 벌써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10:1) 또 백성들도 왕으로 추대했던 터였다(10:24).
 (3)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아직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뚜렷한 의식은 없었던 것 같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4)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새 마음을 소유한 자였다.

(5)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항상 성령의 능력이 동반되어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참조, 행 1:8).

7. **Q** 구원을 호소하는 아베스 사람의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은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6절)

A (1) 사울은 이스라엘을 침입한 암몬 족속의 행동에 대하여 노를 발하였다.

(2)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일어난 것이었다.

(3) 또한 성령께서 사울을 감동시켜서 위험한 처지에 놓인 형제들을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였고 완전한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

(4) 오늘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불의(不義)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5)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령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여 참된 의분을 터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요구된다.

8. **Q** 성령에 감동된 사울이 한 거리 소를 취하여 각(脚)을 뜨고 그것을 이스라엘 온 지경에 보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7절)

A (1) 이것은 사울이 암몬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소집하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는 상징적 행동이었다.

(2)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을 선포하였는데 그 벌은 인간의 생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벼운 것이라고는 하지만 살아 있는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엄숙한 징벌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편 사울의 명령 때문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고 한 것을 보아서 그 명령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보여 준다.

(4) 즉 백성들은 사울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두려워한 것이다.

(5)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웃과 국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6)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이웃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며 정의로운 일을 위해 희생한다.

9. **Q** 침략자 암몬을 무찌르기 위해 소집된 이스라엘의 병력은 모두 몇 명인가? (8절)

A (1)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사람이 3만으로 도합 33만 명이었다.

(2) 이 수자는 약 49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였다.

(3) 그러므로 이 수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인의 수라면 그 동안 나라의 인구는 더 적어진 것이다.

(4)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참조, 8:7, 8) 이스라엘의 형편은 이처럼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지라도 오래지 않아 그의 삶의 형편은 쇠약해질 것이다(참조, 잠 24:16).

10. **Q**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고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9절)

A (1) 사울은 이 싸움에 나갈 적당한 이유가 있으며, 자기에게 분명한 소명(召命)이 있음을 깨달았다.

(2) 더우기 그는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승리를 예견할 수 있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은 낙심 중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준다.
- (4) 여기서 '내일 해가 더울 때'란 대낮, 즉 정오를 말한다. 이처럼 형제를 돕는 열심은 해가 넘어가기 전, 즉 속히 되어져야 한다.
- (5) 사랑을 전하려 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만다(참조, 요9:4). 그러므로 성도는 선을 행할 능력과 기회를 줄 때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한다(약4:17).

11. **㉠**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도와 줄 사람(3절)들이 왔다고 하지 않고 내일 항복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10, 11절)

- ㉠** (1) 이것은 사울과 그 군대가 이동하는 것을 숨겨 암몬 사람들을 습격하기 위해서였다.
- (2) 사울은 군대를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암몬 진(陣)을 습격하여 날이 밝을 때까지 크게 살륙하였다.
- (3) 사실 베세과 야베스 사이는 약 30km 정도의 거리로서 30만이 넘는 보병(步兵)이 하룻밤만에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을 주시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
- (5)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일로 역전시킬 수 있다(참조, 빌 4:13).

12. **㉠** 사울이 자기를 반대하여 온 자들에 대하여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인가? (12, 13절)

- ㉠**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뜻에 자신의 의지를 맞추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선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
- (3) 또한 모든 훌륭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진정한 힘이 반대 세력을 말살시키는 데 있지 않고 감화(減化)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

13. **㉠**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모은 이유는 무엇인가? (14, 15절)

- ㉠** (1)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 (2) 즉 암몬 족속에 대한 승리를 기점으로 사울의 지위를 굳게하며 또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그 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자 하였다.
- (3) 또한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를 공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였다.
- (4) 이 모든 일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졌다(15절). 그리고 거기서 사울과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따르고 그 속에 평화가 실현된다(참조, 골 3:15).

14. **㉠** 화목제(和睦祭)란 무엇인가? (15절)

- ㉠** (1)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모든 백성이 그것을 나누어 먹으며 자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감사제이다(레 3장).
- (2)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무거운 분위기를 떨쳐버리고 정다운 교제를 행하는 예식이다.
- (3)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불화(不和)의 담을 허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요일 4:10).
- (4)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에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뿐이다.

제 12 장 백성을 각성(覺醒)시킨 사무엘

단락구분 1-5 사무엘의 양심 선언 / 6-13 배은 망덕한 백성을 꾸짖다 / 14-15 백성들 앞에 선과 악,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다 / 16-19 주수기(秋收期)의 우리로 경고하다 / 20-25 여호와와의 자비를 가르치며 위로하다

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2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뉘 소를 취하였느냐 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 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4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뉘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5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 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6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7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8 아람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9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10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뭇을 섬기므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12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오를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나라마는

15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같이 너희를 치실것이라

16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뢰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 하였나이다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교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24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1. **㉠ 본장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 ㉠** (1)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함으로써(11:14, 15)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士師時代)는 끝나고 왕국 시대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2) 따라서 사무엘이 수행했던 사사로서의 직책은 끝나게 되었다.
(3) 사무엘은 본장에 언급된 그의 작별 연설에서 그의 재판 행정을 변호했고 민족의 지도권을 사울에게 양도했다.
(4) 그러나 사무엘은 그의 제사장직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계속하였다(15:10-16). 특히 비상시에는 권위 있는 결정을 했다(15:33).
(5) 그리고 사무엘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 철학을 들어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지만, 반면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이다.

2. **㉠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국가를 이끌 왕이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의미이다.
(2) 이것은 왕을 양 떼 앞에 서서 인도하는 목자에 비유한 말이다.
(3) 이 비유는 세상의 지도자에게 적용되기도 했으나(렘23:4) 성경에서는 주로 영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었다(참조, 시23:1; 렘3:15; 겔34:9).
(4)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목자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다(요 10:11-18).

3. **㉠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작별 연설 할 때 자신의 청렴 결백(淸廉潔白)한 생활을 역설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1-5절)**

- ㉠** (1) 백성의 소나 나귀를 취한 일이 없으며 또한 그들을 속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3절).
(2) 또한 누구를 압제하였거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일도 없었다고 하였다(3절).
(3) 이처럼 사무엘은 백성에게 그 자신의 정직과 성실을(그의 아들들의 실수와 대조하여, 8:3, 5) 기억하게 하였고, 이렇게 함으로 자기를 배척하고 왕을 요구한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4) 사무엘은 진실하고 공정한 사사이며 요셉과 같이 정직하게 생활한(창39:1-23) 이상적인 인물이며 범죄한 기록이 없는 경건한 지도자였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이웃에게 자신을 떳떳이 공개할 만큼 자신있는 생을 살 수 있다(참조, 잠28:1).

4. **㉠ 사무엘의 결백을 보증(保證) 한 자는 누구인가? (5절)**

- ㉠** (1) 하나님과 사울 왕(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왕을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였다(2:10; 10:1).
(2) 우리가 정직하게 말은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하나님의 증거와 이웃의 증거가 있으면 어떤 털시와 모욕 속에서도 안연(晏然)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옷사람들에게서, 또한 진리에게서 좋은 증거를 받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삶 중에 하나이다(참조, 요삼 1:12).

5. **㉠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6-11절)**

- ㉠** (1)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스라엘을 최악의 세력으로 여겼던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사실

에서 나타났다고 했다(6, 7절).

- (2) 또한 이스라엘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 기도 했을 때마다(8, 10절) 하나님께서 의로운 팔을 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한편 적대 세력을 멸하셨다고 증거했다(8, 11절).
- (3)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온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을 꺾으시고 공연히 꺾박 받는 자들 편에 서서서 역사하신다.

6. **㉠**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가? (9-11절)

- ㉠** (1) 하솔 군장(軍長) 시스라의 손(삿4:1-3)과 블레셋 사람의 손(4:2; 삿3:31; 10:7; 13:1)과 모압 왕의 손(삿3:12-14)에 이스라엘을 맡겨서 고통당하게 하셨다(9절).
- (2)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자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에서 구원하시고(삿7:25) 바락을 사용하여 시스라의 손에서 건져내셨다(삿4:6-16). 그리고 입다를 통하여 모압의 압제에서 구출하셨다(삿11:1-32).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죄를 자백하고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참조, 사1:18).
- (4)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7. **㉠**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는 무엇인가? (9절)

- ㉠** (1)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 것이다.
- (2) 즉 이스라엘은 흑암의 세력이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생활을 했다.
- (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인접 국가의 속국(屬國)이 되었다.
- (4)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피로 얼룩지게 만든 것은 백성 각자의 죄(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이었다.
- (5)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사단)에게 복속(服屬)되고 그 삶은 많은 허물로 얼룩지게 된다.

8.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그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사용하셨다.
- (2) 여기서 '베단'이란 인물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다. 혹자는 그가 삿4장에 언급된 '바락'이라고 주장한다. 더우기 70인역(LXX)과 시리아 역 등에서는 그를 '바락'이라 지칭하고 있다.
- (3) 또한 '여룹바알'이란 사사 기드온의 별명이다(삿6:32).
- (4) 이들은 하나님의 동역자(同役者)들로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데 힘썼다.
- (5)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언제나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다. 즉 그들의 나라가 안전하며 그들의 마음은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9.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8-11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 (2)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다(참조, 창17:2-8; 신4:31).
- (3)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암몬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쳐 인간 왕을 의뢰하려고 하였다.
- (4) 이와 같은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들은 눈앞의 위협에 다급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10. **Q** 사무엘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것은 무엇인가? (13-15절)
- A** (1)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거역하지 않을 때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14절).
- (2) 즉 이스라엘이 그 왕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 파괴되었던 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3) 이 같은 사무엘의 제안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하여 그들을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한번 당신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원하신다(참조, 욥2:12-14).
- (4) 이와 같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역설하였다.
- (5) 그러므로 오늘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를 맺어야 한다(참조, 마3:6-8). 이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다.
11. **Q** 회개를 촉구하는 사무엘의 설교 중에서 강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무엇인가? (13-15절)
- A** (1) '여호와와 목소리'란 말과 '여호와와 명령'이란 말이 각각 두 번씩 반복해서 강조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 (2)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다.
- (3)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참조, 요1:14).
12. **Q**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삶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고 했다. 그 큰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6-18절)
- A** (1) 큰 일이란 밀 베는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다(17절).
- (2) 가나안 지방에서는 주로 5월말경에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 데 이때는 날씨가 쾌청하여 추수하기에 적합하다.
- (3) 이런 시기에 우리와 비가 내리게 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 (4)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자연의 변화를 조성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권위와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겨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잘못을 생각하게 만드셨다.
- (5) 또한 갑작스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했으므로 우리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양심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도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참조, 시 19:1-6). 참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친히 다스리신다.
13. **Q** 우리와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9절)
- A** (1) 경고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립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부탁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그 허물을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깨달은 참된 신앙적 행동이었다.
- (2)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참조, 롬 6:23).
- (3) 또 그들은 왕을 구한 죄와 더불어 다른 죄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참조, 롬 5:20).
- (4)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 경고에 즉각적인 반응

(회개)을 보인다.

(5)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14. **㉠** 중보 기도를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위로했는가?(19-25절)

㉠ (1) 두려워 말라 (20절).

(2)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0절).

(3) 헛된 것을 좇지 말라 (21절).

(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22절).

(5) 사무엘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23절).

(6) 또한 그는 선하고 의로운 도(道)로 그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하였다 (24절).

(7)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고 하였다 (24절).

(8) 사무엘은 만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왕이 모두 멸망하리라고 경고하였다.

(9)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이것은 축복과 저주라는 대조적인 선택이다(참조, 신 11:26-28).

15.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 (1)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이다.

(2)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명예와 성격을 의미한다.

(3)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셨다(신 7:7, 8).

(4)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5) 따라서 범죄한 개인이나 민족은 멸망당하고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2:30)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존속할 것이다.

(6)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16. **㉠** 사무엘의 일생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23-25절)

㉠ (1)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참조, 시 99:6).

(2) 그의 기도 생활은 엘리 제사장을 보조하던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다(2:18).

(3)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간주했다.

(4)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한 채 무슨 일을 결정하고 실행해 가는 것은 지나친 교만이 아닐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참조, 속4:6).

본장의 요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23절).

제 13 장 사울의 실패와 하나님의 책망

단락구분 1-2 사울의 상비군(常備軍) / 3-4 사울이 블레셋에 대항하여 히브리 사람들을 길갈로 모으다 / 5-7 블레셋의 대군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 / 8-10 사무엘을 기다리다 조급해진 사울이 제사를 집행하다 / 11-14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다 / 15-18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와의 전투 태세에 들어가다 / 19-23 사울의 군대가 무장을 갖추지 못하다

1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에

2 이스라엘 사람 삼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이천은 자기와 함께 므마스 와 벨엘산에 있게 하고 일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히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좃으니라

5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벨아옌 동편 므마스에 진치매

6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잣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좃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8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를러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14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을 계수하니 육백 명 가량이라

16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진쳤더니

17 노략군들이 삼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18 한 대는 벨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팡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향하였더라

19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20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삼이나 도끼나 팡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21 곧 그들이 팡이나 삼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적이 무될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23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므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1. ㉠ 본장에 전개된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에 대항하여 싸운 초기 전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2) 열국처럼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왕을 가지게 되자 심히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환상 속에 빠져들었다.
- (3) 그러나 하나님보다 왕을 더 신뢰한 그들은 블레셋 군대의 세력 앞에서 떨며 숨어야 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들이 스스로 확인해야 했다.
- (4) 이런 때에 다급해진 사울이 제사장의 직책을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왕과 선지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 (5) 물론 본장에서 두 지도자의 갈등은 자신들의 이권(利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종교적인 문제였다.

2. ⓐ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몇 세라고 하였는가? (1절)

- Ⓐ (1) 40세라고 하였다.
- (2)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40'이라는 수자가 없고 단지 '한 살 난 아이'라고 기록되었다.
- (3) 이 문구에 대해 여러 가지 번역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중 탈굼(Targum) 역은 이 문구를 의역하여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한 살 난 아이 같았더라'고 하였다. 그 뜻은 사울의 통치가 아직 미숙했다는 말이다.
- (4) 또한 KJV와 Living Bible은 '사울이 한 해 동안 다스렸다'로, KSV는 아예 이 부분을 누락 해석하지 않았다.
- (5) 그러나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명백한 사실은 행 13:21에서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나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는 기록이다.
- (6)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들추어 성경의 오류를 지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의 무오성(無誤性)을 믿고 이러한 사건들을 추적해 나간다면 끝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 사울의 상비군(常備軍)은 모두 몇 명인가? (2절)

- Ⓐ (1) 모두 3,000명이었다.
- (2) 그중 2,000명은 자기 통솔 아래 므마스아와 베엘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의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나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다.
- (3) 사울이 왕으로서의 첫 사업으로 실시한 상비군 모집에는 사람들이 남아 둘 정도였다.
- (4)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국가에 대해 기대를 가졌던 것 같다.
- (5)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보다 한 인간의 지배를 받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그 기대에 못미치는 연약한 국방력을 소유해야 했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보다 인간의 보호를 원하는 자들을 멀리 않아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4. ⓐ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3-5절)

- Ⓐ (1)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守備隊)를 쳤기 때문이다(3절).
- (2) 또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증(可憎)히 여긴 바 되었기 때문이다.
- (3) 즉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왕을 선출하고 암몬 사람을 격파시켰으며 강력한 군사력 유지 정책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다.
- (4) 이처럼 악(惡)의 세력은 자신들이 공격받을 때 뿐 아니라 이웃(하나님의 백성)이 번창하려 할 때에 시기와 분노를 나타낸다.

5. ⓐ 이스라엘을 침략키 위해 므마스아에 진을 친 블레셋의 전세(戰勢)는 어떠한가? (5절)

- Ⓐ (1) 병거(兵車)가 3만이며, 마병(馬兵)이 6천이었다. 그리고 백성(군인)은 해변의 모래 같

- 이 많았다.
- (2) 이만큼 블레셋은 그들의 수비대가 공격받은 것이 그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분하게 여겼고 그 분함을 행동으로 옮겼다.
 - (3) 이와 같이 악하고 미련한 자들은 모욕을 받으면 즉시 화를 내어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참조, 잠12:16).
 - (4)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모욕당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현명한 대책을 강구한다.
6. **㉠** 블레셋의 침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어떤가? (6,7절)
- ㉠** (1) 사기가 땅에 떨어진 백성들은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어떤 자들은 요단을 건너 잣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다.
- (2) 이처럼 사울을 따르는 병사들은 블레셋 병사의 수와 그 무장한 것을 보고 낙심하였다.
- (3)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도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파도에 휩쓸렸을 때 물 속에 빠지고 말았다(마14:30).
- (4) 이스라엘 백성을 역시 전능하신 아픍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수의 강한 세력을 쳐다보았을 때에 소망을 상실한 것이다.
- (5) 그러므로 문제는 블레셋 병사의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있었던 것이다.
- (6) 하나님에 대해 강한 신뢰감(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
7. **㉠**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고 황급히 도망갔던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5-8절)
- ㉠** (1) 사울은 암몬 족속의 침입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움직였기 때문에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과 그의 종 사울의 명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11:6,7).
- (2) 그런데 이번 전투에 대한 표현에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거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 (3)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숨었다는 기록(6절)과, 떨어졌다는 기록(7절) 그리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는 기록(8절)만 나와 있다.
- (4) 여기서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여 주고 있다(참조, 약3:1). 즉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가 그 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 (5)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지도자들의 모범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한다(참조, 히12:2). 이것이 그 단체의 안녕을 유지하는 최선책이다.
8. **㉠**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 길갈에 있던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사울이 범한 과오는 무엇인가? (8-13절)
- ㉠** (1) 사울은 사무엘의 당부대로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10:8) 그래도 도착하지 않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 (2) 즉 그는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렸다.
- (3)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는 처사였다.
- (4) 그는 순종 대신에 상황 윤리에 호소했고 나중에 그의 행위를 변명했지만(10-12절) 아무런 타당성도 없었다.
- (5) 참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15:22)을 그는 미처 몰랐다.
9. **㉠**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는 사울의 변명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12절)

- Ⓐ (1) 이것은 문자적으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참조, 출32:11; 렘26:19).
- (2) 그의 이러한 변명은 자신의 본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다. 즉 그는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출14:13)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다.
- (3) 계속해서 사울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대신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였다.
- (4) 이처럼 상황 윤리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호를 통해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 (5)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진지한 자세이다.

10. Ⓒ ‘망령되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13절)

- Ⓐ (1) 이것은 ‘어리석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였다’는 뜻이다.
- (2)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행동했다는 말이다.
- (3) 사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 생각했다.
- (4)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실한 종이기보다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는 인간적인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녔다.
- (5)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즉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망령된 자가 되느냐 하는 선택이 날마다 주어진다.

11. Ⓒ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10:8)를 지키지 않은 결과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경고를 받았는가? (13, 14절)

- Ⓐ (1) 왕(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14절).
- (2) 그 당시 사울은 단지 외형상으로 왕에 불과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이미 실각당한 자가 되었다.
- (3) 그러나 사울을 이을 후임자가 그 일을 수행할 때까지는 잠정적인 시일이 필요하다(참조, 16:13).
- (4) 만약 그 기간 안에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다면 사함을 얻었을 것이다(참조, 15:26).
- (5)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는 약속과 마찬가지로 조건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 성경에는 숙명론(宿命論)이 없다. 단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법칙이 있을 뿐이다.

12. Ⓒ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4절)

- Ⓐ (1) 사울이 자손이 아니라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가리킨다(참조, 행 13:22).
- (2)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를 세우셨다(참조, 행 13:23).
- (3)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행 13:36). 그리고 자기의 백성에 관련된 문제는 이차적으로 취급하고(사44:28), 모든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를 채택하였다.
- (4) 그러므로 다윗은 진실된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보좌도 계속되며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참조, 시 89:19-37).
- (5)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13. Ⓒ 블레셋 침입 후 사울에게 남은 자는 모두 몇 명인가? (15, 16절)

- Ⓐ (1) 사울의 남은 군사는 약 600명이었다(15절).
- (2) 이같이 군사의 수가 줄어든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사울을 버린 사실을 말한다.

- (3) 그리고 이것은 사울과 백성들의 죄가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쇠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의 삶은 비참하고 쇠약할 수 밖에 없다.
- (5) 즉 죄는 우리의 삶을 파산시키는 무서운 적이다(참조, 롬6:23).

14. **㉠** 노략군(擄掠軍)들이란 어느 민족의 군대를 말하는가? (17절)

- ㉠** (1) 이스라엘에 징벌 원정을 수행할 블레셋 증원군을 말한다.
- (2) 이들은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
- (3) 이처럼 블레셋은 기세가 등등했으나 사울의 군대는 무력하였다.
- (4) 이것은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궁극적인 문제는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범한 죄는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실족 시킬 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게 더 큰 용기를 준다.

15. **㉠** 블레셋과 전투 태세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19-23절)

- ㉠** (1)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 곧 쓸 만한 병기가 없다는 것이다.
- (2) 사실 전쟁은 그 사용하는 무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무기들만의 싸움이라 할 수 없다(참조, 7:10, 11).
- (3) 사울은 쓸 만한 병기가 절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
- (4) 오늘날 성도들의 싸움에서도 역시 문제되는 것은 무기의 유무(有無)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 (5)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能)하신 분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롬8:37).

본장의 요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어늘’
(13절).

제 14 장 신앙과 승리

단락구분 1-15 요나단이 블레셋 진을 격파하다 / 16-23 사울의 출전과 승리 / 24-30 사울의 서약과 요나단의 실수 / 31-35 백성의 죄와 사울의 제단 건설 / 36-45 요나단의 단죄와 백성의 변호 / 46-52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치고 사면(四面)을 정복하다

1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2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육백 명 가량이며

3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와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4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5 한 바위는 북에서 므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6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8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11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며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12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

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13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14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이십 인 가량이라

15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6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군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17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고하여 보라 하고 점고 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 오라 하니 그 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19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20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등 무를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21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22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벤야민을 지나니라

24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

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5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풀이 있더라

26 백성이 수풀에 들어갈 때에 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27 요나단은 그 아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28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29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곧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30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31 그 날에 백성이 므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32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33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 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34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흠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자기 소와 자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35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36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37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

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38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이 아들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뉘게 있나 알아보자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40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41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뿔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42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뿔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뿔히니라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44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45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46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47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48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49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야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50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궁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벨의 아들이며

51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벨이니 아브넬의 아들이었더라

52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전장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즉 그들에게는 블

레셋을 이길 만한 힘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 (2) 그러나 본장에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 여호와의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 (3)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12:22)고 한 사무엘의 예언이 사실임을 보여 주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건설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그 나라를 폐하지 않으셨다.

2. **Q** 신앙 없는 사울과 신앙 있는 요나단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A** (1) 신앙의 소유자였던 요나단은 강하고 담대하여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 하지 않았다.
- (2) 반면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대항하지 못하고 석류나무 아래서 머물러 있었다(2절).
- (3) 이와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행동할 수 있다.
- (4)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그 지위가 높거나, 자신을 보호할 만한 군사들이 있을지라도 참다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지체할 수밖에 없다.

3. **Q** '아히야'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3절)

- A** (1) '아히야'란 '여호와의 형제', '경배자'란 의미이다.
- (2) 그는 엘리제사장의 증손으로 실로에서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던 자였다.
- (3) 사울의 군대가 위협을 받을 때에 아히야는 그 군대와 함께 있었으나 사울과 군대들에게 평안을 끼칠 만한 자가 못 되었다.
- (4) 즉 이 제사장(아히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려왔던 사무엘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
- (5) 이처럼 형식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지 허수야비에 불과하다.

4. **Q** 요나단이 블레셋 진으로 잠입했던 길의 형세는 어떠하였는가? (4,5절)

- A** (1)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 가던 길은 매우 험했으며, 천연적인 요새로 둘러싸여 있었다.
- (2) 특별히 그 주위에는 '보세스'(미끄럽다는 뜻)와 '세네'(가시라는 뜻)라는 바위가 둘러 있어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을 침공하기란 매우 힘들었다.
- (3) 이와 같이 바위가 아무리 험하여도 그의 결심을 무디게 하거나 꺾지 못하였다.
- (4) 신앙인의 위대한 점은 요나단처럼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이다(참조, 행20:24).
- (5)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도 세상적인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사명을 완수해 가셨다(참조, 히12:2).

5. **Q** 요나단이 블레셋 족속에 대해 할례(割禮)의 유무(有無)를 논(論)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A** (1) 그 당시 요나단이 할례를 운운한 것은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 신앙(롬2:28)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즉 그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를 언급하였다.
- (2)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할례)를 한 백성을 도와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 (3)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악한 세력과 대항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담대히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

6. **Q**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한 것은 그의 불신앙에

서 나온 말인가? (6절)

- A** (1) 이것은 불신앙적인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고백적인 말이다.
 (2)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자는 결코 낙망하지 않는다.
 (3) 더 나아가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에 의존하여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
 (4) 즉 그는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확신하였다.

7. **Q**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떻게 구하였는가? (8-15절)

- A** (1) 요나단은 앞으로 자기가 해나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다.
 (2) 즉 요나단은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것으로 이것은 그들의 표징이 되리라는 것이다(9, 10절).
 (3) 요나단의 말은 성취가 되어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의 일행울 올라오도록 했다(11, 12절).
 (4) 이러한 표징을 얻은 요나단은 용기를 얻고 병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었다.
 (5)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은 외를 실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적 행동이다.

8. **Q**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진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운 결과가 어땠는가? (14-23절)

- A** (1) 요나단의 기습으로 '떨던' 블레셋 군대가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므로 혼란하였으며, 전쟁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다.
 (2) 물론 이번 승리의 공은 요나단의 신앙적 '모험'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그러나 그의 배후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이러한 승리는 없었을 것이다.
 (4)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자시며 지키시는 분이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시121:1-8).

9. **Q** '반일경 지단 안에서'란 말은 무슨 뜻인가? (14절)

- A** (1) 이 말은 '한 겨리의 소가 한나절에 갈 수 있는 넓이의 땅 안에서'란 뜻이다.
 (2) 이 당시 땅은 소 한 겨리가 하루 동안 쟁기로 갈 수 있는 양에 의해 넓이를 측정했다.
 (3)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이만한 넓이에서 처음으로 약 20명을 살해한 것은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4) 이 같은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오른팔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5) 즉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시18:1).

10. **Q** 블레셋의 패전(敗戰) 원인은 무엇인가? (15절)

- A** (1) 블레셋 군대는 외적인 조건이 나빠서 패전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두려움 때문에 패전하였다.
 (2) 본절에서 '떨었다'는 말이 세 번이나 언급되었는데 특히 '큰 떨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란 의미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 넣으신 두려움을 가리킨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까지 간섭하셔서 당신이 의도하는 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내 맡기는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11. **Q** 법제를 옮기려는 가운데 나타난 사울의 잘못된 사상은 무엇인가? (16-23절)

- A** (1)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하게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를 이동하려 하였다(18절).
 (2) 또한 하나님의 계를 전채터에 가지고 나와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8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 그 자체가 무슨 신령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이다.

- (3)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어느 정도 물리치게 되자 사울은 하나님의 궤 옮기는 작업을 중단시켰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써 자신과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12. **Q**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1절)

- A** (1) 이스라엘 영토 중 블레셋의 점령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의 히브리인들이 블레셋 군대에 징병당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한다.
- (2) 그런데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인들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에 들어와서 돌연 사울과 요나단을 동조했다.
- (3)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므로 형제들과 다시 연합하였다.
- (4) 이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승리자나 다수의 편에 가담하기를 좋아하여 필요에 따라 변화한다.
- (5)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고독하고 힘들지만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서 죽음까지 감수하는 자이다(참조, 단3:16-23;6:10).

13. **Q** 사울은 이스라엘 전군(全軍)에게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가? (24-30절)

- A** (1) 사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전군에게 아무 음식이라도 먹지 못하게 했다(24절).
- (2) 사울은 그의 원수들을 복수하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자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등한히 하였다.
- (3)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생명을 앗아갈 뻔하였다(44절).
- (4) 그러므로 사울의 이 명령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고집스러운 지도자의 표본으로서 아래 부하들의 고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 (5) 오늘날도 이처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자기 밑에 있는 자들을 학대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14. **Q**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7절)

- A** (1) 요나단이 꿀을 먹고 '원기가 회복되었다'는 말이다.
- (2)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꿀을 맛 보았다.
- (3) 그러나 뒤늦게 이 명령을 안 요나단은 부친 사울의 조치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였다(29, 30절).
- (4) 이와 같이 정의로운 입술은 어떠한 권위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

15. **Q** 배고픔과 피곤에 지친 백성들이 전쟁이 끝난 후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31-35절)

- A** (1) 굶주린 백성들은 적군에게서 전리품으로 탈취해 온 짐승을 도살하여 그 고기를 피 있는 채 먹어 죄를 범하였다(32절).
- (2) 그러나 하나님은 피 채 먹는 것을 금지하셨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참조, 창 9:4; 레 17:10-14; 19:26; 신 12:16).
- (3) 이때에 극도의 배고픔에 휩싸인 백성들이 음식물을 보고 다급해진 나머지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다.
- (4) 이것은 물론 단식 명령을 내린 사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규례를 파괴한 각 개개인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5)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한 개개인에게 더욱 엄중히 내려진다.

16. **㉠** 사울은 백성들이 고기를 피 채 먹은 실수를 들어 책하였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1-35절)
- ㉠** (1) 사울은 백성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 것이 자기의 명령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2) 즉 그는 마땅히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 사실에 대한 반성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은 하지 않았다.
 (3) 그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파렴치한 인물이었다(참조, 마 7:3-5).
 (4)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자는 항상 잘못된 편견 속에서 자신과 이웃을 판단하게 된다(참조, 시 19:12, 13).
17. **㉠** 사울이 여호와의 왕을 위하여 단(檀)을 쌓은 이유는 무엇인가? (33-35절)
- ㉠** (1) 이 제단은 전승(戰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 쌓은 것이다.
 (2) 물론 제단은 감사제를 위해 세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사울과 그의 백성이 다 같이 드려야 될 속죄제를 위해서 더욱 필요하였다(참조, 레 4:13, 22).
 (3)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가장 열심이 있는 자처럼 하였다(참조, 호 8:14).
 (4)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 하는 마음이다(참조, 시 34:18; 51:17; 호 6:6).
18. **㉠** 밤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고 했던 사울의 제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6절)
- ㉠** (1) 이와 같은 제안은 극도로 피곤하고 굶주린 군사들의 형편을 돌볼 줄 모르는 사울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말이었다.
 (2)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 알고 이웃의 사정은 몰라 준다(참조, 잠 14:29).
 (3) 또한 성급하고 어리석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길을 걸을 수 없다(참조, 딤후 3:2-12).
19. **㉠**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자는 사울의 말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36절)
- ㉠** (1) 제사장 아히야였다(3절).
 (2) 즉 제사장은 사울의 뜻에 대한 여호와의 결정을 요구하며 담대히 그 뜻을 가로막았다.
 (3)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가는 자들도 제사장 아히야처럼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진리를 변호할 줄 알아야 한다.
20. **㉠**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일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가? (36, 37절)
- ㉠** (1)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았다.
 (2) 그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꿀을 먹으므로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파괴한 죄 때문이었다.
 (3) 이처럼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죄된 요소(아직 하나님께 해결하지 못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보류하신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간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는 회개의 간구가 필요하다.
 (5)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사 59:1).
21. **㉠** 사울이 이스라엘의 어른(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맹세하였는가? (38-42절)
- ㉠** (1)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죄인이 있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당하리라고 맹세하였다.
 (2) 이것은 사울에 의한 또 하나의 어리석은 맹세이다. 이같이 불가능하거나 행하기에 너무

큰 값을 지불해야 하는 맹세는 삼가해야 한다.

- (3) 한편 요나단이 배가 고파서 꿀을 먹은 것은 분명히 죄가 아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그의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조항이 이미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기 때문에 요나단은 범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4) 하나님은 모르고 범한 요나단의 실수마저 들추어 내셨다(42절).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시는 신실한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義)는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역사하신다.

22. ㉠ ‘하나님과 동사(同事) 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5절)

- ㉠ (1)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役事) 하셨다는 말이다.
- (2) 즉 요나단이 이때까지 행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정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잘못이며, 또한 그 자체가 죄이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 내세우는 자들을 죄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3. ㉠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초창기에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모두 무찔렀다. 그 대적들이란 어느 나라를 말하는가? (47, 48절)

- ㉠ (1) 모압, 암몬(11:1-15), 에돔, 소바(다메섹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왕국), 블레셋(1-47, 52절; 17:1-58), 아말렉(15:1-35) 등 모두 여섯 나라였다.
- (2)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항하는 곳마다’ 이기었다(참조, 9:16).
-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확고히 하시기 위해 사울의 마지막 전쟁(31:1-13)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당신의 나라 건설에 사용하신다.
- (5)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참조, 행17:24-28).

24. ㉠ 사울의 자녀는 몇 명이며 또 그 자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49절)

- ㉠ (1) 사울의 자녀는 모두 8명(6남2녀)이었다(참조, 삼하 21:14; 대상 8:33).
- (2) 그중 장남인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다.
- (3) 그리고 평등을 의미하는 리스위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보셋(부끄러운 사람)이라고도 불리웠다.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참조, 삼하 2:8-15; 3:7-15; 4:5-12).
- (4) 또한 말기수아(딤은 왕, 31:2; 대상 8:33; 9:39; 10:2)와 아비나답(자유로움의 아버지, 참조, 대상 8:33; 9:39; 10:2; 잠 14:2) 그리고 알모니(왕궁, 삼하 21:8)와 므비보셋(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삼하 21:11) 등이 있다.
- (5) 사울의 두 딸은 메랍(증가하다, 18:17-19)과 미갈(시내, 18:20, 27, 28; 19:11-17; 삼하 6:16-23)이었다.

25. ㉠ 사울의 아내는 누구였는가? (50절)

- ㉠ (1) 아히마아스(본노의 형제)의 딸 아히노암(은혜의 형제)이었다.
- (2) 다윗도 같은 이름을 가진 아내가 있었다(25:43; 27:3; 30:5; 삼하 2:2).
- (3)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활)이며, 조부(祖父)는 아비엘(능력의 아버지)이었다.
- (4) 또한 사울의 군대 장관은 넬(빛)의 아들인 아브넬(빛의 아버지)이었다.

26. ㉠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모두 불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52절)

- ㉠ (1)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이것은 사무엘이 다스릴 때와는 전혀 다른 국가가 된 것을 보여 준다(7:13).

(3) 그 이유는 백성이 하나님보다 육신의 힘에 더욱 의존했기 때문이다.

(4)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것이다.

(5) 사울은 그들이 열국의 침략과 같은 고통에서 선택한 왕이었으나 그 왕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다.

(6) 오늘날도 이처럼 자신의 자유로운 생(生)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마침내 죄와 사망의 울무에서 허덕이는 가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참조, 롬6:23).

화보자료

고대의 전쟁 모습. 아래의 사진은 고대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B.C.12세기의 부조(浮彫)로서 애굽의 테베 남쪽에 있는 유적지 메디넨 하부(Medinet Habu)의 태양신을 섬기던 신전에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었다(비교, 수 10:14).

제 15 장 제거되는 사울

단락구분 1-3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다 / 4-8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 9-11 사울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탄식 / 12-23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다 / 24-31 사울의 고백과 사무엘의 예언 / 32-35 아각의 처형 및 사울과 마지막 이별하는 사무엘

1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소서

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4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이십 만이요 유다 사람이 일 만이라

5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6 사울이 켄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켄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7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하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10 여호와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1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좃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났더니 흑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시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4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쩔 이니이까

15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17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 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지까지 치라 하셨거늘

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와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2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울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

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중 하였음이니이다

25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2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어는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7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겹옷자락을 붙잡으매 찢어진지라

28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30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31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2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33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34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야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35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 ㉠ 본장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좌(王座)에서 제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자랑하며 영원히 빛내보려고 하였다.
- (3)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감정에 더 마음을 빼앗겼다.
- (4) 그 결과 그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5) 그러므로 본장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도덕적인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묵시적 교훈을 말해 주고 있다.

2. ㉠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 (2)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3)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할 강력한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시켜 준다.
- (4)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류는 항상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참조, 시116:12).

3. ㉠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무슨 이유로 아말렉을 완전히 파멸시키도록 명령하셨는가? (2, 3절)

- ㉠ (1)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이다(출17:8-16).
- (2) 즉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단순한 떠돌이 민족에 대한 적대 행위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후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항거였다(참조, 사3:13).
- (3)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참조, 출 17:14).
- (4)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아말렉을 멸망시키도록 당부하심으로 그들의 멸망의 때가 온 것을 알리셨다.
- (5)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무리는 끝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참조, 렘48:42).

4. ㉠ '진멸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3절)

- A** (1) '진멸'이란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만족시킬 만한 파괴를 의미한다.
 (2)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보복 또는 징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3) 그리고 이러한 '진멸'은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즉 도시와 사람과 짐승과 모든 소유를 진멸하여 주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수6:17).
 (4) 이런 식의 '진멸'은 당시에 일반적인 일들이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케텔)으로 '파괴로 봉헌됨'이란 뜻이다.
 (5) 즉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승배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여호와 앞에 드러짐을 나타낸다.
 (6) 이것은 전쟁이 단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7) 오늘날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 완전히 진멸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늘 유지하여야 한다(참조, 요16:8).
5. **C**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위해서 소집한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모두 몇 명인가? (4절)
- A** (1)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만 명이었다.
 (2) 그러나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그를 따랐던 군사의 수는 고작 6백 명에 불과하였다(13:15).
 (3)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치루어지는 전쟁은 모든 사람들의 호응을 받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싸움은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다.
 (4)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역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응과 도움을 받게 된다.
 (5)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뜻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참조, 롬12:1, 2).
6. **C** 사울이 아말렉 지경에 살고 있던 겐 사람들을 아말렉과 함께 징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A** (1)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 함께 징벌하지 않았다(참조, 출2:16-18; 18:9-12; 민10:29-32; 사1:16).
 (2) 비록 그들이 저주받아야 할 땅에 함께 거하는 자들이었지만 옛날 이스라엘에게 배후 선행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3) 이것은 죄많은 이 세상이 아직도 존속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4) 비록 죄로 심히 부패한 무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지만 그리스도의 친구, 즉 성도들이 아직 이 땅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보류되고 있다(참조, 창19:16-22).
7. **C**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한 것은 정당한가? (7, 8절)
- A** (1)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한 것이므로 정당하다(2, 3절).
 (2) 즉 이것은 아말렉 사이에 행해지던 우상 숭배와 악행이 확산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3) 이런 진멸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헌신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참조, 사45:4).
 (4)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의 부패에 오염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마5:13).
8. **C** 사울의 잘못된 처사는 무엇인가? (9절)
- A** (1)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2, 3절)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전리품 중 좋은 것을 남겨 두었다.

- (2) 아말렉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만큼 사실상 진멸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公義)를 위한 희생물이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진멸하고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 둔 것은 하나님보다 사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죄이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야 만다(약1:15).
- (5)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이다(마6:33).

9. **㉠**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시행 착오(試行錯誤)가 따르는 불완전한 것인가? (11절)

- ㉠** (1) '후회'란 말은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 계획하시거나 결정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 (2)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가변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참조, 29절; 약1:17) 사울의 반역을 인간의 표현으로 슬퍼하신다고 말한 것이다(참조, 창6:6).
- (3)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셨지만 그를 왕으로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요구에 응답하신 것 뿐이다.
- (4)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아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체험하게 만드신 당신의 지혜였다.

10. **㉠** 사울은 불의(不義)한 재물을 취한 후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첫째는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記念碑)를 세운 일이다(12절).
- (2)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아말렉에서 승리를 자기 것으로만 돌리는 가증한 행동이었다(참조, 행 12:23).
- (3)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지니는 공통적인 특색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참조, 눅 22:25).
- (4) 두번째로 그는 '여호와와 명령을 행하였다' (13절)고 우겼다. 그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자신의 선행을 과장 선전하였다.
- (5) 죄인들은 사울과 같이 그 자신을 정당시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감추려 한다(참조, 마 25:44).
- (6)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사람 앞에서는 감추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철저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참조, 담전 5:24, 25; 히 4:13).

11. **㉠** 사무엘은 불의한 재물을 취한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사울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오히려 사울은 무엇이래 핑계하였는가? (14, 15절)

- ㉠** (1)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전리품을 남겨 왔다고 하였다.
- (2)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죄없는 백성들을 들먹거렸다.
- (3) 또한 그는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거룩한 제사와 관련시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다. 즉 그는 종교를 가장해 자신의 경건을 부각시키려 했다(막 7:10-13).
- (4) 이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후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이다(창 3:12, 13).

12. **㉠**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도 기뻐 받으시는가? (15절)

- ㉠** (1)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 (2)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지시한 규례와 당신의 방법대로 섬김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 (3) 즉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재물을 기뻐하신다(참조, 히11:6). 믿음 없이 드리는 재물은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참조, 창4:3-5).
- (4) 또한 하나님은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드리는 재물도 원하지 않는다(참조, 사 1:10-17).
- (5) 즉 그 생활 속에 선행과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외식적 신앙인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참조, 롬 12:1-21).

13. **㉠** ‘가만히 계시옵소서’란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 ㉠** (1)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만 두라’는 뜻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듣기 싫소!’라고 번역되어 있다. 즉 당신의 변명이 구차하니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는 의미이다.
- (2)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통찰하시는 분이시므로 죄인들은 자신의 악행을 변호하려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 (3) 하나님은 이런 자의 외식적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참조, 눅18:10-13).

14. **㉠** 사무엘이 사울의 과오를 지적했을 때 사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7-21절)

- ㉠** (1) 사울이 오히려 자기의 무죄를 고집하여 완악함을 드러내었다.
- (2) 그는 자기 생각으로 볼 때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 (3) 즉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 (4) 이처럼 육체의 속한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생각보다 천하게 생각한다(참조, 롬8:7, 8).
- (5) 또한 사울의 행위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진리를 보여 준다(딤펴6:10).

15. **㉠** 악인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22,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제사보다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순결한 인격과 헌신을 더 원하신다.
- (2)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 (3) 그러므로 제사자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청결하게(회개)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 (4) 오늘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역시 먼저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1-21).

16. **㉠**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22절)

- ㉠** (1) 여기서 수양의 기름이란 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한다(레 3:3).
- (2) 이것은 형식적으로 매우 고상한 의식과 예배라 하더라도 하찮은 순종의 삶보다 못함을 강조해 준다.
- (3)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과 성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의 양심적인 순종은 모든 형식적인 경배보다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신다.
- (4)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윤리적인 생활 규범을 준행하는 것이 모든 의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여 준다(참조, 호 6:6; 미 6:6-8).

17. **㉠** 사무엘은 불순종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하였는가? (23절)

- ㉠** (1) ‘거역’과 ‘완고’로 표현하였다.
- (2) 여기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사술(점술, 신 18:10, 11)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무례

하고 거만함)은 사신(死神)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3) 결국 불순종은 자아를 고집하는 행위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4)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물질 또는 권력에 자신의 전의지를 빼앗기는 불순종의 또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18. **㉠**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무엇인가? (22, 23절)

㉠ (1) 불순종은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여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경쟁시키는 행위이다.

(2) 그러므로 불순종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든다(참조, 롬5:19).

(3)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한다(참조, 롬8:7).

(4) 그리고 불순종의 마지막 피해는 죽음이다(참조, 창3:19).

(5) 반면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참조, 롬5:19; 히5:8).

19. **㉠**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1)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다.

(2)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는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로 여겨 버리신다.

(4)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참조, 히11:6).

20. **㉠** 사울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만큼 진정한 것이었는가? (24, 25절)

㉠ (1)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거짓 회개를 하였다.

(2) 즉 그는 전인격에서 우리나라는 회개의 눈물보다는 당장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사한 입을 놀린 것이다.

(3)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보다 자기 지위만을 걱정하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다(30절).

(4) 그러므로 사울은 이처럼 열심히 사무엘에게 자기와 함께 가서 공적인 승전 기념제를 도와 달라고 매어달렸다(25절).

(5)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참조, 눅15:17-19).

21. **㉠** 사울은 자신이 범죄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단정하였는가? (24절)

㉠ (1) 사울은 자신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그러나 백성들이 아무리 강요하더라도 그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울에게 있었다.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것은 사울의 책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변명은 거짓되고 경박한 것이었다.

(3) 이와 같이 죄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하면서 범죄한 사실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변호한다.

(4)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은 누구도 증명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5)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임을 잊어버리고 있다(참조, 대상28:9; 욕7:20).

22. **㉠**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 죄를 용서하고 자기와 함께 가자고 청원할 때에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거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6-29절)

㉠ (1) 사무엘이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행위였다.

(2) 인간은 연약하여 눈앞에 보이는 권력 앞에 쉽게 무릎 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란 매우 어렵다.

(3) 그런데 보이는 세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순결과 신앙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
름답게 보신다.

(4) 반면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이 그 존
재 가치가 없게 된다(잠25:26).

23. **㉠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27, 28절)**

㉠ (1) 이것은 사울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분리시킨다는 사실을 상징한다.

(2)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겹옷자락을 베어내게 되었다(24:4). 이에 대해서 사울은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아노라' (24:20)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3) 이처럼 하나님은 상징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한 성취하신다.

(4) 사무엘은 이러한 상징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사울에게 빠짐없이 전달하였다.

(5) 즉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의 절개이며
생명이다.

(6)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기 위해 순교를 무릅썼다. 오늘날 우
리들이 자유 속에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앞서 간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린 수고
때문이다.

24. **㉠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보았는가? (29절)**

㉠ (1)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지존자' (至尊者)로 보았다.

(2)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명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성
품을 강조한다.

(3)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므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시다
(참조, 계1:8).

(4)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신앙하는 자
야말로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한 자이다(참조, 요13:1).

25. **㉠ 사울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욱 두려워했는가? (30절)**

㉠ (1) 사울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로들을 더욱 두려워했다.

(2) 그래서 그는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도 그 죄에 대한 회개 보다는 백성
들에 대한 자기 위치를 더욱 염려했다.

(3) 즉 사울은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은 위치에 두는 척하는 외식적인 발
언을 통하여 자신의 야욕을 숨겨두었다.

(4)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는 악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
다(참조, 딤후6:5).

(5) 이처럼 경건의 내용이 부실(不實)한 자는 경건의 모양에 신경을 쓴다(참조, 딤후3:5).

26. **㉠ 사울이 재차 애걸하므로 사무엘은 그와 함께 갔다. 여기서 사무엘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1절)**

㉠ (1) 사무엘의 행동은 불의(不義)와의 야합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다.

(2) 그의 일이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는 것이다(32, 33절).

(3) 이것은 오늘날 불의가 팽배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하다(참
조, 마5:16).

27. **㉠ 사무엘이 아각을 살해한 것은 개인적인 보복 행위였는가? (32, 33절)**

㉠ (1) 사무엘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닌 공적인 신분으로서 아각에 대한 형(刑)을 집행하였다.

(2) 즉 이것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일이고, 사울이 하지 못한 것을 사무엘
자신이 대행한 일이었다.

(3) 이렇게하여 여호와와의 제단 앞에서 여호와와의 공의를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 영

광을 돌리게 되었다(비교, 민25:11).

(4) 이러한 특수 환경은 여호와와 권위와 공의를 보여 주는 신정 국가의 유지와 그들의 왕의 범죄에 가담한 백성들에게 책망과 경고를 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였다.

(5) 교회 내에서 치리권(治理權)이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는 오늘날도 사무엘과 같은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 치리권의 정당한 행사는 교회 전체를 살리는 한 방법이다.

28. Q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4, 35절)

A (1) 그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 받은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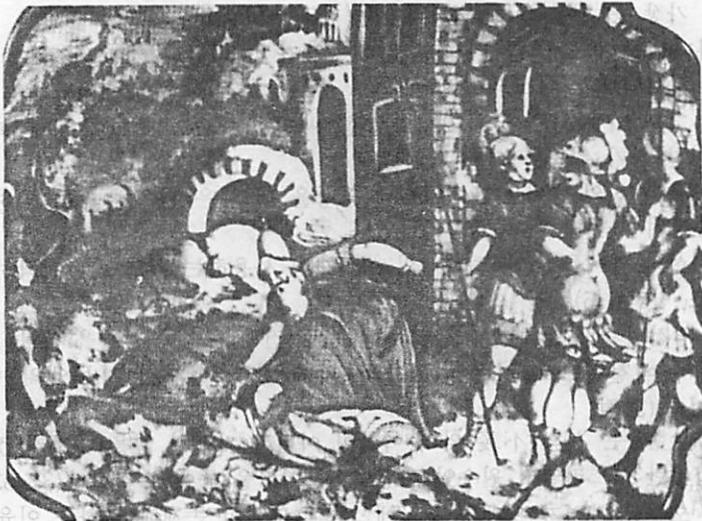
(2)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슬퍼하였다.

(3) 그가 슬퍼한 이유는 그토록 촉망받던 한 지도자가 멸망되는 것과 멸망받게 된 사울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었다.

(4) 이처럼 우리들도 비록 악한 죄인들을 멀리하며 그들과 교제를 단절한다 하더라도 버림 받은 죄인들을 위하여 슬퍼하여야 한다(참조, 렘9:1, 2).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화보자료

아각을 죽이는 사무엘. 아래의 사진은 아각이 죽는 장면을 도자기에 새긴 것으로 16세기경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으며 지금은 루앙 고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여호와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남녀와 아이와 가축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으나 사울은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 놓았으며 더우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 포로로 삼았다(9절). 이에 사무엘은 사울 대신 여호와와의 명령을 수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죽였다(33절).

제 16 장 다윗에게 기름 붓다

단락구분 1-3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다 / 4-10 여호와와의 지시됨, 따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다 / 11-13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붓다 / 14-23 사울이 음악을 듣기 위해 다윗을 부른다

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2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3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 사무엘이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5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쑥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밝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 여호와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15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16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17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18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19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20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21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22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1. ㉠ 본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는가?

㉡ (1) 전장(前章)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본장에서는 사울의 실각에 대해 사무엘이 극도로 슬퍼한 기사가 나와 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슬픔이 비정상적임을 밝히셨다.
- (3) 더우기 당신께서는 사무엘에게 위로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지시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후계자를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명예와 백성을 보호하시며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2. **Q**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해 두신 자는 누구인가? (1-3절)

- A** (1) 베들레헬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1절).
- (2) 즉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이었다(13절).
- (3) 사울은 백성들이 스스로 원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다.
- (4)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자는 그 중심에 진실을 가진 자이다(참조, 시51:6).

3. **Q**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헬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가게 했는가? (1-3절)

- A** (1)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게 하셨다(1절).
- (2) 그 당시 뿔은 잔으로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뿔을 하나씩 준비하여 여행할 때에 샘에서 물을 떠서 갈증을 해소시켰다.
- (3) 사울에게는 병에 채워진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다(10:1). 그것은 그의 왕권이 튼튼하지 못할 것을 예표한 것이다.
- (4) 반면에 다윗에게는 뿔에 담은 기름으로 기름을 부었다. 그것은 사울보다 더욱 풍성하고 든든할 것을 말해 준다.
- (5)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가계(家系)를 통해 구원의 뿔(그리스도)을 세우셨다(눅1:69).

4. **Q**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A** (1)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울의 버림 받음에 대해 것처럼 오래 슬퍼하는 것을 꾸짖으셨다.
- (2) 사무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에 따라야 했고 사울에 대한 슬픈 감정을 잊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 (3) 하나님의 판결은 단호해서 사무엘의 기도와 눈물로는 그 판결을 돌이킬 수 없었다.
- (4)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뜻이 돌이킬 수 없을만큼 결정적인 상황 아래서도 미련과 욕심 때문에 기도와 감정의 줄을 놓지 않을 때가 많다.
- (5) 예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신 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원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눅22:42).

5. **Q**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王政體制)가 무너지는 비운을 맞게 되었는가? (1절)

- A** (1)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지만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았다.
- (2) 즉 하나님께서 한 번 허락하신 왕정 체제로서의 이스라엘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참조, 시89:20; 행13:22)를 준비해 두셨다.
- (3)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주신다.
- (4)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승천하시기 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모든 준비를 해주셨다(요14:1-24).
- (5)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실제적이다.

6. **Q** 사울 외에 또 다른 왕을 세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무엘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알려 주셨는가? (2, 3절)

- A** (1)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번제를 드린다고 하여 그의 계획을 숨기도록 하셨다(2절)

- (2) 하나님은 속임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무엘이 공적 사무로 베들레헴에 가서 기름 부음을 실행할 것을 말씀하셨다.
- (3)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각 집에 제사를 드리려 간다는 것은 조금도 하나님의 법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참조, 11:15).
- (4)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매과정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은 실수하지 않고 가장 완전하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참조, 롬8:6).

7. **㉠**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인해 이새의 가족을 위협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 사실에 대해 말하라(1-13절).

- ㉠** (1)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 (2) 다윗을 기름 부은 것은 아버지인 이새에게도 위협을 안겨 주는 것이었다. 이들은 살기 위해 도망하거나 가족과 더불어 외국 땅으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3) 그 후에 다윗은 그의 양친을 위한 피난처를 찾기도 하였다(22:3, 4).
- (4) 이 같은 일은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나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 (5)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고통 중에서 훈련시킨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참조, 약1:2-4).
- (6)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롬5:3, 4).

8. **㉠** 베들레헴 장로들이 사무엘을 떨며 영접한 이유는 무엇인가? (4,5절)

- ㉠** (1) 그들은 사무엘이 그 고장의 불법과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기 위해 오는 줄 알고 두려워하였다(참조, 7:15, 16; 15:31-33).
- (2)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을 때 그 반작용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참조, 창3:6-10).
-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참조, 요일4:18).
- (4)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의 본질인 죄의 세력을 십자가 위에서 파멸시켰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생활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9. **㉠** 사무엘은 제사를 위해 장로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도록 했는가? (5절)

- ㉠** (1) 장로들에게 각자 자기를 성결케 하여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했다.
- (2) 여기서 '성결케 한다'는 말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한다는 뜻이다.
- (3) 이처럼 엄숙한 임명을 위한 제사가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 (4) 오늘날 우리가 경건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도 우리 자신을 세상의 염려에서 격리시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하도록 성결케 해야 한다.
- (5) 왜냐하면 자신을 성결하게 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마5:8).

10. **㉠**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6-10절)

- ㉠** (1) 사무엘도 다른 육적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외모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비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떠나서 자신의 판단대로 말할 하게 되면(참조, 삼하7:3) 다른 인간들처럼 실수하게 된다.
- (3)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와 속 마음을 별개의 것이라고 경고하셨다(7절). 하나님의 판단은

외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다.

- (4)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각자의 삶의 기준을 그 소유에 두지 말고 존재의 본질인 마음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 (5) 물론 이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한다(참조, 롬12:2).

11. **㉠**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것과 인간이 인간을 보는 것의 차이점을 말하라(7절).

- ㉠** (1) 사람들은 흔히 외모(外貌)에서 그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려 한다.
- (2) 여기서 사람의 외모란 단지 겉모습 뿐 아니라 지위, 재산, 학식, 재능, 미모 등 외모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말한다.
- (3)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즉 인간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도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신다(사 11:3).
- (4)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외적인 면보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더욱 중요시 한다(참조, 마 5:3-12).

12. **㉠**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1-13절)

- ㉠** (1) 다윗은 이새의 막내, 즉 여덟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 (2)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인간의 조건(나이, 빈부, 지위)에 있지 않고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 (3) 또한 다윗은 양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이렇게 하찮은 존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나라 건설을 위해 합당치 않는 자를 폐하시고 합당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천능한 분이시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항상 정결하게 준비해야 한다(참조, 고후4:7).

13. **㉠**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13절)

- ㉠** (1) 다윗의 이 같은 체험은 그가 이제부터는 미천한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갈 자임을 확신케 만들었다.
- (2) 이처럼 성령께서는 당신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전에 소유하지 못한 경험들을 소유하게 하신다.
- (3) 더우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정되었다고 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과 또 마음속으로 은혜의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다(참조, 롬 8:2; 갈 5:16).
- (4) 다윗에게 임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활동하시는 '여호와의 신'은 창조 때에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다(창 1:2).

14. **㉠**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4절)

- ㉠** (1) 사울이 하나님과 그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 (2) 즉 지금까지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전쟁을 할 때 도와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에 게 모든 것을 지시하여 주시던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다는 뜻이다.
- (3) 이처럼 인간이 범죄하여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 활동을 막아버리면 성령은 그를 떠나고 더 이상 그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
- (4)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버린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15. **㉠**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일한가? (14절)

- A** (1)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활동은 선택적이었고, 일시적이었다(참조, 사3:10).
 (2) 반면에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신자들 사이에 보편적이며 영구적이다(요14:16).
 (3)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생한 자에게는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
 (4) 성령은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시고(사61:1)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요16:13).
- 16. C** 여호와와 신이 떠나버린 사울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14절)
- A** (1) '여호와와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2) 여기서 악신(惡神)은 악령(惡靈) 곧 사단을 가리킨다.
 (3) 이 사단은 왕상22:20-23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기 위해 사용하신 악령이다.
 (4) 이러한 악령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자를 찾아가 괴롭힌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음이 번뇌케 되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고야 만다.
- 17. C**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신'을 친히 부리신다는 것은 당신의 거룩성과 모순되는 일이 아닌가? (14절)
- A** (1) 다른 일반 종교에는 대개 선·악 이원론이 보편적 교리이다.
 (2)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기초로 한 히브리 사상에서는 선·악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3)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악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다.
 (4)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의지와는 반대되는 것도 주권적 섭리의 일부로 허용하셨다(참조, 욥1:6,7).
 (5) 그러므로 인간은 의지를 가진 구체적 인격으로 선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 18. C**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의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추천했는가? (15-23절)
- A** (1) 사울의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하였다(16절).
 (2) 그러나 사울의 질병은 여호와와 부리신 악령이 그를 괴롭힌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충성된 신하들이었다면 사울에게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했을 것이다.
 (3)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지금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신이 다시 사울의 생활을 지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오늘날 신유의 은사를 부르짖는 자들 중에는 사울의 신하들처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회개하기를 권하기 보다는 순간의 쾌유를 위해 잘못된 방법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
 (5) 죄의 고백과 아울러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약5:14-16).
- 19. C**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할 때 다윗의 신상 파악을 어떻게 하였는가? (18절)
- A** (1) 탁월한 음악인
 (2) 호기(豪氣)가 있는 사람(대장부)
 (3) 무용(武勇)이 있는 사람(용감한 자)
 (4) 구변(口辯)이 있는 사람(웅변가)
 (5) 준수한 사람(美男)
 (6)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사람
 (7) 이처럼 다윗에게는 기쁨으로 표상화된 성령의 활동을 숨길 수가 없었으며, 은근한 광채를 발함으로 그의 모든 이웃들이 그의 심령과 외모가 가진 급진적인 변화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20. ㉠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풀려간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 (1)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수금(瑟琴)을 통해 사울의 마음을 감화시켰기 때문이다.
 (2) 아마 이때에 다윗이 부른 노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경건한 노래였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사울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더라도(14절)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고통이 경감될 수 있었다.
 (4) 한편 이 같은 일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에게 종종 있었던 일이다(참조, 10:5; 왕하3:15).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영혼을 진정시키게 만들고 사단의 장난을 막아 주는 큰 힘이 된다.
 (6)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성도들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느8:10; 시18:1).

연구자료

여호와와 신과 여호와와의 부리신 악신(惡神). 본장에는 여호와와 신(神)과 여호와와의 부리신 악신이 활동하는 기록이 나와 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으며 왕이었던 사울은 여호와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였던 것이다(13-15절). 여호와와의 신이란 성령을 말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겐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임하셨으며(참조, 단 4:8; 5:11-14) 그들의 사역이 끝나면 성령은 떠나가셨다(참조, 시 51:11).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셨고 그 후에는 결코 성도들로부터 떠나지 않으셔서 성도들이 바른 길로 살아가게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요 16:12-15; 롬 8:14). 또 본장에서 사울을 번뇌케 했다고 기록된 여호와와의 부리신 악신은 사단을 가리킨다.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조종하시는 분이 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약 1:41). 여기에서 악신을 여호와께서 부리셨다는 표현은 단지 사단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이다(참조, 욕 1:6, 7; 벰전 5:8).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사단의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여호와와의 신이 떠난 후에야 악신이 사울의 마음을 번뇌시켰으며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는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신은 사울에게서 떠나갔다고 했는데(23절) 이는 여호와와의 신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 주는 좋은 사건이다.

제 17 장 다윗이 골리앗을 쳐죽이다

단락구분 1-3 블레셋의 내습과 이스라엘의 대진(對陣) / 4-11 골리앗의 도전 / 12-30 다윗이 골리앗의 도전에 분개하다 / 31-40 다윗이 왕과 회견한 후 출전(出戰)하다 / 41-54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다 / 55-58 사울이 다윗의 신상(身上)을 묻다

1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 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밈에 진치매

2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향오를 벌였으니

3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4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돌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5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오천 세겔이며

6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7 그 창 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8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향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0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2 다윗은 유다 베들레헬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13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 삼은 삼마며

14 다윗은 말째라 장성한 삼인은 사울을 좃갔고

15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헬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16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 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17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볍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18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 오라

19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20 다윗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21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향오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22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23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돌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향오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24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5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26 다윗이 결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7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28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

는 몇 양을 낚게 말겠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29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30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31 혹은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3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4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기면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8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킨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41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42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음이라

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로를 향하여 빨리 달려며

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 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53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54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 가고 감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55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이 소년이 낚 아들이나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며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다 하며

56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57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58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며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준비한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그를 전쟁터로 인도하셨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리신 사울의 때가 다 된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 (3) 다윗은 사울의 궁전에서 한갓 악사(樂士)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
- (4) 그러므로 본장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주된 관심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기사(記事)가 아니고, 다윗의 성숙한 왕직 수행 과정을 보여 주는 데 있다.

2. ㉠ 블레셋 군대가 유다 지방에 속한 소고까지 침입한 행동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1-3절)

- ㉠ (1) 블레셋 군대가 소고까지 침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우습게 안 교만한 처사였다.
- (2)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사무엘과 사울)의 불화와 사울의 정신 질환(16:14)에 대한 소식을 듣고 침략의 기회로 삼았을 것이다.
- (3) 이처럼 악의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 속에 불화와 혼돈을 기회로 삼아 침입해 들어온다.
- (4) 그러므로 교회는 평화를 깨뜨리는 불화의 요소를 제거해야 하며(참조, 롬 12:18) 성도 개개인도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벧전 5:8; 계 16:15).

3. ㉠ 본장에 기록된 골리앗의 신상(身上)에 대하여 말하라(4-7절).

- ㉠ (1) 그는 블레셋 군대에서 싸움을 돌우는 자(군대 장관)로서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 사람이었다(4절).
- (2) 그는 키가 여섯 규빗 한 뼘, 즉 약 2m93cm(1규빗은 약 45cm이고 한 뼘은 약 23cm)이나 되는 큰 사람이었다.
- (3) 그는 머리에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약 57kg이나 되는 어린갑(갑옷의 일종으로 쇠붙이를 물고기 비늘같이 엮은 갑옷)을 입었다.
- (4) 그가 든 베틀채 같은 창자루는 견고하고 무거웠으며 단창의 창날만도 6.8kg쯤 되었다.
- (5) 이처럼 강력한 무기와 훌륭한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49절).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공통적으로 겪는 허무함이다.

4. ㉠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자기를 어떤 자라고 소개했는가? (8절)

- ㉠ (1)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 (2) 이 말은 이스라엘을 멸시한 것이며 자기가 블레셋을 대표하는 인물이란 뜻이다.
- (3) 이처럼 그는 자신의 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였다.
- (4) 그러나 성경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참조, 사 2:22; 약 4:14).

5. ㉠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 무엇이라 했는가? (8절)

- ㉠ (1) '사울의 신복(臣僕)'이라 했다.
- (2)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울의 종이라는 뜻이다.
- (3) 이것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10절).
- (4) 이러한 교만은 결국 비참할 뿐이다(참조, 참 16:18).
- (5)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하신다(참조, 약 4:6).

6. ㉠ 골리앗의 호언 장담(豪言壯談)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11절)

- ㉠ (1) 그들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11절).

- (2)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신 32:30) 만 의지하고 즉각 싸움에 임했다.
- (3)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적군의 수자와 외모에 압도당하여 떨고 있다.
- (4) 이처럼 불신은 맹목적이고 나약하며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참조, 마 8:26).
- (5) 신자들이 위협에 처했을 때에 크게 놀라는 것은 비상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믿음이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6)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謹慎) 하는 마음이다(딤후 1:7).

7. **㉠** 이새의 아들은 모두 몇 명이었는가? (12-15절)

- ㉠** (1) 모두 여덟 아들이 있었다(12절).
- (2)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이새의 아들을 7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대상 2:13-15).
- (3)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기자가 역대기 그 죽은 아들을 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 **㉠**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15절)

- ㉠** (1) 다윗이 사울을 섬기며 수금(豎琴)을 타기 위해 왕궁에 왕래하였다는 뜻이다(16:23).
- (2) 즉 그는 사울의 궁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돕기 위해 자주 집을 찾았다.
- (3) 왜냐하면 그의 형들 중에 세 명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3절).
- (4) 이것은 그의 겸손함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이다.
- (5) 이와 같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잠 15:33).

9. **㉠** 이새는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증표를 가져오도록' 했는가? (17, 18절)

- ㉠** (1) 전장(戰場)에 나가 있는 아들들(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생사(生死)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 (2) 아들들의 생명에 대한 이새의 이 같은 관심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비유된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 (4) 또한 다윗의 손에 들려 갔던 육(肉)의 양식에 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영(靈)의 양식 곧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참조, 요 6:35).
-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요 3:16).

10. **㉠**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전장으로 떠나기 전에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20절)

- ㉠** (1) 자신이 치던 양들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 (2) 이처럼 그는 작은 일에도 성실하였다.
- (3) 성도들 중에는 흔히 교회의 일을 핑계삼아 집안 일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 소유자가 아니다.
- (4)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바른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하신다.
-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능히 충성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마 25:21).

11. **㉠**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 했는가? (26절)

- ㉠** (1)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했다.
- (2) 요나단처럼(14:6) 다윗도 블레셋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없는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

었다.

- (3) 또한 다윗이 더욱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의 신은 생명 없는 우상이지만 여호와는 활동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증거하는 '사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사심을 확신하는 자는 비록 모든 백성이 실망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24절)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는다(참조, 롬 8:35-39).
- (5) 즉 신앙은 모든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참조, 빌 4:13).

12. **㉠** 사울은 적장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기로 약속하였는가? (25, 27절).

- ㉠** (1) 많은 재물로, 부(富)하게 해주며 또한 왕의 딸을 그에게 준다고 약속했다.
- (2) 그리고 그 아비를 납세에서 면제시키고 그 아들과 딸들을 국방과 궁정과 기타 다른 의무에서 자유하게 한다고 약속했다.
- (3) 만약 이스라엘 중에 훌륭한 체격을 가지고 있던(9:2)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골리앗의 내전 도전에(8, 9절) 기꺼이 응했을 것이다.
- (4)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은 감히 도전에 응할 수 없었고, 대신 위와 같은 3가지 보상을 내걸었다.
- (5) 이처럼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자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이다.

13. **㉠** 다윗은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책망하는 형 엘리압의 말을 듣고 무엇이냐 대답했는가? (28-30절)

- ㉠** (1)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였다(29절).
- (2) 즉 '내가 형님에게 화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의 도전으로 이스라엘의 병에 가 이처럼 손상을 받았는데, 내가 분개할 만한 이유가 없으리이까' 라고 다윗은 정당한 이유를 밝혔다.
- (3)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정복하고 정당한 사유를 밝힌 다음 형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렸다.
- (4) 참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나은 자'이다(잠 16:32).

14. **㉠** 다윗은 사울 앞에 불려갔을 때 사울을 무슨 말로 위로하였는가? (31, 32절)

- ㉠** (1) '골리앗으로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하였다(32절).
- (2) 그날 아침까지도 양을 치던 어린 복동이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보다도 용기가 있었으며,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의 약하고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신다(참조, 고전 1:27).

15. **㉠** 전쟁에 참여하려던 다윗이 사울의 거부로 출전(出戰)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가 장담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33-37절)

- ㉠** (1)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새끼 양들을 훔쳐가는 사자나 곰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34-36절).
- (2) 이로 미루어 보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했다(36, 37절).
- (3)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變改)함이 없으시기' (15:29)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도와 줄 것을 확신했다.
- (4) 바다 물결의 한계를 구고(출 15:21-31), 사나운 짐승의 위협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악인의 침략을 능히 꺾으실 것이다.
- (5) 바울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전지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확신했을 때(딤후 4:17, 18)에 아마 다윗을 생각했을 것이다.
- (6)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힘이 되신다(참조, 시 18:1).

16. **㉠** 사울은 다윗의 출전을 허락하고 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37-40절)
㉠ (1) 사울은 자기의 '군복'과 '눗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주어 착용하게 했다(38절).
 (2)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목동으로 있을 때처럼 매끄러운 돌 다섯만을 가져올 뿐이었다(40절).
 (3)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신앙에서 유래된 것이다.
 (4)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조건에 기대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삶의 자세야말로 가장 안전하다(참조, 롬8:6).
17. **㉠**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간 다윗의 무기는 무엇인가? (41-45절)
㉠ (1) 그는 먼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45절).
 (2)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과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40절).
 (3) 그는 이처럼 용기와 신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
 (4) 이와 같이 전적으로 여호와만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 속한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의 무기는 결코 육체가 될 수 없고(참조, 엡6:10-20)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
18. **㉠**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골리앗에게 담대히 도전할 수 있었는가? (45-47절)
㉠ (1)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였다(45절).
 (2) 또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신앙으로 담대할 수 있었다(46절).
 (3) 그리고 '은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도록 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했다(46절).
 (4) 이것은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47절).
19. **㉠**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46, 47절)
㉠ (1)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는 것은 여호와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온 나라에 전파하려는데 있다(46절).
 (2) 이처럼 성도들의 삶에서도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참조, 고전10:31).
 (3) 또한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려 했다.
 (4)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출3:14)로서 인류의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밝히고자 했다.
 (5) 이와 같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예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밝히는데 있어야 한다.
20. **㉠**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가? (48, 49절)
㉠ (1) 자신이 미리 준비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그를 넘어 뜨렸다(49절).
 (2) 그 당시 '물매'는 전쟁터에서 무기로 이용하기도 했다(삿20:16).
 (3) 이러한 물맷돌의 승리는 비록 미약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확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참조, 단2:34, 35).
 (4)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당신의 권능으로 물리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는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참조, 마21:44; 고전10:4; 엡6:11; 벰전2:4).
21. **㉠** 블레셋 군대가 전면적으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50-54절)
㉠ (1) 그들은 골리앗의 죽음으로 인하여(51절) 싸울 만한 기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항할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 (2) 즉 그들은 자신들의 장수(골리앗)에게 지나친 의존을 하고 있었다.
 (3) 그러므로 그들의 패배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그 인간과 함께 멸망하기 때문이다(참조, 렘 17:5).
 (4) 하나님은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사 2:22).

22. Q 사울이 일찍부터 다윗의 내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16:18-22;17:15) 새삼스럽게 그의 신상을 파악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55-58절)

- A** (1)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이 같은 관심의 표명은 그의 용감한 행동에 놀라서 그의 가문의 내력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2) 또한 그 승리에 대하여 다윗에게 상금을 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것이다.
 (3)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참조, 시 89:19-22).
 (4) 즉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참패를 당하였고(51, 52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역사에 길이 남을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49, 50절).
 (5) 그러므로 성도들이 의지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화보자료

청동으로 만든 창. 옆의 사진은 청동으로 만든 창으로서 B. C. 2000년 대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메르(Sumer)인들의 유적지인 텔로(Telloh)에서 출토되어 지금은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골리앗은 머리에 뿔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창날만의 무게가 6.8kg이나 되는 단창을 드는 등 중무장을 하였지만(5-7절),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다윗 앞에서는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49, 50절).

제 18 장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단락구분 1-4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言約) / 5-9 다윗의 명성을 시기하는 사울 / 10-16 사울이 발작 중에 다윗에게 창을 던지다 / 17-27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려고 딸을 주다 / 28-30 다윗의 준커로 인하여 사울이 그를 대적으로 삼다

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2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5 다윗이 사울의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은 백성이 함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함당히 여겼더라

6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8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9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고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12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17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18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 관대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19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므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20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흑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1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율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2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게 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23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이리라 한지라

24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25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폐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26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27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8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
 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궁
 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30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
 을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
 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
 니라

1. **㉠ 본장의 중심되는 내용을 말하라.**

- ㉠** (1) 18-20장은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섬긴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다윗과 요나단의
 질은 우정에 그 촛점을 맞추고 있다.
 (2) 다윗과 요나단 간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 관계를 17:55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다.
 (3) 그러므로 17장의 마지막 4절은 본장에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4)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향상되는 반면에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심은 격증되어 다윗
 에게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점점 악화되었다.
 (5) 사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이와 같은 행동은 계속되었다.
 (6)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는 것과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것과는 너무 큰 대조를 이룬다. 다
 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다.

2. **㉠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관계는 어떠한가? (1-4절)**

- ㉠** (1) 이들의 우정은 여호와 앞에서 되어드는 한 형태의 교제 관계이다.
 (2) 여기서 양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수락하였다. 즉 혈연 관계 이상으로 그
 우정을 발전시켰다(2절; 잠 18:24).
 (3) 이로써 한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다른편 사람의 인격 속에 확장되어 그 사람의 인격을
 공유하게 되었다.
 (4) 이렇게 이들의 사랑은 전혀 이기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순수하고 정상적이며 진정한 사
 랑으로 모든 우정 관계의 모범이 되었다.

3. **㉠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어느 정도였는가? (1-4절)**

- ㉠** (1)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1절).
 (2) 여기서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쉬>는 '영혼'을 의미한다.
 (3)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였으며 자신의 생명과 동일한 위치에
 상대방을 두었다(요 15:13-15).
 (4) 더우기 요나단은 자신의 겂옷과 군장(軍裝)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우정을 다짐
 하는 강한 표현이다.
 (5) 이처럼 우리 주께서도 자기의 옷을 벗어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
 해 자신을 가난하게 하신 그런 사랑을 보여 주셨다(고후 8:9).

4. **㉠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言約)은 그 성격상 어떤 것인가? (3절)**

- ㉠** (1) 이 언약은 사랑에 기초한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2) 이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차간에 진실하고 신의를 지키자는 엄숙한 서약을 양자
 사이에 갖게 된 것이다.
 (3) 오늘날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이런 우정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참조, 요 15:13, 14).
 (4) 비록 우리들이 범죄하여 이 언약을 깨뜨릴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게 이 언약을
 계속 준수하신다(참조, 요 13:1).

5. **㉠ 다윗이 매사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5절)**

- ㉠** (1)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14절; 16:13).
 (2) 성령께서는 우리의 길을 밝히시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신다(참조, 요 14:17, 26).
 (3)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다윗을 '은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합당

히 여겼다.' 즉 다윗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자로 여겨졌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승패(勝敗)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다고 할 수 있다(참조, 롬8:9-11).

6. ㉠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무엇이랴 노래하였는가? (6, 7절)

- ㉠ (1)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였다(7절).
- (2) 여기서 '천천'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으로 '그의 천 명'이라는 말이며 '만만'은 '그의 만 명'이라는 뜻이다.
- (3) 즉 사울이 죽인 자들은 몇 천 명에 불과하고 다윗이 죽인 자들은 몇 만 명으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의미로서 다윗의 용맹이 사울보다 뛰어나다는 말이다.
- (4) 이처럼 백성들은 지도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
- (5) 백성들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훌륭한 지도자이다.

7. ㉠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8, 9절)

- ㉠ (1) 사울이 의심과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뜻이다.
- (2) 즉 사울은 다윗이 모반(謀叛) 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존경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시기한 것이다.
- (3) 사울 자신이 비정상적일 만큼 정치욕에 휩싸여 자신보다 인기가 높은 자를 시기하게 되었다.
- (4) 이처럼 남이 잘되는 것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으로는 용납되지 않는다.
- (5)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기는 상대방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참조, 잠14:30).

8. ㉠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은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9-11절)

- ㉠ (1) 그는 악신(惡神) 곧 사단에게 붙잡힌 자가 되었다(10절).
- (2) 그래서 그는 마치 미칠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10절).
- (3) 이때에 다윗은 수금 연주로 그를 안정시키고자 했으나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11절).
- (4)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치유를 위해 애쓰는 자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다.
- (5) 이러한 인격은 사람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당한다(참조, 잠 16:18).

9. ㉠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12-16절)

- ㉠ (1) 다윗을 두려워하던 사울은 결국 다윗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천부장 곧 천 명을 거느리는 군 지휘관으로 그를 감동시켰다.
- (2) 그러나 다윗은 쫓겨난 그 위치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했으므로 온 이스라엘의 존경 신임을 받았다(14-16절).
- (3) 사울은 이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였다(15절).
- (4)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게 되었다(참조, 신 28:2-6).
- (5)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지 않았던 사울의 삶에는 두려움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참조, 요일 4:18).

10. ㉠ 사울은 다윗에게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블레셋과의 모든 싸움을 도맡아 싸우게 했는가? (17-21절)

- ㉠ (1) 사울은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싸우게 했다(17절).

- (2) 그러나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그의 딸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다(17:25).
 (3) 그러므로 사울이 딸을 주겠다는 조건은 순수한 약속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7).
 (4) 여기서 나타나는 사울의 인간상은 부분적으로는 총명하지만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경쟁자를 용납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5) 예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고 살인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경고하셨다(참조, 마5:21, 22; 요일 3:15).

11. ㉠ 사울의 계속되는 거짓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17-24절)

- ㉠ (1) 다윗은 사울의 거듭되는 약속 불이행(不履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겸손한 위치에 두었다(18, 23절).
 (2) 즉 불평과 불만 대신에 현재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아는 자였다.
 (3) 이처럼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참조, 잠3:34; 16:19; 29:23).
 (4)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하다(참조, 롬13:7).

12. ㉠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20-27절)

- ㉠ (1) 블레셋 사람의 양피(남성 생식기 끝 부분의 표피) 100개를 요구하였다(25절).
 (2) 여기서 양피 100개란 블레셋 남자 100명의 생명을 앗았다는 사실적 근거가 된다.
 (3) 그러므로 사울이 이 같은 조건을 내어건 것은 블레셋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것보다는 다윗을 죽이려는 흉계에 불과한 것이다.
 (4) 그러나 다윗은 200명 분의 양피를 기간 내에 가져 옴으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다(26, 27절).
 (5) 이처럼 부당한 상황 아래서도 자신의 위치를 흐트리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 주신다(참조, 히10:36).
 (6) 인내란 소극적으로는 참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을 말한다(약1:4).

13. ㉠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8, 29절)

- ㉠ (1)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기 때문이다(28절).
 (2) 이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로 부각된다(참조, 단3:19-30; 히11:38).
 (3) 이런 이유에서 불신의 세계가 아무리 성도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고 명하셨다(요16:33).
 (5) 또 딸 미갈이 사울 자신을 위하기 보다 다윗을 사랑하였으므로 두려워하게 되었다(28절).
 (6) 이와 같이 악인의 음모는 오히려 자신에게 거침들이 되고 만다(참조, 잠29:6).

14. ㉠ 다윗의 혼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7-29절)

- ㉠ (1) 사울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곤경에 처한 나라를 구한 다윗을 해치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종으로 여기고 항상 존경하였다.
 (2) 그 결과 사울은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 받는 자가 되었다.
 (3) 이처럼 악인은 좇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는 항상 담대하다(잠28:1).
 (4)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약4:6).

제 19장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다

단락구분 1-3 요나단이 사울의 암살 음모를 다윗에게 알려 주다 / 4-7 사울에게 화해를 권하는 요나단 / 8-17 악신(惡神)에 점한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다 / 18-21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하다 / 22-24 예언하는 사울

1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2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4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6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7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8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와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11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 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13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14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15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16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17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18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뭇으로 가서 거하였더라

19 흑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뭇에 있더이다 하매

20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1 흑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2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흑이 가로되 라마 나뭇에 있나이다

23 사울이 라마 나뭇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뭇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24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1. **㉠** 본장과 다음 장의 차이점을 논하라.

㉠ (1) 19,20장은 사건 전개가 비슷하다.

(2) 그러나 이 두 장은 분명히 별개의 사건으로 사울의 질투가 극심하다는 것과 다윗의 고난에 대해 다양하게 말해 주고 있다.

(3)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으며, 다윗은 네 번씩이나 사울의 위협에서 피해야 했다.

(4) 본장에는 이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를 잘 피했던 기사가 네 번 언급되었다(1-7, 8-10, 11-17, 18-24 절).

(5)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참조, 롬 11:29).

(6) 특히 본장에서는 요나단의 중재가 돋보인다.

2. **㉠**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절)

㉠ (1) 사울은 다윗을 은근히 제거하려던 계획(18:17, 25)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공공연히 다윗을 적인으로 몰아 붙여 죽이도록 명하였다.

(2) 이처럼 악이 생기는 과정은 속에서부터 시작하여 겉으로 드러난다(참조, 약 1:15). 즉 고의적인 모든 살인, 도둑질, 간음 행위, 사기,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 등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3) 왜냐하면 죄가 의지의 주관을 나약하게 하여 공개적인 범죄 행위를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참조, 롬 7:17-19).

(4) 이렇게 하여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참조, 벧후 2:18, 19).

(5) 그러므로 성도는 죄가 더 이상 주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깨끗한 양심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참조, 시 139:23; 롬 6:14).

3. **㉠**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다'는 말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가? (1-3절)

㉠ (1) 이것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2) 사실 다윗이 살아 있게 되면 요나단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어렵게 된다.

(3) 그러나 참된 우정은 친구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으며,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품지 않는다(참조, 롬 12:10).

(4) 바울은 참된 우정의 근본을 사랑에 두고 있다(참조, 고전 13:1-13).

4. **㉠**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사울에게 설득한 내용은 무엇인가? (3-7절)

㉠ (1) 다윗의 행한 일은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선한 일이고, 다윗은 사심(邪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4, 5절).

(2) 또한 이스라엘을 구한 은인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득죄하는 행위이므로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설득했다(5절).

(3) 결국 요나단의 중재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잠정적인 휴전을 가져오게 하였다(6, 7절).

(4) 이 요나단의 중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5) 즉 그리스도께서는 왕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옹호하면서 둘 사이에 평화를 조성하셨다(참조, 히 9:15; 요일 4:10).

5. **㉠** 요나단의 중재(仲裁) 활동은 무엇을 근거로 취해진 행동인가? (1-7절)

㉠ (1) 이것은 부차(父子)간의 정에 끌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에 입각하여 취해진 것이다.

(2) 정의로운 판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참조, 왕상 3:6-13).

(3) 또한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4) 즉 요나단의 충고 가운데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란 말이나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라는 말은 그러한 행동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라는 말

이다(4, 5절).

(5) 이와 같이 정(情)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정의를 실행할 수 있다(참조, 잠 3:7; 25:26).

6. **㉠** 사울을 향한 요나단의 설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나단의 신앙 인격은 어떠한가? (1-7절)

- ㉠** (1) 요나단은 왕의 명령에 도전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의에 대한 의로운 항변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즉 그는 죄를 바로 지적하는 참다운 용기의 소유자였다.
 (3) 이 같은 의로운 용기는 불의에 진리가 침식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참조, 마5:13).
 (4) 또한 그의 말은 분노섞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말이었다(참조, 잠15:1).
 (5)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인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올바른 신앙인이었다. 즉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범죄치 말 것을 권고하였다(4, 5절).

7. **㉠** 사울이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8-10절)

- ㉠** (1) 다윗의 계속적인 승리가 사울로 하여금 질투를 폭발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사실상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사울의 생명을 구한 일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인간 이하의 행동이다(참조, 잠 17:13).
 (4)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친히 방패가 되셔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10절; 시 18:2; 91:2).
 (5)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죽음의 위협까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완전한 방어책이다(참조, 엡6:16).

8. **㉠** 다윗의 아내 미갈은 남편의 목숨을 어떻게 구해 주었는가? (11-17절)

- ㉠** (1) 미갈은 남편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밤 중에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 내려 도망하게 한 것이다(11, 12절).
 (2)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안식처를 모두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었다.
 (3) 이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참조, 시 16:1).
 (4) 후일에 다윗은 이 일을 기억하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고 고백하였다(시 27:10).

9. **㉠** 미갈은 다윗을 위해 침상에 다윗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두었는가? (13-17절)

- ㉠** (1) 염소털로 머리를 치장하고 의복을 입힌 우상(偶像)을 두었다(13절).
 (2) 여기서 '우상'은 히브리어 <드라빔>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되던 가정의 수호신을 말한다(참조, 창31:19).
 (3) 이것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그 크기는 대부분 소형이나(창31:34) 등신상(等身像) 정도의 것도 있었다.
 (4) 이 기록으로 볼 때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집안에서도 우상 숭배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미갈의 이와 같은 속임수(13절)와 거짓말(17절)은 조금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목적이 선하면 방법에 있어서도 선해야 되기 때문이다.

10. **㉠**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였는가? (18, 19절)

- ㉠** (1) 사무엘의 고향인(1:1) 라마에 있는 나웃에 피하였다.
 (2) 여기서 '나웃'은 지명(地名)이 아니라 '처소'를 의미하는데 갈대아 역에는 '기숙사'

로 번역되었다.

- (3) 즉 이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의 제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세운 기숙사를 말하며 그의 제자들을 '선지자의 무리' 라고 불렀다(20절).
- (4)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이라 일컬어지는 성도들 역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참조, 롬12:13).
- (5)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경건 생활은 바로 사랑이 절대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공급할 줄 아는 것이다(참조, 약1:27).

11. **㉠** 다윗은 '라마 나옏' 까지 추적해 온 사울과 그 무리들을 피하여 어떻게 목숨을 보호할 수 있었는가? (20-24절)

- ㉠** (1) 다윗은 그곳에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한 예언으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
 (2)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3번이나 사자(使者) 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예언하게 되었다.
 (3) 즉 사울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영(성령)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4) 사울의 사자들이 선지자 무리에 합했고 예언까지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 다윗을 체포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5)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그곳에 갔으나 그도 역시 예언하였다(23절).
 (6) 이처럼 성령의 능력은 어떤 악의 세력도 무마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이다(참조, 고후10:4, 5).
 (7)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육체를 그 무기로 삼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참조, 엡6:10, 11).

12. **㉠**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가? (23, 24절)

- ㉠** (1) 먼저 예언을 하였다(23절).
 (2) 두번째로 옷을 벗었다(24절).
 (3) 마지막으로 사무엘 앞에서 종일 누워 있었다(24절).
 (4) 이 모든 행동은 사울 자신의 의지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하심에 의한 것이다.
 (5)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불문하고 그 삶을 지배하시는 전능한 분이시다(참조, 창49:24; 시132:2, 5).

13. **㉠** 사울이 '옷을 벗었다' 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행동인가? (24절)

- ㉠** (1)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끈고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즉 '옷을 벗었다' 는 것은 반드시 나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거의 나체에 가까울 정도로 옷을 벗고 있었다는 말이다(참조, 사20:2; 미1:8).

14. **㉠** 사울이 사무엘앞에 '누웠었더라' 는 말은 무슨 뜻인가? (24절)

- ㉠** (1) 이 말은 문자적으로 '떨어졌다' 는 뜻으로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최고로 낮아진 모습을 가리킨다.
 (2) 이처럼 예언하며 자신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취한 사울의 모습에 사람들은 그가 진정한 선지자냐? 고 수군거렸다(참조, 10:12).
 (3)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은 자로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자였다.
 (4) 오늘날도 이처럼 조그마한 은사를 들먹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하는 무리들을 볼 수 있다.
 (5)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 전체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데 정열을 쏟는다(참조, 롬15:1-3; 고전10:31).

제 20 장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다

단락구분 1-11 다윗의 안전을 위한 요나단의 협조 / 12-23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로써 언약을 새롭게 하다 / 24-34 다윗을 놓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 하다 / 35-42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어린 작별

1 다윗이 라마 나뭇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 관대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2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3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와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4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5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 삼 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6 네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물거든 그 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7 그의 말이 좋다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8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케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인뇨

9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10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11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 때에 내 부친을 살피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13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와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16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어다 하니라

17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18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네 자리가 비므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19 너는 사물을 있다가 빨리 내려 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20 내가 과녁을 쏘려 함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쏘고

21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이편에 있으니 가져 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오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 할 것이요

22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앞편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23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24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25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26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녕히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27 이튿날 곧 달의 제 이 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28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29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 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30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발하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별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1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32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34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 이 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라

35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36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37 아이가 요나단의 손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네 앞편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38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달음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39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40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41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피차 임마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1. ㉠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우정에 대해서 논하라.

- ㉠ (1) 다윗은 그의 위험한 상태가 몹시 근심되어 요나단과 의논하였다. 잔인한 환경이 이렇게 두 젊은이의 참된 우정을 빚어내었다.
- (2) 이 우정은 이기적인 관심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즉 상호간의 보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 운명체의 한 형태이다(참조, 갈6:2).
- (3)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바탕으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끼리 아름답게 가져야 한다(참조, 시133:1; 골2:2).

2. ㉡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숨김없이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11절)

- ㉡ (1) 다윗이 요나단을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였기 때문이다(참조, 18:3).
- (2) 요나단은 다윗에게 진실한 친구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자였다(18:3; 20:7; 삼하1:26).
- (3) 요나단은 다윗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의 권리와 생명을 존중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4)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참으로 '위급한 때를 위해 난 형제'였다(잠17:17).

(5)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려움을 숨김없이 말하고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요16:23, 24).

3. **㉠** 다윗이 자기 결백을 위해서 요나단에게 했던 3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1절)

㉠ (1) 첫째,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이다.

(2) 둘째, '내 죄악이 무엇인가?'이다.

(3) 셋째,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관대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이다.

(4) 이와 같은 질문은 다윗 자신이 얼마나 결백한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5)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양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참조, 딤후1:5).

4. **㉠** 다윗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3절)

㉠ (1) 이것은 자기의 생명이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다.

(2)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참조, 시18:4-6).

(3)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 살 길을 모색했다.

(4)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더불어 인간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다.

(5)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적(靜的)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탐구를 말한다.

(6)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체 아래 이뤄진다.

5. **㉠**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결심을 알고, 요나단에게 무엇을 간청했는가? (3-8절)

㉠ (1) 먼저 3일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5절).

(2) 두번째로 왕의 식탁에 동석치 못하므로 왕이 묻는 경우에 그가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대답해 달라고 하였다(6절).

(3) '내가 너의 아버지 사울에게 범죄한 것이 있거든 내가 직접 나를 죽여라'고 말하였다(7, 8절).

(4) 이와 같은 구체적인 간청에 대해서 요나단은 패히 승낙했다.

(5)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이처럼 구체적인 자기 사정을 아뢰어야 한다. 즉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참조, 눅18:13).

6. **㉠** 다윗의 간청에 대한 요나단의 응답은 무엇인가? (9-13절)

㉠ (1) 요나단은 '아버지가 너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너에게 알려 주겠다'고 했다(4, 9절).

(2) 이러한 조치는 다윗의 생명을 위한 일이다.

(3) 그러므로 요나단은 자기가 사울의 악한 계획을 다윗에게 알리지 않아 다윗을 곤경에 빠뜨린다면 자신은 여호와와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13절).

(4) 여기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모신 참된 신앙인임을 알 수 있다.

(5)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하다(참조, 롬14:18).

7. **㉠**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게 될 것을 내다보았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13-17절)

㉠ (1) 먼저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13절).

(2) 두번째로 여호와와의 인자로 자기를 대접해 주기를 원했던 사실이다(14절).

(3) 세번째로 자기의 가정에 영영히 인자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던 사실이다(15절).

(4) 끝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기를 간구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16절).

(5)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요나단은 자신에게는 이스라엘 왕권에 대한 조그마한 욕심도 없음을 밝혔다.

- (6) 참된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전13:5).
8. **㉠** 다윗에게 도움을 간청했던 요나단의 인격은 어떠하였는가? (13-17절)
- ㉠** (1) 그는 차기(次期)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겸손하였다.
 (2) 즉 그는 자신의 위치를 다윗 아래에 두었다.
 (3) 이러한 그의 겸손과 친절은 인간적인 의리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였다(13-16절).
 (4)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이다(참조, 잠 22:4).
9. **㉠** '월삭' (月朔)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8절)
- ㉠** (1) 월삭이란 성경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즉 매월의 축제(the new moon), 연대기적 시간으로서의 달(month), 월삭과 월삭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
 (2) 이 월삭은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다(참조, 왕하4:23; 사66:23; 암8:5).
 (3)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성회)의 논리적 연속성은 흔히 종교적 규정을 요약하는데 사용되었다(참조, 대상23:31; 대하2:4; 8:13; 31:3; 느 10:33).
 (4) 그러나 월삭을 지키는 관례는 농경 생활의 기본적인 주기 순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안식일에 의존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5) 전통적으로 월삭이 있을 때 그 지방의 축제가 열리고 아울러 종교 의식이 거행되었다.
 (6) 이러한 월삭 때에 다윗이 사울의 식탁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다윗이 의식상 부정했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26절).
10. **㉠** 사울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다윗과 요나단이 정했던 암호는 무엇인가? (18-23절)
- ㉠** (1) 화살 셋의 위치에 따라 안전과 위험의 신호를 정하였다.
 (2) 요나단이 이런 방법을 정한 것은 다윗의 신변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에서였다.
 (3) 이처럼 사랑을 표현할 때는 구체적이어야 한다(참조, 약2:14-16).
 (4)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다.
 (5)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참조, 요이1:6).
11. **㉠** 월삭 첫날 다윗이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울은 무엇이라 단정했는가? (24-26절)
- ㉠** (1) 사울은 다윗이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不淨)했으므로 연회에 참석치 않은 것으로 보았다(26절).
 (2)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의식적(儀式的)으로 더럽혀져 축제 식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참조, 레 15:16).
 (3)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셨다(참조, 엡3:12).
 (4) 즉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참조, 히5:16).
12. **㉠** 사울이 월삭 이튿날도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윗의 신상을 묻자 요나단은 무엇이라 대답하였는가? (27-29절)
- ㉠** (1)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요나단 자신이 다윗에게 가족의 제사에 참석하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대답했다(6, 28, 29절).
 (2) 이처럼 요나단은 책임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담대하게 말했다.
 (3)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이며 참다운 사랑의 실천자의 모습이다(참조, 요 15:13).
 (4) 현대인의 병폐 중에 하나는 철저한 책임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13. **㉠** 사울이 요나단에게 '패역 부도(悖逆不道)의 계집의 소생(所生)'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30절)
- ㉠** (1) 이 말은 문자적으로 '너 반역한 가운데서 불순한 자의 자식아!'라는 뜻이다.
 (2) 사울은 자신의 친자(親子)인 요나단이 자기의 악한 계략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흉칙한 욕을 퍼부었다.
 (3) 사실 이 말은 요즈음 말로 하면 '매춘부의 아들'이란 뜻이다.
 (4)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고 악한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죄인의 한 특징이다(참조, 시5:9).
 (5) 참으로 입을 지킬 줄 아는 자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이다(참조, 잠13:3; 롬10:9, 10).
 (6)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고 온유한 말로 극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말이란 마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시17:3; 눅6:45).
14. **㉠**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30절)
- ㉠** (1) 이것은 '너의 어머니는 너를 세상에 내보낸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다'란 뜻이다. 이것은 사울이 자신의 극한 분노를 표현한 말이다.
 (2) 즉 요나단이 자기 말보다는 친구 다윗의 말을 더 신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를 자기의 아들로 함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3) 이처럼 악인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얽매어 자신의 감정에 거슬리는 부분을 철저히 밝히려 든다.
 (4)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에게 어떤 섭섭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뿐더러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5. **㉠**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할 자로 단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31절)
- ㉠** (1) 그 이유는 다윗이 살아 있는 한 반드시 그가 이스라엘의 왕좌를 노릴 것이므로 요나단의 신변에 위협이 따른다는 것이다.
 (2) 이 같은 말은 다윗에게 기울어진 요나단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한 술책이었다.
 (3) 사울은 '사악한 정치욕에 사로잡혀 사랑하는 아들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이처럼 백성의 복지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권세는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나.
16. **㉠** 요나단은 부친의 분노 앞에서도 담대하게 다윗을 변호했다. 이와 같은 그의 신앙적 행동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32-34절)
- ㉠** (1) 먼저 진리를 위해서 인간의 사사로운 정을 억제할 수 있었던 그의 아픔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아픔은 훗날에 기쁨을 안겨 주는 양심의 승리이다.
 (2) 또한 더우기 그는 어리석은 명예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참된 신앙인이라 바로 이러한 자세를 소유한 자이다.
 (3)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주변 인물들의 문제도 바로 자신의 문제인 양 괴로와하였다. 이것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4)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킬 줄 알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할 줄도 안다(참조, 마26:39).
17. **㉠** 사울의 계책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곧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35-40절)
- ㉠** (1)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그를 피신시켰다.
 (2) 즉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바를 어기지 않고 실행하였다(18-23절).
 (3) 이처럼 비록 사울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하더라도 이들의 우정을 결코 변질시키지는 못

했다.

(4)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관계 역시 상황을 초월하여 계속되어야 하며 계속되어질 것이다(참조, 요 15:1-5; 롬 8:35-39).

18. **㉠** 다윗이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41절)

㉠ (1) 이것은 왕자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충정(忠情)의 표시였다.

(2) 또한 이것은 요나단이 그에게 베풀어 준 희생적 봉사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깊이 알고 있다는 표시이다.

(3) 요나단은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의 신뢰성을 보여 주었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더욱 다윗을 보살피 주었다.

(4) 따라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최고의 존대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 즉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참조, 살전5:18).

19. **㉠** 요나단과 다윗이 행한 작별 인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42절)

㉠ (1)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는 것이다.

(2) 이처럼 그들의 영혼은 그들 자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연합되었다.

(3) 하나님 앞에서의 연합이 그들 자신간의 연합을 갖게 만든 것이다.

(4) 그들의 언약도 '여호와와 이름'으로 되어졌으며 그들이 헤어지더라도 언약은 파기될 수 없다.

(5) 그들이 가졌던 경건성은 친구와 작별할 때의 슬픔을 완화시키고 아픔도 씻어 주었다.

(6) 이러한 이유에서 성도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침착할 수 있다.

본장의 요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42절).



제 21 장 다윗이 농과 가드로 도망하다

단락구분 1-6 다윗이 농에서 진설병(陣設餅)을 먹다 / 7-9 다윗이 골리앗의 검을 취하다 / 10-15 다윗이 가드에서 거저 광기(狂氣)를 부리다

1 다윗이 농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2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의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므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3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딱 다섯 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

7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애듬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8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므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9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10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쫓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밖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14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한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이제 다윗은 완전히 사울의 궁전과 자신의 생명 같은 친구 요나단을 떠나게 되었다.
- (2) 이때부터 그는 본서 마지막 부분까지 불법자 취급을 받았으며,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다.
- (3) 본장과 22장에서는 다윗의 시편들과 관련이 깊은 고난들이 열거되어 있다.
- (4)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며 참는 모습, 또한 기쁨 부음을 받고서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때를 기다리는 그의 신앙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 ㉠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던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작은 성읍인 농에 피신했다(참조, 22:19).
- (2) 이제 선지자 사무엘도 다윗을 지켜 주지 못하고, 왕자 요나단도 그를 더 이상 도와 줄 수 없었다.
- (3) 그러므로 그는 성전으로 발을 옮겼다.
- (4) 즉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매우 어렵고 위험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성

전에 왔다(참조, 22:10).

(5) 이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그 안식처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참조, 시 50:15).

3. **㉠**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1) 아히멜렉은 왕의 사위이자 군대 장군인 다윗이 부하도 없고 무기도 지닌 것이 없이 혼자 나타난 것을 보고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껴 떨었다.

(2)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었으나 굉장히 유약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3)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이다(참조, 시 31:23, 24).

(4)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다(요 16:33).

4. **㉠** 다윗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아히멜렉에게 어떠한 거짓말로 그를 안심시켰는가? (1, 2절)

㉠ (1) 다윗은 비밀한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혼자 왔으며 부하들은 약정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고 거짓 대답했다(2절).

(2) 이 말은 다윗이 피신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둘러댄 거짓말이다.

(3) 아히멜렉은 다윗의 거짓 술책에 말려들어 다윗을 환대하고, 후에 이 일 때문에 그는 다윗과 함세하여 공모(共謀)했다는 오해를 받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22:9-19).

(4) 그 당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자기의 처지를 거짓없이 얘기하며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22:22).

(5) 이처럼 인간의 거짓말은 그 상황을 잠시 피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화를 불러 들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한 거짓을 억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거짓된 언어를 중단시켜야 한다.

5. **㉠** ‘항용(恒用) 떡’과 ‘거룩한 떡’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가? (3-6절)

㉠ (1) ‘항용 떡’은 일반 백성들이 매일 식사로 먹는 떡을 말하고,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진설병을 가리킨다(갈 25:30).

(2) 여기서 ‘거룩한 떡’은 12개로서(레 24:5-8) 여호와 앞에 바친 다음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다.

(3) 그러나 이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것을 먹는 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며 예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정당시 하셨다(마 12:3, 4, 7).

(4) 즉 예수께서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사랑이며 긍휼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셨던 것이다(마 12:3-7).

6. **㉠**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 5절)

㉠ (1) 이것은 소년들의 소유물과 의복 등이 모두 깨끗하다는 뜻이다.

(2) 여기서 ‘그릇’이란 그들의 몸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말이다(살전 4:4).

(3) 또한 ‘성결하다’는 말은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복과 소유물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레 15:17, 18).

(4) 율법에는 부녀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출 19:15).

(5) 이처럼 범죄한 자는 말씀의 떡을 공급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범죄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사 59:2).

7. **㉠**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란 언제인가? (6절)

- ㉠** (1) '매안식일'을 말한다(레 24:8).
- (2) 진설병은 안식일을 주기로 하여 교체하였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떡은 한 주간이 지나 물려낸 것을 말한다.
- (3) 한편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진설병을 준 것은 그들의 성결을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레 7:19-21).
- (4) 결국 아히멜렉은 떡을 제공하여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는 도덕적 의무가 진설병을 먹는 의식적 규례(레 24:5-9)를 대신한다고 생각했다.
- (5) 그리스도께서도 형식보다는 그 형식이 존재하게 된 근본 내용을 더욱 중요시 하셨다(참조, 막2:23-28).

8. **㉠**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4-6절)

- ㉠** (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긍휼을 요구하신다.
- (2) 그런데 인간들은 가끔 지나친 율법주의에 얽매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뜻(사랑, 긍휼 등)을 망각할 때가 있다.
- (3) 즉 구제와 봉사보다는 교회 건물 확장에 혈안이 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 (4) 또한 교회의 직분을 내세워 자신의 권위만을 들먹이며, 형제를 돌보지 못하는 자는 참다운 성도라 할 수 없다.

9. **㉠** 사울의 신하였던 도역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도역은 어떤 서원 때문이거나 정결의식 혹은 그가 문둥병으로 의심받았으므로 놉의 성소에 머물렀던 것 같다(참조, 레 13:4).
- (2) 사울의 심복인 그는 아히멜렉과 다윗의 일을 목격하고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제공하였다고 고(告)하므로 제사장 85명을 죽게 하였다(22:9-19, 22).
- (3) 다윗은 도역의 그러한 악행을 노래로 읊었다(삼 52:1-9).
- (4)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참조, 마7:15; 갈2:4).

10. **㉠**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청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7-9절)

- ㉠** (1) 사울의 측근인 도역을 보고서(7절) 생명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 (2) 그는 칼을 얻을 때에도 거짓말을 하였다. 즉 '왕의 일이 급하므로 무기를 휴대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8절)고 하였다.
- (3) 성경은 이처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인간의 나약한 본성 때문에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이다(창 12:11-13; 눅 22:56-60).
- (4) 그러나 어떠한 거짓말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금지되었고 정죄되었다(참조, 레 19:11; 시 34:13; 119:29; 잠 12:22; 골 3:9; 계 2:8).
- (5) 바울은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였다(엡 4:25).

11. **㉠**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7-9절)

- ㉠** (1) 에봇 뒤에 보관해 두었던 칼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9절).
- (2) 다윗은 그것을 훌륭한 무기로 알고 받았다(9절).
- (3) 그가 칼리앗의 칼을 좋게 여긴 이유는 그 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엘라 골짜기에서 칼리앗을 죽일 수 있도록 힘과 은혜 주셨던 일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다(참조, 시 23:5, 6; 딤후 4:17, 18).

12. ㉠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에 피신했던 다윗은 도둑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끼자 또다시 어디로 도망하였는가? (10-15절)

㉠ (1)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의 통치가 아기스에게로 도피하였다(10절).

(2)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가 사울의 측근인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았다(11절).

(3) 또한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블레셋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나 그의 유명한 공적으로 그를 '왕'으로 불려지게 했다.

(4) 다윗은 이 사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아기스에게서 빠져 나오려고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였다(12-15절).

(5)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애타는 심정을 안고 있었다(참조, 시 56편).

(6)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순간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참신앙인의 위대한 점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다.

13. ㉠ 다윗에게 있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려움'이 주는 해로운 영향은 무엇인가? (10-15절)

㉠ (1)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이상 자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또한 두려움은 사람으로 속임수를 사용하게 만든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면 음모에 걸리게 된다'(잠 29:2).

(3) 그리고 두려움은 굴욕적인 멸시를 당하게 한다(15절).

(4) 이처럼 두려움은 성도들을 절망의 길로 인도하는 부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수 1:5-9; 요 14:1; 요일 4:18).

14. ㉠ 다윗은 가드에서 광인(狂人) 노릇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였다. 이 노래는 시편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가? (10-15절)

㉠ (1) 다윗은 시 34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찬양했다.

(2) 시 34편의 표제에 '아비멜렉'은 왕호이고 그의 실제 이름은 '아기스'이다.

(3) 이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4)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성도들의 피난처로 알려셨다(시 48:3).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시 59:16; 잠 14:26; 사 25:4).

본장의 요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
(6절).

제 22 장 다윗의 방랑 생활과 사울에 의한 제사장의 대량 학살

단락구분 1-2 다윗이 아들람 골에 피신하다 / 3-5 모압 미스베로 피신한 다윗과 그의 가족 / 6-8 사울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고하지 않았다고 그 신하들을 책망하다 / 9-10 도엑이 아히멜렉을 고발하다 / 11-19 사울이 제사장들의 성읍인 놈을 전멸시키다 / 20-23 죽음을 면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하다

1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들람 골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들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빛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명 가량이었더라

3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4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 선지가 갖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벳 수풀에 이르니라

6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야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7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8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9 때에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놈에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10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11 왕이 보내어 아히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

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놈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니라

12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

14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다

15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다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들리지 마음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16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17 왕이 최우의 시위차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지라

18 왕이 도엑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엑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팔십 오 인을 죽였고

19 제사장들의 성읍 놈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20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21 사울이 여호와와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며

22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역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23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아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1.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 ㉠** (1)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난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2) 다윗이 피신처로 삼은 아들람 굴에서 그의 혈족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으며 그들에 대해서 다윗은 우두머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다윗은 어버이에 대한 염려를 하던 차에 모압 왕에게 미스베에서 그들이 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다.
 (4) 그리고 선지자 갓의 충고를 받자마자 다윗은 유다에 돌아갔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의 발걸음을 지도하셨다.
 (6)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시121:8).

2. **㉠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 쫓겨난 다윗은 다시 어디로 피신하였는가? (1-5절)**

- ㉠** (1) 블레셋 경계로부터 멀지 않은 이스라엘 지경의 아들람 굴에 피신하였다(1절).
 (2) 이 시기에 다윗은 시142편을 지었다. 그 제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라고 되어 있다.
 (3) 그 시편에서 다윗은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다'(4절)고 불평했지만 곧이어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7절)라는 희망을 잊지 않았다.
 (4)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 말하여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11:38)라고 말했을 때 이 당시 다윗의 경우를 염두해 두었을 것이다.

3. **㉠ '빛진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2절)**

- ㉠** (1) 이들은 사울의 폭정(暴政) 때문에 유리 방황하던 자들이다(참조, 왕하4:1).
 (2) 여기에는 전쟁에 능숙한 자도 있었고(대상 12장), 선지자도 있었다(참조, 대상 21:9).
 (3) 이처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군대를 이루었으므로 그 세력은 굉장했다(참조, 23:5;27:9;30:26).
 (4)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힘을 이용하여 사울을 대항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이었기 때문이다.
 (5) 이처럼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참조, 시37:5,6).

4. **㉠ 다윗은 자신의 가족을 어디로 피신시켰는가? (3,4절)**

- ㉠** (1) 다윗은 그의 가족을 사울의 확대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사해(Dead Sea) 건너편 모압으로 데려갔다(룻1:4;4:21,22은 다윗의 집과 모압의 관계를 기록했다).
 (2) 다윗이 하필 이 모압 땅에 가족을 의탁한 것은 그곳이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증조할머니인 '룻'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5. **㉠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했던 충고는 무엇인가? (5절)**

- ㉠** (1)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2) 이 말은 결국 다윗에게 생명의 위협이 도사린 사울의 경내에 들어가라는 의미이다.
 (3) 하나님께서 이처럼 쫓기는 신세에 있던 다윗에게 어려운 지시를 하신 이유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시려는 뜻에서였다(참조, 삼하24:2-13).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숙케 하기 위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신다(참조, 출 20:5).

6. **㉠**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유감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6-8절)

- ㉠** (1) 첫째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행한 맹약에 대하여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8절).
 (2) 둘째는 사울 자신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8절).
 (3) 셋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자기에게 알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8절).
 (4) 이처럼 정치욕에 사로잡힌 사울은 모든 사람을 불신하기에 이르렀다.
 (5) 이와 같이 악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악하게 보일 뿐이다(참조, 잠29:12).

7. **㉠** 에돔 사람 도역이 사울을 기쁘게 하려고 사울에게 어떤 일을 보고했는가? (9, 10절)

- ㉠** (1)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사울에게 고하였다(참조, 시 52편).
 (2) 그는 다윗과 아히멜렉이 행한 일을 사실대로 고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3) 이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아부를 일삼는 자들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자의 위치에 두어 마땅하다.

8. **㉠** 도역의 모함과 사울의 정죄에 대해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11-16절)

- ㉠** (1) 아히멜렉은 다윗이 모든 신하 중에 가장 충실한 자로 생각한다고 담대히 말했다(14절).
 (2) 또한 그는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일이 당연하다고 말했다(15절).
 (3)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무죄함을 내세웠다(15절).
 (4)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솔직히 말한 그의 양심과 태도는 본받을 만하다.
 (5) 그러나 이미 정치욕에 빠진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가문을 몰살시키겠다고 하였다.
 (6) 판결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내려진 것이므로 공평치 못한 판결이다(참조, 전 3:16).

9. **㉠** 아히멜렉에게 불의한 판결을 내린 사울은 신하들에게 무엇을 명하였는가? (16, 17절)

- ㉠** (1) '여호와와 제사장을 죽이라' (17절)고 했다.
 (2) 그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의해 인정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가는 거룩한 봉사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살해할 것을 명했다.
 (3)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바로 모시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우습게 본다(참조, 16:14).
 (4) 한편 이 명령을 받았던 다윗의 신하들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임을 인식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였다.
 (5) 이처럼 정의로운 신앙적 결단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내려야한다(참조, 단3:13-23; 6:10-18).

10. **㉠** 사울이 도역을 통하여 범한 극악 무도(極惡無道)한 죄는 무엇인가? (18, 19절)

- ㉠** (1) 제사장들을 쳐서 세마포(細麻布) 에봇 입는 자 85명을 죽였다(18절).
 (2) 또한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짓먹는 자들과 가축을 모조리 멸절시켰다(19절).
 (3) 사울의 이러한 무서운 범죄는 자신의 멸망을 초래하는 행동이었다. 이처럼 악인은 언제나 스스로 함정을 판다(잠29:6).

11. **㉠** 사울이 제사장의 성읍인 놉을 멸절시킨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20-23절)

- Ⓐ (1) 다윗은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살해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꼈다(22절).
 (2) 이것은 다윗의 기만(21:2)으로 인한 커다란 비극적 결과였다. 그러므로 그는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당한 참사에 대하여 커다란 책임을 느꼈다.
 (3) 참다운 신앙인은 자기가 행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안다(참조, 은 1:12).
12. Ⓒ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는 말은 다윗 자신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 (23절)
- Ⓐ (1) 그의 말은 자신을 과대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계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
 (2)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시17:8) 달라고 늘 간구했으며, 또한 그 응답하심을 받았다.
 (3) 이와 같이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했으며 그러므로 좌절하지 않고 환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4) 하나님은 다윗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기의 손 그늘에 숨겨 주시겠다' (사49:2) 고 약속하셨으며, 당신의 품안에 있는 자는 모두 안전하리라고 약속하셨다(시91:1-16).

연구자료

다윗에 대한 사울의 핍박.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떳떳한 왕이었지만 사울의 핍박을 받았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시작된 사울의 핍박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로 길보아 산에서 사망하기까지 계속되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의 딸 미갈까지도 아버지 사울의 부당한 시기를 못마땅하게 여겨 다윗을 도왔다. 이렇게 자기 가족까지 자신의 행동을 따르지 않음에 대해 사울은 더욱 악해졌으며 급기야는 다윗을 숨겨 주고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죽이고 말았다(17절).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은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렸으며 결국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온 백성들과 신하들, 여호와의 제사장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동조하지 않는 일을 사울은 막무가내로 주장하여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다. 반면에 다윗은 한번도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때의 고충이 시 34편과 62편에 절실하게 나타나 있다. 다윗이 피난 시절에 경험한 핍박은 그에게 인내와 신앙을 깊게 했으며 또한 백성들에게는 나쁜 지도자와 신실한 지도자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심어 주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받은 핍박은 사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의미에서 선한 교훈을 주었다.

제 23 장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다

단락구분 1-5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다 / 6-14 사울의 추격과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 / 15-18 다윗이 십 광야로 피신하다 / 19-23 십 사람의 밀고와 사울의 자세한 탐지 부탁 / 24-29 블레셋 사람의 내습으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추적이 중단되다

1 흑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2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3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리이까

4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5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6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예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7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흑이 사울에게 고함대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8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9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예봇을 이리로 가져 오라 하고

10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쯤 피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 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 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12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

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 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13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흑이 사울에게 고함대 사울이 가기를 치니라

14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15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16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지지하게 하였는데

17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9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 이까

20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21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증혹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22 흑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니라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척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23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 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24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심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25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흑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은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은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

으려 함이었던라

27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름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 곳을 쉐라하 마느곳이라 칭하니라

29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1. ㉠ 본장의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건설을 위해 택하셨던 다윗을 어떻게 연단시켰으며 또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 (2) 사울이 놉의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보임으로 대제사장이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었고(22:20-23)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제사장의 현명하고 정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3) 더우기 선지자 갓이 다윗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한 후(22:5)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출하므로 그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 (4) 그러나 제사장들의 피에 취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추격하였고, 이에 대해 다윗은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였다.

2. ㉠ 블레셋 사람의 수중으로 들어간 '그일라'는 어떠한 곳인가? (1-5절)

- ㉠ (1) 그일라는 아둘람 남쪽 약 4.8km에 위치한 유다 성읍(수15:44)으로 블레셋 접경의 낮은 지대이다.
- (2)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추수하고 곡물을 저장하는 고된 일을 마친 후에 그 타작 마당을 급습(急襲)하였다(1절).
- (3) 즉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내분(內紛)의 기회를 이용해서 블레셋 족속이 침략해 온 것이다.
- (4)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이권(利權)이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략한다(참조, 벰전5:8, 9).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의 경건 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결속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3. ㉠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있던 다윗에게로 피신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6절)

- ㉠ (1) 아비아달은 에봇을 손에 들고 다윗에게로 갔다.
- (2) 그것은 대제사장의 에봇인데, 그 속에는 우림과 둠뎀이 들어 있다(참조, 출28:15-30).
- (3) 이것은 다윗의 망명 생활 중 하나님께서 주셨던 크신 위로이다.
- (4) 즉 그가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다.
- (5) 이처럼 죄인된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요1:1-18).

4. ㉠ 사울은 그일라를 구출한 다윗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7, 8절)

- ㉠ (1) 사울은 다윗을 공신(功臣)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
- (2) 참으로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참조, 시 35:12; 109:4; 요 10:32).
- (3) 또한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7절)고 하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자신의 불의한 계획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 (4)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울은 양심이 무디어져 공공연한 거짓말을 일삼게 되었다.
- (5) 오늘날도 말씀에 착념하지 못한 자들 중에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신앙인이 있다(참조, 딤후 4:4).

5. **㉠**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9-12절)

- ㉠** (1)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의도를 알고 자신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에게 자신의 거취(去就)를 묻기 위해서였다(참조, 출 28:1-4).
- (2)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매우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다(10-12절).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에게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응답하셨다.
- (3)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미래의 되어질 일을 그 인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참조, 엡 1:11).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경건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방법도 알고 계신다(참조, 시 32:8).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펼치며 또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롬12:2, 11).

6. **㉠** 다윗과 그 일행이 '그일라'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12-14절)

- ㉠** (1)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12절).
- (2) 사실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했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을 구출한 적이 있었다(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위경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당신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한 방법으로 그에게 불은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하신다(참조, 시 109:4).

7. **㉠**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어디로 피신하였는가? (13, 14절)

- ㉠** (1) 다윗은 '황무지 요새'에 피하기도 했고 '십 황무지 산골'에도 그 몸을 숨겼다.
- (2) 그의 이러한 피신은 결코 피곤한 행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다(참조, 시 5:11; 11:1; 16:1; 17:7; 18:2; 31:1, 19; 59:16; 61:3, 4).
- (3) 즉 그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의 것들과 점점 멀어지는 대신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렸다.
- (4)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였으며(9-13절)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그를 늘 보호해 주셨다(참조, 시 50:15).

8. **㉠** 요나단은 무엇으로 다윗에게 위로하였는가? (15-18절)

- ㉠** (1)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격려하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네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였다(16절).
- (2) 여기서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란 말은 요나단의 지극한 겸손과 고상한 인격을 대변해 주는 표현이다.
- (3) 요나단은 다윗을 힘있게 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참조, 빌 4:13).
- (4) 이처럼 경건한 신앙인의 특징은 자신이 위로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다(참조, 행 27:21-25).

9. **㉠** 다윗의 거처를 밀고(密告) 한 '십' 사람들을 향하여 사울은 자기의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9-21절)

- ㉠** (1) 사울은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다.

- (2) 이처럼 그의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다(참조, 사29:13).
- (3) 즉 그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였으나 입술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다.
- (4) 예수께서도 이러한 자를 지적하면서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마7:21).

10. **Q** 사울은 다윗을 반드시 잡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22, 23절)

- A** (1) 나는 '다윗이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고 말하였다.
- (2) 그는 자신의 힘만 믿고 다윗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14절).
- (3) 하나님의 손길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쉬시지 않는다(참조, 시 121:3, 4).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절대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 **Q** '십'의 정탐꾼들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의 처소를 밀고할 때에 다윗이 지은 시편은 몇 편인가? (19-23절)

- A** (1) 시편 54편을 읊었다.
- (2) 여기서 다윗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외인' 이라고 하였다(3절).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을 잔인하게 대하였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맡기고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4절) 고 고백하였다.
- (4) 하나님은 이러한 군센 신앙의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으신다(참조, 시50:15).

12. **Q** 유다의 황무지 지역을 방황하던 다윗이 읊은 시편은 몇 편인가? (24-26절)

- A** (1) 시편 63편이다.
- (2)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었다.
- (3) 이처럼 성도를 향한 악인들의 추격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 (4)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로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참조, 시 27:5).

13. **Q** 사울이 다윗에 대한 추격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27, 28절)

- A** (1)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심으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추격을 돌이키셨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실 때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 (4)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것은 전혀 다윗을 도와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 (5) 그러나 모든 일을 당신의 때와 계획에 따라서 명령해 가시는 놀라우신 섭리가 이 사건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도움이 되게 하셨다(참조, 롬8:28).

14. **Q** '셀라하마스곳'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8절)

- A** (1) '셀라'는 '바위'라는 뜻이며 '하마스곳'은 '헤어지다', '도피하다'라는 뜻이다.
- (2) 그러므로 이것은 '도피의 바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안전한 바위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셀라하마스곳'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15. **Q** '엔게디'는 어디에 위치한 곳인가? (29절)

- A** (1) 사해 연안의 헤브론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아시스 이다(창14:7). 또한 부근에는 종려나무와 많은 포도원이 있어서 더욱 유명하다(아1:14).
- (2) '엔게디'는 '행운의 샘', '어린 염소의 우물'이란 뜻이 있다.
- (3) 후에는 아인야디(Ain Jady)로 부르게 되었고 이 명칭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약 120m 높이의 산이 있다.

제 24 장 다윗이 사울을 살려 주다

단락구분 1-3 사울이 다윗의 숨은 동굴에 들어가다 / 4-7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 주고 옷자락만 베다 / 8-15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의 진정한 뜻을 보이다 / 16-22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일시적 회개

1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들악오매 혹은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도다

2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 길 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밭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겂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찢려

6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쁨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가 됴이니라 하고

7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8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9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은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가 됴이니라 하였나이대

11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겂옷 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나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대

13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14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15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시나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16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 하였도다

19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 보라 나는 네가 만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떨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22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1. ㉠ 본장과 유사한 사건을 지닌 장(章)은 어느 장인가?

㉠ (1)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없애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않으시므로 (23:14) 다윗의 생명은 안전하였다.

(2) 본장에서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다윗은 그 기회

를 이용하지 않았다.

- (3) 왜냐하면 사울로부터 자기 목숨을 살려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 (4) 본장은 26장의 사건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내용이다. 다만 그 차이점은 본장에서는 사울이 뜻하지 않게 다윗의 수중에 있게 되었지만, 26장에서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진으로 들어간 것이다.

2. **Q**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녔는가? (1, 2절).

- A** (1)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의 뒤를 쫓았다(2절).
- (2) 이처럼 사악한 정치욕에 휩싸인 사울은 이제는 무모하리만치 끈질기게 다윗의 뒤를 추적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사울은 비정상적인 이성을 소유하여 자신뿐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했다.
- (3)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다윗에게는 육신의 피로나 사울의 군대 같은 외부적인 환경이 그를 동요시키지 못했다(참조, 시 20:7-9).
- (4)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승리의 원동력이 되셨다(참조, 시 18:1-50).
- (5)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단의 세력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늘 이기게 하신다(참조, 요일 5:4).

3. **Q** 길 가 '양의 우리'란 어디를 말하는가? (3절)

- A** (1) 이스라엘에는 큰 바위나 산 허리에 커다란 굴들이 많이 있다.
- (2) 어떤 것들은 자연 그대로의 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양들에게 뜨거운 태양 빛을 가려 주거나(아1:7) 다른 맹수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많다.
- (3) 이런 굴들을 일컬어 '양의 우리'라고 한 것이다.

4. **Q** 사울이 '그 발을 가리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A** (1)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잡자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RSV)도 있고 용변 보는 것의 완곡한 표현법이라는 해석(공동 번역, Living Bible)도 있다.
- (2) 그런데 사울이 용변을 보았을 경우 자기의 옷자락 베는 것을 몰랐을리 없기 때문에 첫째 해석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 (3) 한편 사 3:24에서도 이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잠을 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4) 그러나 그 당시 사울은 낮잠을 즐기기 위해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적(政敵)인 다윗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해하기 위해서 그곳을 나왔던 터였다. 그러므로 그렇게 긴박한 상황 아래서 잠을 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 (5) 더우기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으로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잡자는 것과 용변을 본다는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용변을 보기 위해 그가 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5. **Q**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굴에 들어 왔을 때 그곳에 숨어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충동질했는가? (3, 4절)

- A** (1)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신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였다(4절).
- (2) 그러나 그 같은 말은 성경 에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 (3)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겠다고 확신을 넣어 주셨을 뿐이다. 이것을 그의 부하들은 곧 사울을 없애라는 허락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 (4) 즉 이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릇 이해한 것이다.

6. **Q** 사울을 죽이자는 부하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다윗은 단지 사울의 걸옷자락만을 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의 고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3-7절)

- 6. A** (1)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 것은 그의 인격에 손땀과 같았고 하나님의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여 손을 드는 일이었다(10절).
 (2)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의 이러한 처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해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양심에 고통을 느꼈다.
 (3)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사소한 허물마저도 크게 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며 또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4)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바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심각하게 뉘우칠 수 있어야 한다(시 40:12).
- 7. C**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4-7절)**
A (1)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죄악의 세력이 결코 침투하지 못한다.
 (2) 또한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풍부한 사랑이 그 삶 속에 깃들여 있다(롬 12:9).
 (3) 그리고 적게 보이는 허물(죄)에 대해서도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5절).
 (4) 왜냐하면 이것은 정결한 양심으로서 양심이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이다(참조, 딤후 1:5).
 (5) 이처럼 성도들은 마음의 귀를 열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피야 한다(참조, 시 119:9, 10). 이것이 죄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 8. C**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류했던 다윗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7절)**
A (1) 다윗은 부하들의 감정을 현명한 충고로 억누르게 했다(참조, 욥 28:28; 잠 16:7). 이처럼 지도자는 항상 감정보다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참조, 민 11:27-29).
 (2) 또한 그는 자신만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역시 악을 행치 않도록 권면했다(참조, 골 3:16; 살전 3:12; 5:11; 히 3:13).
 (3)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에게서 자기를 꺾박한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모형과 모든 악을 선으로 정복하여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찾아 볼 수 있다.
- 9. C** **다윗이 숨어 있던 굴에서 나와 자신을 노출시킨 후 사울에게 간곡히 호소한 것은 무엇인가? (8-15절)**
A (1) 먼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것은 왕에 대한 예의였다(8절).
 (2) 그리고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면서 왕의 편견 없는 판결을 요구하였다(9절).
 (3) 더우기 그는 자기가 충분히 왕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삼가했다고 하였다(10, 11절).
 (4) 여호와께서 자기와 왕 중에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결정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12절).
 (5)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 같이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했다(14절).
 (6)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15절).
 (7) 이와 같이 다윗의 간곡한 호소는 사울의 강박한 마음도 움직였던 겸손과 진리와 능력의 부르짖음이었다.
- 10. C** **다윗은 자기의 행동을 누구에 의하여 판단 받기 원하였는가? (12, 15절)**
A (1) 다윗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판단하시기를 원하였다.
 (2) 하나님의 공의(公義)는 악인을 판단하사 의인으로 하여금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게 하시므로 의인을 위로하여 주신다(참조, 시 58:10, 11).
 (3)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잘못 판단하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참조, 마 25:32, 33).
 (4) 우리들이 고난과 비방을 당하나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조,

롬12:19).

11. **㉠** 다윗의 사랑에 감동된 사울이 회개한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16-22절)

- ㉠** (1) 먼저 그는 소리 높여 울었다(16절).
 (2) 또한 그는 다윗을 자기보다 의로운 존재로 여겼다(17-19절).
 (3) 마지막으로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하였다(20절).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자기의 후손을 버리지 않도록 맹세시켰다(21, 22절).
 (4) 그러나 그의 승복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는 이 일이 있을 후 얼마되지 않아 또 한 번 다윗을 살해하려 했다(26장).
 (5) 이처럼 일시적으로는 회개하였지만 그 회개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죄인의 한 특징이다.
 (6)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뿐 아니라 자신이 범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참조, 고후7:10, 11).

12. **㉠** 사울이 자기보다 다윗을 의롭게 여겼던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17-19절)

- ㉠** (1) 이것은 선을 악으로 값으려했던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고 진정 회개하는 심정으로 사울이 다윗을 의롭게 여겼던 것이 아니다.
 (2) 단지 사울은 그때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않고 살려 준 다윗이 고마와 일시적으로 그를 추켜 세운 것이다.
 (3)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자아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4) 예수께서도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자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다(마16:24; 막8:34).
 (5)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이다(참조, 고전15:31).

13. **㉠** 다윗이 사울과 화해를 한 이후에 사울의 궁으로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요새로 돌아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 ㉠** (1) 다윗은 아직 사울을 지나치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여 올라갔던 것이다.
 (3) 이처럼 금방 화해한 원수의 자비를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4) 예수께서도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몸을 저희에게 위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었다(요2:24).
 (5) 다윗은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겸손하였지만 반면에 뱀과 같이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 나갔다(마10:16).

본장의 요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15절).

제 25 장 사무엘의 죽음 및 다윗과 나발의 관계

단락구분 1 사무엘이 죽다 / 2-8 다윗이 부호인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다 / 9-13 나발의 모욕에 격분한 다윗 / 14-31 다윗을 달래기 위한 아비가일의 호소 / 32-35 아비가일의 호소를 받아들인 다윗 / 36-38 나발의 죽음 / 39-42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 43-44 다윗의 아내들

1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2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던라

4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5 다윗이 이에 열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7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8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밤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9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10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역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2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13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사백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14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속하였나이다

15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16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17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18 아비가일이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잠야 준비한 양 다섯과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19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20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으로 좇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1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2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중

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좇아 내 주의 생명을 찾으리라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불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31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32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

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34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35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36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37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들과 같이 되었더니

38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39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40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41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42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3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다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44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1. ㉠ 사무엘의 생애와 이스라엘 역사와의 관계를 약술하라.

㉠ (1) 사무엘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2단계의 시작이었다(행 3:24).

(2) 즉 모세는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으나 사무엘은 선지 학교를 설립해서 그들을 가르쳤다. 교육이 없다면 율법이 무력하게 된다.

(3) 사무엘은 선지자들을 양성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신지식(神知識)을 전수하고,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노력하였다.

(4) 그는 이스라엘에 왕정(王政)이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첫 왕의 폭정을 주시하였다.

(5)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래 모습인 신정(神政)에 합당한 일군(다윗)을 찾아가 그에게 기쁨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6)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때가 왔음을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

2. ㉠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士師)였던 사무엘은 죽어서 어디에 매장되었는가? (1절)

- A** (1) 그의 고향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매장되었다.
 (2) 그러나 사무엘이 그의 집에서 실제로 장사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3)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그 집안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영원히 부정하게 된다(참조, 민19:16; 눅11:44).
 (4) 그러므로 사무엘의 무덤은 그의 정원 안에 있는 어떤 장소일 것이다(참조, 왕하21:18; 대하33:20).
 (5)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이 저지른 악행(8:1-5) 외에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 간 사람이었다.
 (6) 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졌던 신실한 영적 지도자를 잃게 되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어느 때보다도 사무엘이 더욱 필요한 때였다.
- 3. C**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그 피신처를 어디로 정하였는가? (1절)
A (1) 바란 광야로 정하였다.
 (2) 이처럼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 후에 바란 광야로 나아간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3)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방황하던 곳이었다(참조, 민10:12; 12:16; 13:3, 26).
 (4) 그러므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5)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신뢰하던 신앙의 선배마저 자기 곁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기 위해 광야로 나갔다.
- 4. C**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 3절)
A (1) 나발은 문자적으로 '평행한', '맛없는' 이란 뜻으로 '어리석은 자'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다.
 (2) 이것은 그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가 어리석으므로 붙인 별명일 것이다(Delitzsch).
 (3) 왜냐하면 그의 행동(3절)이 그 이름과 적당함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4) 그는 큰 부자로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기르고 있었다(2절).
 (5) 또한 그는 갈렙의 후손이었지만 갈렙의 덕은 상속받지 못했다.
 (6) 그러므로 참 사람됨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으며 사느냐 하는데 있다(참조, 눅12:15).
- 5. C** '나발'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 (3절)
A (1) 그 이름은 '아비가일'이다.
 (2) '아비가일'이란 히브리어로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기쁨을 주는 자'를 의미한다.
 (3) 이 여인은 '충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움'(비교, 16:18) 내조자(內助者)였다.
 (4) 그러나 재물과 가문 때문에 딸을 팔아버린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서 더 이상 '기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5) 오늘날도 자신의 자녀들을 세상의 재물이라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 버리고는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하여 한탄하는 부모들이 허다하다.
- 6. C**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으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나발의 집에 청년들을 보낸 때가 언제인가? (2-5절)
A (1)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였다(2, 4절).
 (2) 양털을 깎는 시기에 친절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통례였다(참조, 삼하13:23, 24).
 (3) 왜냐하면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서 고가(高價)로 매매되는 양털을 얻는 즐거운 날이기 때문이다(8절).

(4) 즐거운 날에 이웃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미덕이다(참조, 마 11:17).

7. **㉠** 다윗은 나발의 집에 음식을 구하러 청년들을 보내면서 어떤 당부를 했는가? (4-8절)

㉠ (1) 먼저 자기 이름으로 문안하고 나발과 그 가정에 평강을 빌라고 했다(5, 6절).

(2) 또한 나발의 목자들을 늘 보호해 주었으며 그들과 친하다는 말을 함께 전하라고 했다(7절).

(3) 마지막으로 나발의 도움을 얻고자 좋은 날에 왔으니 청년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는 당부를 하도록 했다(8절).

(4)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지키면서 협조를 구한 행동이었다.

(5)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물량 공급의 대가로 나발의 양 떼와 소유를 보호해 왔기 때문이다(15, 16, 21절).

(6) 그러나 다윗이 그 청년들을 통하여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였다.

(7)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사에 겸손한 자의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시 10:7)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배부르게 할 것이다(시 22:26).

8. **㉠** 청년들을 통한 다윗의 간청에 대해 나발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9-11절)

㉠ (1) 나발은 다윗의 청구에 대해 단호한 태도로 거절하였다.

(2) 즉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10절) 하면서 다윗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였다.

(3) 또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 (10절) 방황하는 부랑자같이 취급했다(참조, 고전4:13).

(4) 나발은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이렇게 다윗을 꾸짖은 것이다(참조, 사 32:5-7). 이와 같이 악인들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며 자신이 누린 혜택에 대해 조그마한 보답도 하지 않으려 한다.

9. **㉠** 나발의 푸대접에 대해 다윗은 어떤 결심을 했는가? (12, 13, 21, 22절)

㉠ (1) 다윗은 나발의 집을 천멸시키기로 결심하였다(22절).

(2) 그래서 다윗은 나발 집을 몰살시킬 목적으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에게로 향했다(13절).

(3) 전날에는 냉정하고 사려깊은 행동을 취하던 사람이(24:4; 시 38:13) 이제는 거치른 몇 마디의 말 때문에 온 가족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4)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지 않으면 부패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참조, 신 9:12; 시 14:1; 53:1; 사 1:4; 딤후 6:5).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마 6:13).

10. **㉠** 나발의 집에 위협을 느낀 사환 하나가 나발의 아내(아비가일)에게 와서 무엇을 고하였는가? (14-17절)

㉠ (1) 그 사환은 아비가일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잘 대해 주었다고 하였다. 즉 그는 다윗의 일행을 바르게 평가하였다(15, 16절).

(2) 또 사환은 나발이 다윗의 심부름군들을 거칠게 대했던 사실을 비난하며 고했다(14절).

(3) 그리고 그 사환은 아비가일이 어떠한 행동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17절).

(4) 사실 그 사환에게는 다윗이 몰고 올 재난을 막을 힘도 없었고, 사울이 와서 그들을 지켜 주기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5) 이런 때에 그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취하여 주인에게로 달려간 것이다. 이는 성도의 신

양 생활에 있어서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 올 때 하나님(우리의 주님)을 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깨닫게 한다(시 50:15).

11. **㉠** 위험한 상황을 전했던 사환은 자신의 주인인 나발을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했는가?

(17절)

- ㉠** (1) 그는 주인(나발)이 '불량한 사람' 이므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자라고 평가했다.
 (2)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란 벨리알의 아들(a son of Belial), 즉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3) 이처럼 교만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무가치한 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다(참조, 잠 21:24; 사 23:9; 벧전 5:5).
 (4)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다(참조, 시 34:18; 눅 18:16; 빌 2:1-5).

12. **㉠** 사환의 말을 전해 들은 아비가일이 곧 어떤 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였는가?

(18-20절)

- ㉠** (1)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급히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나갔다.
 (2) 이때에 아비가일이 가져갔던 많은 선물은 환난을 제거하기 위한 선물이었다(참조, 잠 21:14). 야곱도 이러한 희유의 선물을 보낸 일이 있었다(창 32:16).
 (3) 이로 인하여 아비가일은 나발의 집안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으며 다윗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4) 즉 아비가일의 이런 용기있는 행동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복수하는 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것이기 때문이다(32절).
 (5) 이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은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의로운 행동은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룬다(롬 5:17-19).

13. **㉠** 다윗을 만나러 간 아비가일이 그를 만나자 그에게 무엇이냐 간청했는가? (23-31절)

- ㉠** (1) 아비가일은 먼저 나발의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였다(24절).
 (2)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가 묻지 않도록 지키셨으므로 이후로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였다(26절).
 (3) 그리고 그녀는 다윗에게 예물을 주고 용서와 축복을 빌었다(27, 28절).
 (4)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후회 없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28-31절).
 (5) 이처럼 그녀는 철저한 신앙적 입장에서 권면하였다. 올바른 신앙인에게 대한 신앙적 권면은 그 영혼을 살리는 양약(良藥)이다(참조, 잠 9:9).

14. **㉠**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24, 25절)

- ㉠** (1) 그녀는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단죄하였다(25절).
 (2) 그리고 남편의 죄악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였다(24절).
 (3) 이와 같이 그녀에게는 죄를 바로 지적할 줄 아는 영적 통찰력과 함께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하려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4) 우리들에게도 이웃에게서 발견되는 죄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아울러 그 죄인과 함께 고난당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요구된다(참조, 갈 6:2).
 (5) 사랑이 결여된 정의는 헛것이다(참조, 고전 13:1-3).

15. **㉠** 아비가일은 다윗의 영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권고를 하였는가? (26절)

- ㉠** (1) 다윗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보수(報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했다.
 (2) 즉 악에 대해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그에게 심판을 맡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참조, 롬12:17-21).

(3)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뿐 아니라 이웃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무관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차원에서 이웃의 죄를 지적하고 시정해 주어야 한다.

16. **㉠** 아버가일은 다윗의 앞날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28-30절)

- ㉠** (1) 아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라고 확신하였다. 즉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안에서 있을 것을 확신하였다(29절).
- (2) 또 아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수들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였다(29절).
- (3) 마지막으로 아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영원한 번영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하였다(28절).
- (4) 아버가일의 이런 확신들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말씀 안에 거하며 확신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늘 맛볼 것이다.

17. **㉠** 아버가일의 간청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이 그녀에게 대답한 내용은 무엇인가? (32-35절)

- ㉠** (1) 먼저 그는 아버가일을 보내어 피비린내 나는 살인을 막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였다(32절).
- (2) 두번째로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복을 빌었다(33절).
- (3) 또한 그녀의 행동에 감탄하였고(34절), 그녀의 예물을 받고 그 요구를 허락했다(35절).
- (4) 이처럼 아버가일은 다윗에게 지혜로운 책망자가 되었으며 다윗 또한 그 책망을 듣는 청종하는 귀가 되었다(참조, 시141:5; 잠25:12).
- (5) 충고를 주는 자도 훌륭하고 듣는 자도 훌륭할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둔다. 야고보는 충고의 귀중함을 영혼과 연관시켜 말하였다(약5:19, 20).

18. **㉠**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굳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36-38절)

- ㉠** (1) 아버가일이 전날의 사건(13-35절)을 그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심한 충격으로 그의 몸이 굳어진 것이다(37절).
- (2) 그는 지난 밤까지 큰 잔치를 배설하여 최고의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워했었다(36절).
- (3) 그러나 쾌락이 끝난 그의 마음에 복된 소식(다윗의 분노가 멈추어섰다는)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분노로 충격을 받아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
- (4) 이같이 악인의 마음은 자신의 영혼보다 재물을 더 중하게 여겨 삶을 그르칠 때가 있다.
- (5) 악인의 욕심은 결국 사망을 초래하고야 만다(38절; 약1:15).

19. **㉠** '신설(伸雪) 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9절)

- ㉠** (1) 이 말은 다윗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움을 싸워 주셨다'는 뜻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보응해 주셨다는 말이다.
- (3) 다윗은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범죄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셨다.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5) 오늘날 성도들도 다윗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추구하고 살기를 원해야 한다(롬8:28; 12:21).

20. **㉠** 나발의 죽음으로 과부가 된 아버가일에게 다윗이 청혼하였다. 이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39-42절)

- ㉠** (1) 아버가일은 그 청혼을 매우 정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다(41, 42절).
- (2) 여기서 죽은 남편에 대한 미망인의 애곡 기간은 법적으로 7일이면 끝이 났다(참조,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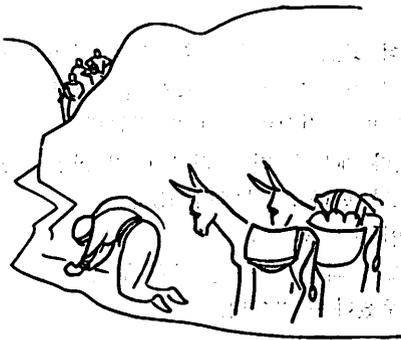
:13;창50:10).

- (3)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거절하지 않고 곧바로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녀의 결혼 생활이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3절).
- (4) 여하튼 그녀가 매사에 지혜롭고 겸손하였기에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 (5) 이와 같이 겸손은 훗날에 풍요로움을 불러오야 한다(잠15:33;22:11).

21. ㉠ 다윗의 중혼(重婚)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39-44절)

- ㉠ (1) 일부 다처(一夫多妻) 제도는 타락한 카인의 계열에서 시작된 관습이었다(창4:19).
- (2) 다윗은 아마 사울이 다윗 자신의 유일하고 정당한 아내를 속여서 빼앗은 것(44절)이 그로 하여금 불법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었을 것이다.
- (3) 부부간의 애정의 매듭이란 한 번 풀어지면 다시 든든히 매기가 어렵다.
- (4) 다윗으로 하여금 첫번째의 아내를 지킬 수 없었다는 생각이 두번째 아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 (5)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구실삼아 우리도 그대로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 (6) 중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므로 성도들의 삶에서 근절되어야 한다(창조, 창2:21-24; 마19:4, 5).

본장의 요절



‘아비
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23절).

제 26 장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두번째 살려 주다

단락구분 1-5 다윗을 추격한 사울이 하길라에 진(陣)을 치다 / 6-7 다윗이 사울의 진 중에 들어가다 / 8-12 아비새가 사울을 살해하고자 하다 / 13-16 다윗이 아브넬의 불충을 책망하다 / 17-20 다윗이 사울에게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다 / 21-25 사울이 다윗에게 사죄(謝罪)하다

1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 하였나िका

2 사울이 일어나 심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과 함께 심 황무지로 내려가서

3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오음을 깨닫고

4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5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벨의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 쳤더라

6 이에 다윗이 헛 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8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찢어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찢을 것이 없으리이다

9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11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

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던라

13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14 다윗이 백성과 벨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15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16 네 행한 일이 선치 못하다도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너와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17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18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좃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19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와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20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버릇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21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 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 되었다

22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취가게 하소서

23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

에 붙이셨으므로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24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25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1. **㉠ 본장의 내용과 유사한 곳은 어디인가?**

- ㉠** (1) 본장에는 십 사람들이 반역한 사실과 다윗이 사울을 구해 준 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런 이유에서 혹자는 본장에 대하여 이미 23:19-24:23에서 설명된 사건의 또 다른 전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3) 그러나 비록 본장과 24장에 관련된 사건들이 매우 유사하지만 그 차이점들(23:25-28과 26:3 이하 사건; 24:2-4과 26:3, 5 사건; 24:5-8과 26:6-12 사건; 24:10-23과 26:21-25 사건)은 두 사건이 사실상 구분됨을 밝히는 데 충분하다.
- (4) 아몽든 24장에 기록된 사울과 다윗의 화해는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2. **㉠ '십' 땅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1, 2절)**

- ㉠** (1) '십'은 임시 수도였던 헤브론 동남쪽, 광야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 (2)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곳까지 도망왔으나 이곳 사람들은 다윗을 보호해 주기는 커녕 그를 사울에게 밀고하였다(참조, 23:19).
- (3) 다윗은 이 일을 잊지 못하여 한맺힌 노래를 지어 불렀다(시 54편).
- (4) 이처럼 죄인은 거듭된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과 이웃의 삶까지 어지럽힌다.

3. **㉠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고 몰려오는 사울과 그 군대에게 어떻게 대처했는가? (2-5절)**

- ㉠** (1)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군대에 정탐꾼을 보내어 그 상황을 알아오게 했다(4절).
- (2) 그의 이 같은 처신은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더불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참된 신앙적 태도였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을 기뻐하신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단순히 묵상하는 신앙 생활을 하기보다는 움직이는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 한다(참조, 고전 15:58; 빌 2:12-14).

4. **㉠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잠입(潛入)할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5, 6절)**

- ㉠** (1)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암의 아우인 아버지새를 데리고 갔다.
- (2) 다윗의 요청에 대해 아버지새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담대히 다윗의 뒤를 따르기로 자원했다.
- (3) 오늘날 주님께서도 당신의 나라 건설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 동반자를 찾고 계신다.
- (4) 또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전인격과 생명까지도 부인(否認)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눅9:23).

5. **㉠ 다윗과 아버지새가 사울 진영에 잠입했을 때 사울 진영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7-12절)**

- ㉠** (1)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결 땅에 꽂혔으며, 아브넬과 사울의 부하들 역시 그를 둘러 누워 자고 있었다.

(2) 이때야말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였다.

(3)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는 아비새의 의견을 묵살시켰다.

(4) 이처럼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 감정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롬 13:12)을 먼저 생각한다.

6. **㉠**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7-12절)

㉠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다(9절).

(2) 즉 그는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법(롬 13:1, 2)이 파괴되는 것을 더욱 두려워했다.

(3)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10절).

(4) 이처럼 다윗은 성급함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참 지혜의 소유자였다.

(5) 마지막으로 다윗 자신이 사심없고 결백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

(6) 양심(신앙)의 자유를 원하는 자는 또 다른 자유를 포기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7. **㉠**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창과 물병을 가져온 목적은 무엇인가? (11, 12절)

㉠ (1)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자신에게는 악한 정치적 욕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2) 다윗은 사울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완전한 때에 사울을 왕좌에서 옮기실 것을 믿었다.

(3) 이와 같이 올바른 신앙은 지적(知的)일 뿐만 아니라 의지적(意志的)인 확신을 동반한다(참조, 마 22:37).

(4)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간직하였다.

8. **㉠** 다윗의 잠입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부하들이 잠자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7-12절)

㉠ (1)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다'고 하였다(12절).

(2)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은 그들을 쉬게 하는 것이며, 생기를 주는 것이다(시 127:2).

(3)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들을 가두어 놓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잠을 주실 수도 있다(시 76:5, 6).

(4) 또한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자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실 때도 있다(롬 11:8).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9. **㉠** 사울 진영에서 빠져 나온 다윗이 그 진영을 바라보고 누구를 꾸짖었는가? (13-16절)

㉠ (1) 다윗은 사울의 부하 아브넬을 책망하였다.

(2) 다윗의 이와 같은 책망은 결코 조롱거리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3) 이와 같이 양심이 자유한 자는 이웃의 실수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담대한 지적을 할 수 있다(참조, 잠 28:1).

10. **㉠**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17-20절)

㉠ (1) 다윗은 '만일 사울을 격동시켜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기 원한다'고 하였다(19절).

(2) 즉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분노를 쉽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다.

(3)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일이 인자(人子)들에 의한 것이면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했다(19절).

(4) 즉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인간들의 책략에 불과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

게 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5) 이처럼 참된 신앙인은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진술할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둔다(참조, 왕상 18:21-40).

11. ㉠ ‘인자(人子)들’이 행한 일 중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은 무엇인가? (19절)

- ㉠ (1) 죄없는 자를 무고히 죽이려 할 뿐 아니라 더우기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종을 살해하려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 (2) 또한 다윗을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여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하였다.
- (3) 하나님의 기업인 그 땅에서 쫓아내어 망명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
- (4) 오늘날도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형제를 실족시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가 된다(참조, 마18:6).

12. ㉠ 다윗은 사울을 향한 변호 중에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0절)

- ㉠ (1) 자기는 메추라기나 벼룩과 같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했다.
- (2) 즉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울을 대항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하였다.
- (3) 하나님의 뜻은 약하고 도움받아야 마땅한 이웃을 해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야 하는 것이다.
- (4)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대항하지 않은 의인을 죽이려는 잘못을 범하였다(참조, 약5:6).
- (5) 오늘날 악덕 기업주나 정치인 중에 자신의 야욕을 위하여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을 침몰시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다.

13. ㉠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는가? (21절)

- ㉠ (1) 사울이 자신을 가리켜 ‘범죄하였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회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그러나 사울의 이와 같은 말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 (3) 그 이유는 그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습관적 후회였기 때문이다(마27:3).
- (4) 즉 그는 의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동정표를 얻기 위해 이런 고백을 하였다.
- (5) 사실 참된 회개는 인간들 사이에 빚어진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14. ㉠ 다윗은 회개하는 사울에게 무엇을 기억시켰는가? (21-24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의와 신실함을 값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시켰다(23절).
- (2)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였다(24절).
- (3) 이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강조한다.
- (4) 신앙 고백이란 자신의 삶을 각성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참된 신앙을 알리는 진실한 고백이다.

15. ㉠ 다윗은 본장에서 여호와와 거룩한 이름을 몇 번이나 언급하였는가?

- ㉠ (1) 14번 언급하였다(9, 10, 11, 12, 16, 19, 20, 23, 24절).
- (2)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자기의 뜻을 경솔히 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 (3) 즉 그는 투철한 신본주의(神本主義)의 사람이었다.
- (4) 오늘날 우리들의 삶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 (5)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창1:1).

16. ㉠ 원수를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는가? (25절)

- Ⓐ (1) 마침내 사울은 자기가 기필코 죽이려던 다윗에게 복을 빌게 되었다.
 (2) 참으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 16:7)는 말이 성취되었다.

화보자료

물병. 아래의 사진은 서쪽 해변에 위치한 가장 큰 오아시스 지대인 엔게디(Engedi)에서 출토된 손잡이가 달린 물병으로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다윗은 건너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울과 그의 병사들을 향하여 자신이 그들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자신을 벼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그의 언행으로부터 우리는 겸손과 진실됨을 느낄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2절).

제 27 장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다

단락구분 1-4 다윗이 가드로 피하자 사울이 추격을 멈추다 / 5-7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시금락을 얻다 / 8-12 다윗이 이스라엘 변경의 이방인들을 전멸시키고 아기스에게는 속여 신물을 얻다

1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 일어나 함께 있는 육백 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렐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4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대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5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6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금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금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 수는

일 년 넉 달이었더라

8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로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그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9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 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10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로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11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려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2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히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1. ㉠ 본장에 전개된 다윗의 망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1) 사울의 축복(26:25)을 신뢰하지 않은 다윗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사울을 피할 도피처를 찾았다.

(2) 그가 고국을 떠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3)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26:19).

(4)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제기를 지나 아모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고, 불의가 득세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 하나님을 만민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주적인 존재로 아는 것은 올바른 신앙 지식이다.

2. ㉠ 다윗이 신앙 의지가 약하여져 이스라엘을 떠났던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4절)

㉠ (1) 다윗의 이러한 나약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체험적 신앙이 흔들린 결과였다.

(2) 이처럼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하여질 때가 있다.

- (3) 이럴 때 나약한 성도들은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4) 어찌면 이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인지도 모른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깨어 근신하므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해야 하며 또한 말씀을 늘 묵상하므로 범죄치 말아야 한다(참조, 시119:11; 벰전5:8).

3. **㉠**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신했던 '가드'는 어떠한 곳인가? (1-4절)

- ㉠** (1) 블레셋의 5대 성읍(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중 하나였다(수 11:2).
 (2) 이곳은 여호수아가 함락시키지 못한 견고한 요새지였다(수 11:22).
 (3) 또한 엘리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독종이 번졌었다(5:8, 9).
 (4) 다윗과 싸운 블레셋 창군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다(17:14).
 (5)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안 다윗은 두 번 이곳에 피신했다(21:10).
 (6) 후에 다윗이 이 성을 빼앗아 이스라엘에 속하게 하였다(대상 18:1).
 (7) 르호보암이 국방성을 건축하는 중에 이 성을 개수 보강하였다(대하 11:5-10).

4. **㉠**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던 일을 멈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4절)

- ㉠** (1) 다윗이 블레셋 진영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2) 즉 그는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오지 않고 영원한 이방인이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3) 이런 그의 생각은 신앙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다.

5. **㉠**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청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5-7절)

- ㉠** (1) 가드의 지방 성읍 중 한 곳에 거주지를 삼게 해 달라고 하였다(5절).
 (2) 즉 다윗은 블레셋의 수도와는 거리를 두고 살면서 블레셋 지도자들의 눈총을 받지 않기를 원하였다.
 (3)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대단히 멀어져 있었다. 즉 그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문을 어느 정도 닫고 있었던 것이다.
 (4)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죄악된 세상에서 등을 돌려 고적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거하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다(마 28:19).

6. **㉠** 다윗 일행이 피신했던 삼았던 곳은 어디인가? (5-7절)

- ㉠** (1) 블레셋 지경에 있던 '시글락'이었다(6절).
 (2) 원래 이곳은 유다의 성읍이었으나(수 15:31) 나중에 시므온의 성읍이 되었고(19:5), 끝내는 블레셋의 영토가 되었던 곳이다.
 (3) 그러나 다윗이 이제 실지(朱地)를 회복하게 되었다.
 (4)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적이며 나약한 행위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

7. **㉠** 다윗은 시글락에 거하면서 어느 곳을 침노(侵擄)하였는가? (8, 9절)

- ㉠** (1)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8절).
 (2)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자들이었다.
 (3)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침돌이 된 사람들이었다(창 15:16-21).
 (4) 그러므로 다윗이 이들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정의로운 행위였다.
 (5) 하나님의 백성은 일순간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經綸)앞에 자신을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
 (6)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참조, 약 4:17).

8. **㉠**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어디를 침노했노라고 대답했는가? (10절)
- ㉠** (1)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을 침노했다고 하였다.
 (2) 이렇게 다윗은 유다와 그 변방을 해롭게 했다는 말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미워하는 아기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
 (3) 이러한 그의 답변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사악한 인간 본성에게 나온 것이다.
 (4) 거짓말은 어떤 상황 아래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즉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다.
9. **㉠** 다윗이 말한 ‘여라무엘’ 과 ‘겐’ 사람은 어떠한 자들인가? (10절)
- ㉠** (1) ‘여라무엘’ 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다(대상 2:3-9, 25, 26).
 (2) 그리고 ‘겐’ 역시 모세의 장인이 속한 족속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깊었다(삿 1:16).
 (3) 다윗은 이처럼 친구 족속을 들먹이며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였다.
 (4) 오늘날도 자신의 이권과 안전을 위해 친구와 교회와 약한 자들을 팔아가며 불의한 소득을 즐기는 자들이 있다.
 (5)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참조, 사 1:10-17).
10. **㉠** 다윗은 자신이 침노(侵擄)한 지역의 주민을 전멸시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혹시 살아남은 자들이 다윗 자신의 포악함을 전파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2) 즉 다윗은 그 내용이 밝혀져 자신을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여겨 블레셋 사람들이 배척하며 원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이처럼 다윗은 목적의 정당화를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불사(不辭)하는 완악함을 보였다(참조, 삼하 11:2-27).
 (4) 하나님은 일의 판단에 있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동기를 보고 판단하신다(참조, 16:7; 신 1:17; 요 7:24; 롬 2:11; 골 3:25; 벧전 1:17).
11. **㉠**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의 거짓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였는가? (12절)
- ㉠** (1)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아기스 자신의 신하가 되었다고 장담하였다.
 (2) 이처럼 아기스는 다윗을 철저히 신임하게 되었다.
 (3)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의 가르침과 권고에 맹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4) 이렇게 확실한 성경적 근거 없이 신앙하는 것은 ‘아기스’ 처럼 거짓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오류에 빠지고 만다.

본장의 요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6절).

제 28 장 블레셋의 침략에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다

단락구분 1-2 아기스가 다윗의 출전을 명하다 / 3-6 블레셋의 침입으로 인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 7-14 사울이 찾아가신 신접(神接)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 / 15-19 사무엘이 패전을 예언하다 / 20-25 실신했던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되찾다

1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나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2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3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 내었었더라

4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넵에 이르러 진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5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 사울이 여호와게 묻자오되 여호와게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7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언뜰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8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9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울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10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11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12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라

13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14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니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겹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요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16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8 네가 여호와와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20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함이었도 그 기력이 진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21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22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잠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23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

졌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24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
 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문쳐 무교병을 만

들고 구워서
 25 사울의 앞에 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1. ㉠ 본장의 개요와 교훈을 말하라.

- ㉠ (1) 블레셋의 침입으로 궁지에 몰린 사울은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여호와의 지시를 간구했지만 얻을 수 없었다.
 (2) 이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점장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3) 흔히 사람들은 곤경에 처하면 신앙인이란 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일에 빠지기 쉽다.
 (4) 과학 시대라 일컬어지는 오늘날에도 무당이나 점장이들이 성업(成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5) 특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가 인생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점장이 집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 다윗의 거짓말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1, 2절)

- ㉠ (1)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만들었다.
 (2) 비록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받았으나 자기도 함께 본국을 침공하는데 가담케 되었다.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 왕의 신하가 되었으니 이것이 큰 치욕이며 신앙에서 떠난 자에게 임하는 징벌이다(참조, 마 5:13).
 (4) 이처럼 신앙인의 거짓말(행동)은 자신의 인격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마저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든다.

3. ㉠ 아기스는 다윗에게 어떠한 직책을 맡겼는가? (2절)

- ㉠ (1) 아기스는 다윗을 '영영히 자기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았다.
 (2) 즉 종신 호위 대장직을 맡겼다.
 (3) 다윗은 이제 자기의 거짓말로 인하여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는 했지만 조국을 침략할 수도 없고 아기스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4) 이와 같이 한 가지 죄악(거짓말)은 또 다른 죄악을 불러 들여 끝내 한 인격을 파멸시키고야 만다(참조, 약 1:15).

4. ㉠ 사울은 이스라엘에 어떠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는가? (3절)

- ㉠ (1)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신접(神接)한 자와 박수(무당)를 몰아내었다.
 (2) 율법에 순종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미신적 요소를 불리칠 수 있었다(참조, 출 22:18; 신 18:10, 11).
 (3)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형상화 되지 않은 미신적인 요소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잠재해 있다.
 (4) 이러한 우상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놓고 철저히 죄악의 요소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5. ㉠ 사울이 '두려워서 크게 떨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 5절)

- ㉠ (1)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5절).
 (2)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자는 세상의 힘 앞에서 용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3) 왜냐하면 힘의 근원이신(시 18:1; 빌 4:13)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돕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4)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는 사망이 위협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다(시23:4; 롬8:34-39).

6. **㉠**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낀 사울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였는가? (5, 6절)

㉠ (1)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다(6절).

(2) 사울은 그가 번영할 때는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사람을 경시하였으나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참조, 사26:16).

(3) 이와 같은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 역경을 타개해 보려는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였다.

(4)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다(참조, 갈6:7).

(5)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의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신다(시34:18).

7. **㉠**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6절)

㉠ (1) 첫번째, '꿈'이다. 꿈은 하나님과 사람의 의사 전달 수단으로 인정되었다(참조, 민12:6).

(2) 두번째, '우림'이다. 이 우림은 대제사장의 예복(출28:6-14) 위 판결 흉패(출28:15-29) 사이에 넣은 일종의 제비 기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사용되었다(민27:21).

(3) 세번째로 '선지자'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셨다(참조, 신18:15, 22; 왕상13:18).

(4) 사울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5) 왜냐하면 그의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기 때문이다(참조, 사59:2).

8. **㉠**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했던 사울은 이제 그의 방법으로 무엇을 계획했는가? (7절)

㉠ (1)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2) 여기서 신접한 여인이란 사자(死者)에게 미래를 물어 사술(邪術)을 행하는 사람으로 율법에서 엄히 금지되었다(참조, 레19:31).

(3) 그 당시 '엔돌' (다불 산과 모래 언덕 사이)에 사울의 숙청(3절)을 피한 영매(靈媒)가 살고 있었다.

(4) 사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영매를 찾아가 자신이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5)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또 다른 삶의 인도자를 찾으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게 된다.

9. **㉠**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던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10절)

㉠ (1)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던 일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굴욕적인 것이었다.

(2) 일국의 왕인 그가 평복으로 변장하고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간 것(8절)은 자신의 행동이 떳떳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3) 또한 신접한 여인이 '네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9절)라고 한 것은 사울의 행동이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4) 그리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10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죄악이다(출20:7).

10. **㉠**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누구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가? (11-14절)

㉠ (1) 사무엘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11절).

(2)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며, 자기의 자문이였기 때문에 그의 충고를 듣고 싶었던 것이다.

(3)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살아 있을 때는 시기하거나 꾀박하다가 그가 죽

은 후에 그의 지혜를 구하는 한심한 경우가 있다.

(4) 예수께서도 이것을 직시하면서 음부에 내려간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눅 16:24-27).

(5) 친구의 지혜로운 권고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잠 22:11; 27:6, 9).

11. **㉠**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실제 사무엘인가? (11-14절)

㉠ (1) 이것은 실제 사무엘이 아니고 사단이 사무엘로 가장하고 대언한 것에 불과하다.

(2) 이처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후 11:14).

(3) 혹자는 여기 나온 사무엘을 실제 사무엘이 아니고 유령이라고 하였다(Luther, Calvin).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이 영매술(靈媒術)의 사용은 성도의 삶에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출 22:18; 신 18:9-14).

12. **㉠**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이 실제 사무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고 있는가? (11-14절)

㉠ (1)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사무엘을 불러 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인에게 이러한 일을 허용하셨을리는 없다.

(3) 성도들의 영혼은 몸을 떠나면 부활 때까지 잠자는 것으로 묘사되었다(참조, 요 11:11; 고전 15:18-20; 엡 5:14).

(4) 그러므로 '신이 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허위임에 분명하다.

(5) 또한 집신녀가 사무엘을 보고 놀란 것(12절)은 영매로서의 자기 행위는 실제로 죽은 자와의 순수한 접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그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3. **㉠** 집신녀가 보았던 '신'(神)은 과연 무엇인가? (13절)

㉠ (1) 죽은 자(사무엘)의 초자연적인 형상이나 그와 비슷한 악영을 가리킨다.

(2) 원시적인 히브리 사람들은 죽은 뒤의 생명은 땅 밑의 동굴인 '음부'(스울)에서 그림자와 같이 생존한다고 생각하였다.

(3) 여기서 죽은 자는 사회적이거나 도덕적인 분별과는 무관하게 긴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4) 여하튼 이 '신'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지옥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존경하는 이방 종교의 사상이다.

(5)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 중에 이와 같은 잘못된 '신'(a god)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14. **㉠** 집신녀가 보았던 '땅에서 올라 온 신'은 어떤 모습인가? (14절)

㉠ (1) 겹옷을 입은 노인 모양이었다.

(2) 이에 사울은 외모(겹옷과 노인)만으로 그 '신'이 사무엘인 줄 알고 경배하였다.

(3) 이와 같이 사울은 속임수에 의해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 들게 되었다.

(4)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신접한 자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기울이듯이 허탄한 것을 좇을 수밖에 없다(참조, 사 8:19).

15. **㉠** '땅에서 올라 온 신'인 사무엘에게 사울은 무엇이라 간청했는가? (15절)

㉠ (1) 먼저 자신의 위급한 사정을 말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 그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의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사울은 그가 재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탄식한 적이 없었다.

(4) 그러나 그가 위태한 지경에 처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 (5) 이와 같이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위태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파렴치한 자들이 있다.
- (6)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형편을 초월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참조, 빌4:11-13).

16. **㉠** '땅에서 올라온 신'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15-19절)

- ㉠** (1) 땅에서 올라온 신인 사무엘은 사울의 범죄(16, 18절)를 먼저 지적하고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예언하였다(17-19절).
- (2) 즉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16절) 그에게서 왕국을 빼앗으셨으며(17절) 사울과 그 군대에는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19절)을 예언한 것이다.
- (3) 그리고 그 왕국은 다윗에게 넘겨졌다고 하였다(17절).
- (4) 이 모든 예언은 대부분이 정확한 것이었다.
- (5) 여기에서 사무엘의 출현과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허용된 사단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참조, 왕상22:20-23).

17. **㉠**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19절)

- ㉠** (1)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자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 (2) 즉 그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리라는 말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세력 아래 놓인 자(사울)는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이웃(아들들)의 생명까지 멸망으로 몰아 넣는다(참조, 마 23:13).
- (4)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구원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
- (5)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였다(고후2:15, 16).

18. **㉠** 사울이 갑자기 땅에 쓰러진 이유는 무엇인가? (20-25절)

- ㉠** (1)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 기운이 빠진데다가 사무엘의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20절).
- (2) 사울은 접신녀의 간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녀가 제공하는 음식물로 생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
- (3) 그는 이제 악의 보호를 받는 가장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 (4) 즉 하나님을 떠난 그의 형편은 사단의 도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참조, 엡2:1-3).

19. **㉠** 사울이 사자(死者)와 대화했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5-25절)

- ㉠** (1) 본 사건은 사자(死者)와의 대화가 속임수와 악령의 세력에 기초한 것임을 보여 준다.
- (2)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소외시키는 일이 되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의사 전달 과정을 무시하는 죄악이다.
- (3) 죽은 자와의 대화는 그가 남겨 둔 인격과 언어와 업적을 통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 (4) 특히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 간 믿음의 발자취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큰 용기와 힘이 된다(참조, 히11장).

제 29 장 블레셋 진에서 다윗이 철수하다

단락구분 1-2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전하다 / 3-5 블레셋 방백들의 거절 / 6-11 다윗의 철수

1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2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3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4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의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5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이까

6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말라

8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좋게서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9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11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1. ㉠ 본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 (1) 전장(前章)에서는 하나님께 버림 받은 사울이 그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다가 더욱 큰 곤경과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다.

(2) 그러나 본장(本章)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조국 이스라엘을 짓밟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에 그 자신이 어떠한 지혜를 짜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구해 준 것을 기록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전장과 본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실증해 주고 있다.

2. ㉠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집결한 곳은 어디인가? (1절)

㉠ (1) 잇사갈 지파에 속한 땅 '아벡'에 모였다.

(2)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벡'에 군사들을 집결시킨 적이 있었다(4:1).

(3) 이와 같이 죄의 세력은 성도들이 약하게 여기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침투하려고 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약한 부위가 어디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고 사단의 유혹이 더 이상 없도록 늘 깨어 경계해야 한다(참조, 벧전 5:8).

3. **㉠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참전했는가? (2절)**

- ㉠** (1)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최전방에 있지 않고 아기스 왕과 함께 뒤에서 진군했다.
 (2)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아마도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인정(認定)을 받았을 것이다.
 (3)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 칼을 뽑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므로 다윗의 참전은 자기 신앙 양심을 속이는 일인 동시에 조국을 배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결과는 그의 거짓말에서 유래되었다.
 (5) 이와 같이 죄악(거짓말)은 처음엔 자신을 이(利)롭게 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참조, 약 1:15).
 (6)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진실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참조, 신 32:4).

4. **㉠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할 수 있었던 2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첫째는 다윗과 사울이 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27:12).
 (2) 두번째는 다윗이 그동안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였다는 것이다.
 (3) 물론 이와 같은 다윗의 행위는 모두 거짓된 것이지만 적대국의 왕에게까지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성실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시 31:23).

5. **㉠ 아기스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꺼려했던 모습은 어떠한가? (4, 5절)**

- ㉠** (1) 먼저 그들은 왕에게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었다(4절).
 (2) 또한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였다(4절).
 (3)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 블레셋에겐 대단히 위험한 존재라고 하였다(5절; 18:6, 7; 21:11).
 (4) 그들은 매우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
 (5)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6. **㉠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힌 블레셋 왕 아기스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6, 7절)**

- ㉠** (1) 아기스는 방백들의 의견에 따라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작정하였다.
 (2) 아기스는 다윗을 격려하며 그를 돌려보냈다(6절).
 (3) 더욱이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일 정도로 다윗의 마음을 평정시키려 노력하였다.
 (4) 뿐만 아니라 다윗의 충성과 선행을 칭찬하였다.
 (5) 이처럼 지혜롭고 선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참조, 잠 16:7).
 (6)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대(3-5절)와 아울러 호응에도 인내하며 적용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을 소유하여야 한다(참조, 마 5:43).

7. **㉠ 다윗의 철수를 권고하는 아기스 말에서 얻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6, 7절)**

- ㉠** (1) 이와 같은 말을 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2) 즉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동족을 쳐야 하는 위기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악인의 입을 사용하셨다.
 (3) 또한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시기심을 일으켜 다윗의 종군을 면하게 하셨다.
 (4)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불신앙의 한 때를 걸었다 하더라도 공물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참조, 합 3:2).

8. ㉠ 돌아가라는 아기스의 명령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절)

- ㉠ (1) 다윗은 자신의 성실을 주장하며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었음을 한탄하였다.
 (2) 본절에 나오는 다윗의 말은 결코 본심으로 한 말이 아니다.
 (3) 그는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신의 충성을 보였던 것이다.
 (4) 그러나 그는 내심으로 돌아가게 된 사실을 다행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5)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며 그 마음에 진실한 말을 하는 자와 함께 하실 것이다 (참조, 시15:2;51:6).

9. ㉠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는 이유를 무엇이라 했는가? (9, 10절)

- ㉠ (1) 자기에게 다윗은 필요한 존재지만 대다수 방백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라고 하였다.
 (2)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의 선행을 언급하면서 다윗을 위로하였다.
 (3)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 같다는 말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4) 그리고 다윗을 '새벽에' 떠나보내려 한 것은 더 많이 받게 될지 모르는 의혹과 질투를 막아 주기 위한 처사였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당신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며 끝내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 (참조, 시50:15).

10. ㉠ 블레셋 방백의 반대에 부딪혔던 다윗은 끝내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 ㉠ (1)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되돌아갔다.
 (2)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시글락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3)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4) 인간은 단지 이러한 주권적인 사역에 복종할 따름이다.

11. ㉠ 곤경에 빠졌던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1절)

- ㉠ (1)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의 곤경을 지혜롭고도 은혜롭게 해결하여 주셨다.
 (2) 다윗은 율가미에서 벗어났으며 곤경에서 해방되었다.
 (3) 이처럼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에게 준 불명예(3-5절)는 오히려 그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4) '여호와와 의인은 의인을 향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34:15).
 (5)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참조, 마7:13, 14).

본장의 요점

그들이
 좇주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이까?
 (5절).

제 30 장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르다

단락구분 1-2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하다 / 3-6 아말렉 족속의 만행과 다윗의 비탄 / 7-15 여호와의 협을 입은 다윗의 추격 / 16-20 처자와 물건을 되찾다 / 21-30 탈취물을 공평히 분배하다

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 삼 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로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났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예뻐서 내게로 가져 오라 아비아달이 예뻐서 다윗에게로 가져 오매

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 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 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

9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육백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10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이백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사백인을 거느리고 쫓아 가니라

11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12 무화과와 멩치에서 맨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1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었나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

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4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15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16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 다윗이 새벽부터 이른날 저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8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물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21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이백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2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23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들겠느냐 진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울

레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6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와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27 베엘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달에 있는 자와
 28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심못에 있는 자와 에

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29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므엘 사람의 성읍 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 들에 있는 자와
 30 훌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1. **㉠** 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적 깨우침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국과의 전투에서 물러났던 다윗과 그 일행은 시글락에서 또 다른 비극을 목격하게 되었다.
 (2) 즉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침입해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탈취해 갔던 것이다.
 (3) 사실 다윗에게는 시글락에서의 망명 생활이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적격이었다.
 (4)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다윗의 선택한 행동(시글락에서의 망명)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주셨다.
 (5) 그리하여 하나님은 본장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길은 철저히 비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셨다(참조, 잠 14:12).
 (6) 뿐만 아니라 본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재난은 중요한 종교적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2. **㉠** 아기스 왕의 철수 명령으로 시글락에 되돌아 온 다윗은 그곳에서 어떤 광경을 목격하였는가? (1, 2절)

- ㉠** (1)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 의해 초토화(焦土化)된 것을 볼 수 있었다(1절).
 (2) 더우기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은 포로로 잡혀 가고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2절).
 (3) 결국 사울이 완전히 전멸시키지 못한 아말렉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에 화를 가져왔다(15:2, 3, 10-19).
 (4)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한 번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규명하여 근절하지 않으면 죄는 기회를 타서 또다시 유혹하고 만다.
 (5) 죄의 특징은 한 인격을 철저히 파멸시키기까지 끈질기게 접근한다(참조, 잠 14:11).

3. **㉠** 다윗과 그 부하들이 심히 통곡한 이유는 무엇인가? (3-5절)

- ㉠** (1) 시글락 성은 불타 버리고 가족들은 적군의 손에 사로잡혀 갔기 때문이다(3절).
 (2) 그 부하들은 잃어버린 처자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으며 아울러 다윗을 원망하는 눈물을 흘렸다(6절).

4. **㉠** 백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6절)

- ㉠** (1)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였다.
 (2) 즉 그들은 이러한 비극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3) 이처럼 다윗과 생사(生死)를 같이 하겠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관련된 사건 앞에서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하고 말았다.
 (4) 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에 조그마한 손상이 와도 쉽게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인간이다.
 (5) 결국 환난은 참신앙인과 비신앙인, 그리고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는 기회가 된다(참조, 마 24:9-13; 행 14:22; 살전 3:2, 3; 살후 1:4, 5).

5. **㉠** 다윗이 '군급(窘急)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6절)

- ㉠** (1) 이 말은 다윗이 '깊은 슬픔과 근심에 빠졌다'는 말이다.
 (2)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겪어야 하는 쓰라린 시련이었으며, 피할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온전케하기 위하여 연단하신다(참조, 욥 28:1; 사 48:10; 속 13:9; 뱀전 1:7).

(4)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축복이며, 또한 이를 통해 참다운 천국 백성이 된다(참조, 시 119:71; 사 38:17)

6. **㉠** 깊은 근심에 빠져 있던 다윗은 어떻게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가? (6절)

㉠ (1)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2)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다.

(3)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하셔서 담대하며 강하여졌다는 의미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떤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간직할 수 있으며 최악의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다.

7. **㉠** 다윗은 어떠한 때에 하나님을 찾았는가? (1-6절)

㉠ (1) 다윗은 두 처를 빼앗기고 또 백성들이 돌로 치려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5, 6절).

(2) 참으로 환난은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3) 즉 환난은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연단이며 축복이다.

8. **㉠**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후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7, 8절)

㉠ (1)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하였다.(7절).

(2) 왜냐하면 '에봇'과 연결된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하는 유림과 둠뿔이 있었기 때문이다(출 28:6, 29, 30).

(3) 이와 같이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한 일에 있어서 전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인도를 받기 원했던 것이다.

(4) 이것도 그의 신앙이며 자기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긴 증거이다.

(5)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뜻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교만이다.

9. **㉠** 아말렉 군대 추격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8절)

㉠ (1) 하나님은 다윗에게 '추격하라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무찔러 잃었던 것들을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다.

(2) 이러한 답변은 다윗이 우림과 둠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이다(7절).

(3)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우림과 둠뿔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였다(28:6).

(4) 오늘날 죄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참조, 마 13:13-15).

(5)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여 애태울수록 더욱 감추어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회개)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10. **㉠**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다윗의 군대는 모두 몇 명이었는가? (9, 10절)

㉠ (1) 모두 600명이었다(9절).

(2) 그러나 다윗은 너무 지쳐서 맹렬히 추격하기 곤란한 200명을 '브솔 시내'에 머물도록 하고 나머지 400명으로 추격을 계속하였다.

(3)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아끼는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비교, 14:24, 31).

(4)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들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

(5) 오히려 그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였다.

(6) 이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초월하게 만든다(참조, 고후 12:9, 10).

11. **㉠** 다윗의 군대는 아말렉 추격하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는가? (11-15절)

㉠ (1) 병들어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던 애굽 사람을 만났다(11, 13절).

(2)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공할 때 함께 참전했다고 하였다(14절).

(3) 다윗은 원수이지만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었다(11, 12절). 이것은 다윗의 자비로운 처사였다(참조, 롬 12:20).

(4)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인을 다윗의 협조자로 삼았던 것이다(15절).

(5) 결국 다윗은 공훈과 사랑을 베풀음으로 인해 자신과 부하들의 가족을 모두 구해내게 되었다. 이처럼 공훈을 베푸는 자는 공훈함을 입게 될 것이다.

12. **㉠** 다윗이 길가에 버려진 애굽 출신 종에게 무엇을 주어 회생시켰는가? (11, 12절)

㉠ (1) 떡과 물만이 아니라(11절) 무화과와 건포도까지 주었다.

(2) 비록 다윗의 군대는 시간이 촉박했으며 자신들의 식량도 넉넉하지 않았으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내버려 둘 수 없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잠 24:11, 12)고 말할 수 없었다.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며 그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다(잠 24:12).

(4) 그러나 이보다 더 적극적인 면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의 지위를 막론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참조, 레 19:18; 대하 2:11; 마 19:19; 요일 4:11, 12).

(5) 이와 같이 사랑은 입술의 열매가 아니고 마음과 행동의 열매이다(요일 3:18). 즉 사랑은 이웃의 필요를 알 뿐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다(참조, 눅 10:33-35).

13. **㉠** 버림 받은 아말렉 사람의 종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다윗 군대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했는가? (11-15절)

㉠ (1) 이 종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뿐더러 주인의 손에 자기를 붙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15절).

(2) 더군다나 그는 자기의 목숨이 안전하기를 원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기를 원하였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능력이다.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셨다(요 1:12).

14. **㉠** 아말렉 사람은 자기의 종을 왜 버렸는가? (13절)

㉠ (1) 그 종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2) 아말렉 사람은 이 종을 탁타에 태우고 음식을 제공하기에는 너무나도 천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버렸던 것이다.

(3) 또 그 주인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인해서 많은 종이 생겼기 때문에 그를 버렸을 것이다.

(4) 요즈음도 고용주들 중에는 피고용자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있다.

(5) 그러나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15. **㉠** 다윗이 아말렉 진을 기습할 즈음에 아말렉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6-20절)

㉠ (1)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16절).

(2) 이런 때에 다윗의 군대는 기습하였고 아말렉인 중 400여 명만이 피할 수 있었다(17절).

(3) 이처럼 죄인들에게는 '안전하다', '기쁘다' 할 그때가 가장 멸망에 가까운 때이다(참조,

살전5:3).

- (4) 즉 우리가 육신적인 열락에 빠지고 거기에 탐닉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원수(사단)의 공격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된다.
- (5) 이와 같이 악인의 승리는 잠시 잠깐임을 늘 깨닫고 성도들은 늘 근신하여 주의 날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참조, 뱀전5:8).

16. ㉠ 다윗이 아말렉 진영을 기습한 결과는 무엇인가? (16-20절)

- ㉠ (1) 아말렉인이 빼앗아간 가족과 재산을 도로 찾고, 또한 아말렉인들의 소유물까지 탈취하였다(18-20절).
- (2) 다윗이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
- (3) 즉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므로(8절) 인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성취하셨던 것이다(참조, 롬12:19).
- (4)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께 전(全)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생명력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참조, 요10:10).

17. ㉠ 다윗 군사 중 아말렉 진을 습격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던 200명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21-25절)

- ㉠ (1) 다윗은 그들에게 문안하고(21절) 전쟁터에 직접 나가 싸운 사람이다. 여기서 남아 우리의 소유물을 지킨 사람이나 다 같이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다(24절).
- (2)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는 전혀 자기들의 공로가 아님을 알았던 것이다(23절).
- (3) 참으로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였다.
-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생명, 명예, 재산 등)은 전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고백은 결국 형제를 위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나 형제를 구제할 때 바로 이러한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8. ㉠ 탈취물을 공동 분배하는데 반대했던 자들은 누구인가? (22절)

- ㉠ (1)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갔던 자 중 악한 자와 비류(非類)들이 반대하였다.
- (2) 이들은 욕심이 과도한 자들이었다.
- (3) 이들의 제안은 참전하지 않은 자에게 가족만 돌려 주고 탈취물은 물론이고 도로 찾은 물건까지 돌려 주지 말자는 것이었다.
- (4) 즉 그들에게 입은 주되 먹을 양식은 주지 말자는 악의에 찬 제안을 했다.
- (5) 이와 같이 욕심에 눈이 먼 자들은 자신의 형편만을 생각하고 이웃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 (6)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때에는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욕심은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끝내는 멸망을 초래한다(참조, 약1:15).

19. ㉠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서 전리품(戰利品)을 유다의 여러 지방 장로들에게 보냈던 이유는 무엇인가? (26-30절)

- ㉠ (1)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원수를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모두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 (2) 또한 이러한 승리가 결코 다윗 한 개인의 영광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기쁨임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 (3) 여기서 다윗이 준 '선물'은 '뇌물'이 아니다. 이것은 순수한 존경과 감사의 예물일 뿐이었다.
- (4) 이런 합법적인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며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든다

(참조, 창24:53;33:8-11;잠18:16;19:6;21:14).

(5) 그러나 감사와 존경을 떠난 선물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사행심(射倖心)을 조장하는 불의의 예물이다(참조, 12:3).

화보자료

왕정 시대의 전쟁 모습. 아래의 사진은 샹티이 콩테 미술관에 소장된 「인간 구원의 거울」의 삽화 가운데 한 장면으로서 왕정 시대의 전쟁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본장에는 다윗이 시글락에서 악탈당한 가축들과 붙잡혀간 여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둔 기록이 나온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자의건 타의건 간에 많은 전쟁을 치루었으며 그 전쟁들을 통하여 흘린 피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망이 좌절되었다(대상 22:8).

제 31 장 길보아 싸움에서 패한 사울이 자결하다

단락구분 1-6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대와 아들을 잃은 사울이 자살하다 / 7-10 블레셋 족속이 사울의 시체를 모독하다 / 11-13 길르앗 아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루어 준다

1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3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4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리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5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7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

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8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겨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9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10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벨산 성벽에 못 박으매

11 길르앗 아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벨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아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13 그 뼈를 가져다가 아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칠 일을 금식하였더라

1. **Q** 본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 A** (1) 전장(前章)에는 다윗이 아말렉을 매우 성공적으로 정복한 기사가 기록되었다.
 (2) 그러나 본장(本章)에는 사울이 블레셋에 정복 당하여 포로 이상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3) 하나님의 섭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하셨다.
 (4) 즉 다윗이 아말렉을 정복하던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5) 이것은 하나님 시대가 들어서면서 다른 한 시대는 역사의 막 뒤로 물러서게 된 것이다.
 (6)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버린 자의 결말이 각각 어떠한가를 볼 수 있다.

2. **Q**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 결과는 어떠했는가? (1-6절)

- A** (1)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주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멸하였다(1절).
 (2) 또한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전사하였다(2절).
 (3) 그리고 중상(重傷)을 입은 사울은 자살하였다(3, 4절).
 (4)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은 사무엘의 예언(28:19)을 성취시킨 것이었다. 즉 사울의 일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3. **㉠** 이스라엘 전군(全軍)이 패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힘썼던 요나단마저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요나단의 죽음은 범죄한 부모 때문에 그 자식들이 고난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기인한 것이다(참조, 출20:5).
- (2) 그러나 범죄한 사실에 대한 책임은 항상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다(참조, 겔18:2-4).
- (3) 비록 요나단이 부친의 죄악으로 전사하였지만 그 죽음은 악인들과 같은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영예와 내세가 확실히 주어진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이것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할 수 없다(참조, 잠 14:32).
- (4) 그리고 요나단이 부친의 실수를 책망하면서도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위치에 서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참으로 값진 죽음이다.
- (5) 이것은 진정한 사랑(요15:13)에 기초한 효도이다(엡6:1).

4. **㉠** 사울의 자살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 4절)

- ㉠** (1) 사울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았을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전12:7) 자기의 명예가 블레셋 사람에게 손상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 (2) 그래서 그는 그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죽었다. 그는 거만하고 질투가 많았으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
- (3) 그러나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자들은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5. **㉠** ‘할례(割禮) 없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4절)

- ㉠** (1) 블레셋 사람들을 말한다.
- (2) 여기서 그의 자살 동기가 밝혀지는 데 그는 ‘할례 없는 자’의 손에 모욕적인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자살을 결심하였다.
- (3)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큰 죄악이다.
- (4) 이와 같이 자살을 거리낌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의식이 전혀 없는 삶의 태도이다.
- (5) 올바른 신앙인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의(義)의 실현을 위해 삶을 불태운다(참조, 단6:10-28; 행7:54-60).

6. **㉠** 사울의 자살이 끼치는 피해는 무엇인가? (4-6절)

- ㉠** (1) 사울의 자살은 또 다른 죽음을 초래하였다.
- (2) 즉 그의 부하도 그의 나쁜 본을 보고 같은 죄(자살)를 범하였다(5절).
- (3) 이처럼 죄악은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주위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만든다.
- (4)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조그마한 죄마저도 철저히 가려내어 자신의 영혼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까지 보호해야 할 것이다.

7. **㉠** 사울 한 사람의 죄악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는가? (7절)

- ㉠** (1) 사울의 범죄는 자기의 죽음과 더불어 자신의 조국에 커다란 비극을 안겨 주었다.
- (2) 즉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죄악된 민족인 블레셋에게 짓밟히는 모욕을 당하였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단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왕정을 원했던 국민과 왕은(8:4-9) 국민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야 말았다(12:15).
- (4)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8. **㉠** 사울의 장례(葬禮)는 어떻게 치루어졌는가? (8-10절)

- ㉠** (1)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겨 블레셋 땅 방방 곡곡에 보내어 저희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기쁨이 되게 하였다(9절).

- (2) 그런 후에 그 갑옷은 아스다롯 신당에 보관하고 시체는 벤산 성벽에 못박아 달아 놓았다(10절).
- (3) 이처럼 블레셋인들은 그들의 승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헛된 신에 의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이다.
- (4)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진노를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셨다(롬1:18-25).
- (5) 이와 같이 패역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며 감사치도 못하고 오히려 헛된 신에게 영광을 돌려 끝내 멸망을 자초하고 만다(참조, 롬1:21-27).

9. **㉠** '아스다롯의 집'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10절)

- ㉠** (1) 아스다롯을 모신 신전을 말한다.
- (2) 여기서 '아스다롯' 신전은 가나안의 농사 여신이며 바알의 여신인 '아쉬타트'의 신전이기도 하다.
- (3) 이 신전은 이스라엘과 요단 계곡의 교차 지점인 '벤산'이라는 전략적 성읍에 위치해 있었다.
- (4) 블레셋 사람들은 패전한 군사들의 시체를 신전이 있는 성읍의 대로변을 따라 벽에 매달았다(참조, 삼하21:12).
- (5) 이것은 그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다.
- (6) 이처럼 죄인은 우상을 즐겁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10. **㉠**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의 손에서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11-13절)

- ㉠** (1) 그들은 사울이 전에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11:1-11)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 (2) 또한 무할레자들에게 왕의 시체가 모욕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의로운 용기를 발휘했던 것이다.
- (3)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일은 사울의 생애 동안 가장 기억될 만한 것이다.
- (4)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으나 생애 중 길르앗 야베스인들을 압몬의 침략으로부터 구출해 준 선행으로 인해 그 시신은 버려지지 않고 야베스인들에 의해 장사되었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명예를 보존해 준다.

11. **㉠**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12, 13절)

- ㉠** (1) 그 시체들은 절단되어 있었으므로(9절) 화장(火葬)했으며 뼈는 보존하여 장사지냈다.
- (2) 시체를 불태우는 일은 범죄자들의 경우 이외에 히브리적 관습에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 (3)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기록 속에서 매장한다는 말로 이를 대치하였다(대상10:11).
- (4) 아모스는 시체를 불태우는 것이 혐오할 만한 것이라고 선언하였다(암2:1).
- (5) 이와 같이 구약에서 시체가 불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약에서 단절되었을 때 주로 사용된 시체 처리 방법이었다(참조, 수7:25; 왕상13:2).
- (6)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이 화장 제도가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병사, 사고사)에 주로 사용되는 시체 처리법이다.

12. **㉠**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장례한 후에 며칠간 금식하였는가? (1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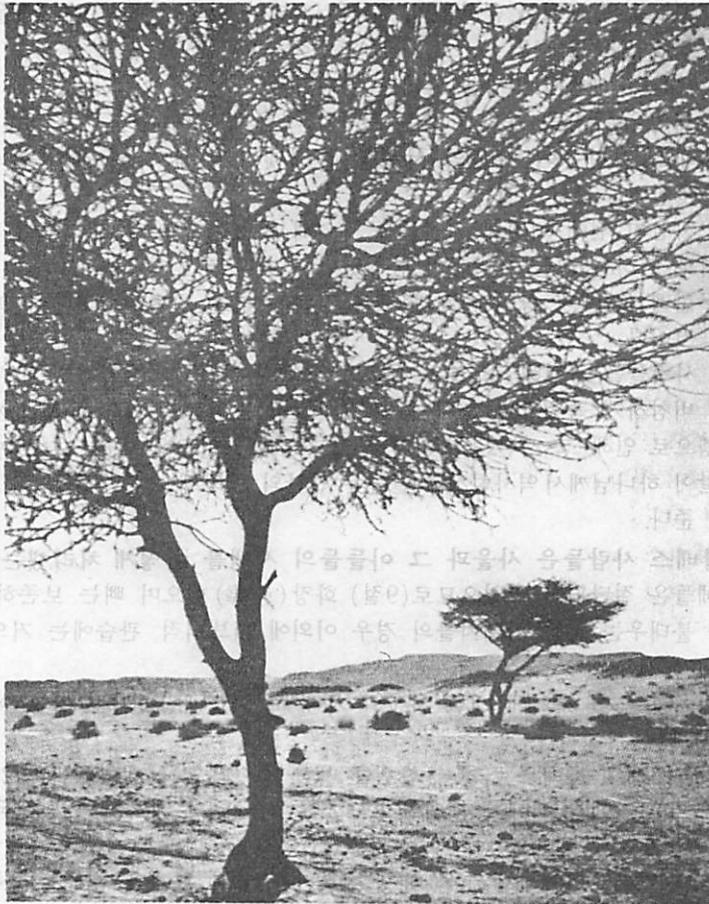
- ㉠** (1) 7일을 금식하였다.
- (2) 금식의 한 주간은 이스라엘의 왕을 애도하는 공적 의식에 불과했다.
- (3)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와 같이(25:1) 애곡하였

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

- (4) 만일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의 생애는 이처럼 어둡고 불행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끝났을 것이다(참조, 요14:15).

화보자료

에셀나무(tamarisk tree). 팔레스틴에는 8종 이상이 번식하고 있는 상록이다. 대부분은 관목에 지나지 않으나 9m 가까이 자라는 것도 있다. 뿌리는 땅 속 깊이 30m나 뻗어 지하수를 흡수한다. 봄에는 흰색 또는 핑크색의 작은 꽃이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피는 것이 특징이다.



사울의 뼈는 아베스 에셀나무 아래 묻혀졌다(13절). 즉 그의 몸은 절단되어(9절) 불살라졌지만(12절) 뼈는 보존되어 매장된 것이다. 이스라엘인들은 화장(火葬)하는 것을 죄로 여겼었다(참조, 암 2:1).